



**2015학년도 제주대학교
신입생 실태조사 연구**

2015학년도 제주대학교 신입생 실태조사 연구

〈 목 차 〉

초 록	IV. 요약 및 제언
I. 서 론	참고문헌
II. 조사대상 및 방법	
III. 조사결과 분석 및 해석	

< 초 록 >

본 조사는 2015학년도 신입생들의 설문 응답을 기반으로, 이들의 생각하는 가정생활의 환경, 대학생활, 교수, 학교 및 학생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2015학년도 신입생 중 80%인 1,986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설문에 응답한 인원은 1,956명 이었으며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1,913명을 대상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몇 가지 의미 있는 점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가정에 대하여 화목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부모가 보호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등록금 및 생활비를 부모에게 의지하고 있지만 10%가량은 스스로 등록금 및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통해 자신의 용돈을 마련하고자 한다. 진로 결정에 있어서는 진로와 관련된 정보가 부족과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움으로 나타나 대학에 입학 한 신입생들부터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진로검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이후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생들은 대학진학의 목적을 유망 직업을 얻는 것에 두고 있으며 남학생들은 유망 직업을 더 선호하며 여학생들은 전문적 지식 습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생활 중에서는 폭넓은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싶어 하며 해외여행 및 외국연수, 사회봉사활동 등과 같은 다양한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우리 대학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 대학에서도 이러한 학생들의 기대에 맞춰 학생들을 위한 폭넓은 정보와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생들은 교수에게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며 특히 높은 학점과 해박한 지식 전달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취업문제와 학습방법 및 학업문제에 대하여 조언을 얻고자 한다. 따라서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교수들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넷째, 학생들은 인생에서 취미와 여가를 즐기는 생활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며 안정적 삶보다 삶의 여유를 느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인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대학생활에서 대인관계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이에 대해 우리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추출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학생활 중 어려움을 겪게 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친구에게 의지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은 심리상담 전문가들의 상담을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 대학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또래 상담 전문가와 심리상담 전문가들을 배치하여 학생들이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조사 연구는 우리 대학의 학생들의 77% 정도의 신입생을 기반으로 조사한 자료로 이는 우리 대학 신입생의 전체를 대변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가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많은 변화라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신입생 실태조사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 학생들이 성장과정을 확인 할 수 있는 종단연구를 수행하면 보다 구체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요구하는 점과 만족하는 점 등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I. 서 론

우리대학교 취업전략본부에서는 매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신입생 실태조사는 대학의 입시정책 및 진로지도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학생들을 위한 교육 및 행정적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 실태 조사 항목은 신입생들의 특성과 그들이 처한 환경, 심리적 특성 및 가치, 대학생활, 대학에 대한 이미지와 자긍심, 학과(학부) 선택의 과정 및 교수 관계, 일반적 가치관과 취업전략본부 이용 등에 관한 것이다.

학령인구의 부족현상으로 대학의 구조적 변화는 불가피한 시점에서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실태 분석은 대학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교육의 질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역량을 높이는 사업을 발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학생들은 대학이라는 곳을 전문적이고 높은 수준의 학문을 배우는 곳이라기보다, 폭넓은 사회생활을 위한 기반을 제공받고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서의 가치를 더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대학교에서도 다양한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섭렵하고 이를 해소해 줄 수 있어야 하며, 학생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 대학만의 특화되고 구체적인 방법이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실태조사를 통한 분석결과는 우리대학이 역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책임지도교수제’와 연동하여 학생들의 정서와 고민사항 및 대학생활에서 바라는 바에 대한 사전 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학교에서는 본 조사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경우별 가이드를 마련하여, 학생들이 보다 쉽게 학교의 문을 두드릴 수 있게 하며, 교수는 학생을 좀 더 잘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II.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조사는 2015학년도 제주대학교 신입생 중 80% 내외인 1,986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설문에 응답한 인원은 1,956명으로 98.5%였다. 설문에 응답한 인원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43명의 설문지를 제외한 1,913명의 설문으로 분석하였으며 설문 항목별 표기하지 않은 항목은 결측치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v22.0을 활용하여 단과대학별, 성별, 출신지역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분석 실시하였다.

각 자료에 대한 설명은 백분율로 하였으며 단과대학별, 성별, 출신지역에 따른 차이에 대한 카이제곱값 및 유의도는 생략하였다.

1. 단과대학별 조사 현황

본 조사의 연구 대상 및 설문 배부, 설문 회수, 유효 설문응답에 대한 단과대학별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단과대학별 조사 현황

구분	입학인원 (명)	배부 (명)	수거 (명)	회수율 (%)	유효응답 (명)	응답율 (%)
인문대	295	236	228	96.6	226	76.6
사회대	174	139	142	102.2	136	78.2
경상대	380	304	304	100.0	300	78.9
사범대	150	120	131	109.2	131	87.3
생명대	149	119	120	100.8	113	75.8
해양대	263	210	199	94.8	192	73.0
자연대	340	272	278	102.2	270	79.4
공과대	372	298	310	104.0	308	82.8
교육대	119	95	89	93.7	87	73.1
수의대	47	38	29	76.3	29	61.7
간호대	69	55	54	98.2	54	78.3
예술대	125	100	72	72.0	67	53.6
합계	2,483	1,986	1,956	98.5	1,913	77.0

* 회수율 = 수거/배부 × 100, 응답율 = 유효응답/입학인원 × 100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단과대학에서 90% 이상의 설문지 회수율을 보이고 있어 적극적으로 본 조사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수의과대학과 예술디자인대학의 경우에는 70%대의 조금 낮은 설문지 회수율을 보였다.

2.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1,913명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n=1,913)

구 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928	48.5
	여자	985	51.5
출신 고교 지역	제주시	1,265	66.1
	서귀포시	277	14.5
	서울	80	4.2
	대전 및 경기	102	5.3
	광주 및 전남	45	2.4
	대구 및 경북	26	1.4
	강원	1	0.1
	충북	20	1.0
	대전 및 충남	33	1.7
	부산, 울산 및 경남	46	2.4
	전북	13	0.7
	해외	5	0.3
출신고교지역	도내	1,542	80.6
	도외	371	19.4
입학형태	정시	1,411	73.8
	수시	473	24.7
	정원 외	29	1.5
소속대학	인문대학	226	11.8
	사회과학대학	136	7.1
	경상대학	300	15.7
	사범대학	131	6.8
	생명자원과학대학	113	5.9
	해양과학대학	192	10.0
	자연과학대학	270	14.1
	공과대학	308	16.1
	교육대학	87	4.5
	수의과대학	29	1.5
	간호대학	54	2.8
	예술디자인대학	67	3.5

1) 단과대학별 입학형태 응답 비율

단과대학별 입학형태(정시, 수시, 정원 외) 응답 비율은 표 3과 그림 1과 같다.

표 3 단과대학별 입학형태 응답 비율

입학형태	대학구분													전체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교육대	수의대	간호대	예술대		
정시	167 73.9%	99 72.8%	205 68.3%	109 83.2%	85 75.2%	142 74.0%	196 72.6%	223 72.4%	64 73.6%	20 69.0%	44 81.5%	57 85.1%	1411 73.8%	
수시	53 23.5%	37 27.2%	89 29.7%	21 16.0%	27 23.9%	48 25.0%	68 25.2%	83 26.9%	21 24.1%	6 20.7%	10 18.5%	10 14.9%	473 24.7%	
정원 외	6 2.7%	0 .0%	6 2.0%	1 .8%	1 .9%	2 1.0%	6 2.2%	2 .6%	2 2.3%	3 10.3%	0 .0%	0 .0%	29 1.5%	
전체	226 100.0%	136 100.0%	300 100.0%	131 100.0%	113 100.0%	192 100.0%	270 100.0%	308 100.0%	87 100.0%	29 100.0%	54 100.0%	67 100.0%	1913 100.0%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과대학별 입학형태 설문응답비율은 정시모집 73.8%, 수시모집 24.7%, 정원 외 모집 1.5%의 비율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많은 인원이 정시모집 학생들이며, 특히 사범대, 간호대, 예술대는 80% 이상 정시모집 학생들이 응답하였다. 수의대의 경우 타 단과대학에 비하여 정원 외 모집 학생의 응답률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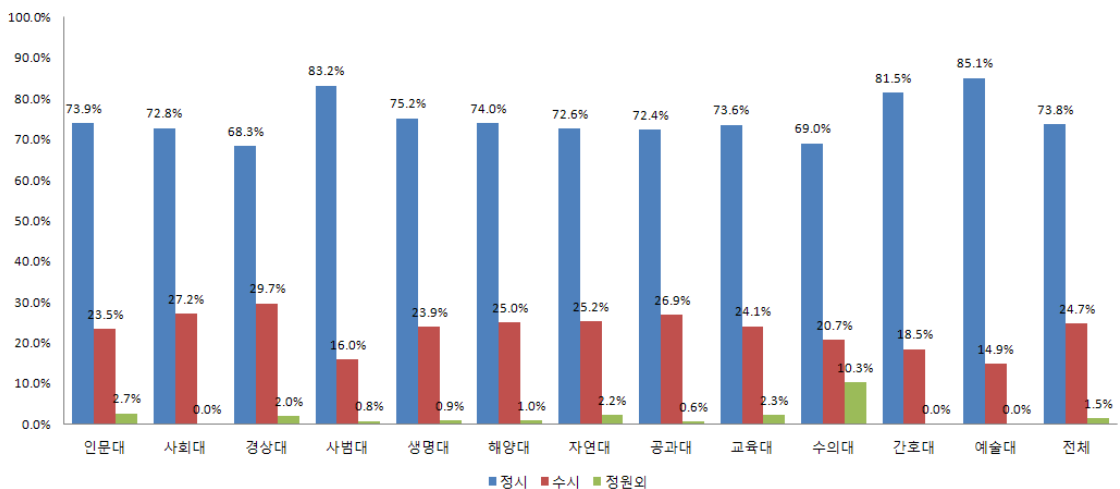


그림 1. 단과대학별 입학형태 응답 비율

2) 입학형태에 따른 성별 응답 비율

입학형태(정시, 수시, 정원 외)에 따른 성별 응답 비율은 표 4와 그림 2와 같다.

표 4. 입학형태에 따른 성별 응답비율

	성별	입학형태			전체
		정시	수시	정원외	
남	704 49.9%	210 44.4%	14 48.3%	928 48.5%	
	707 50.1%	263 55.6%	15 51.7%	985 51.5%	
전체		1411 100.0%	473 100.0%	29 100.0%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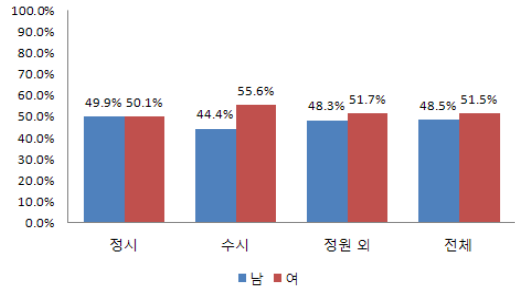


그림 2. 입학형태에 따른 성별 응답 비율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학형태(정시, 수시, 정원 외)에 따른 성별의 비율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특정성별에 대한 편향성은 없을 것이다.

3) 단과대학별 출신지역 응답 비율

단과대학별 출신지역 응답 비율은 표 5와 그림 3과 같다.

표 5. 단과대학별 출신지역 응답 비율

출신 지역	대학구분	대학구분												전체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교육대	수의대	간호대	예술대	
도내	192 85.0%	124 91.2%	259 86.3%	110 84.0%	93 82.3%	135 70.3%	220 81.5%	273 88.6%	31 35.6%	5 17.2%	43 79.6%	57 85.1%	1542 80.6%	
	34 15.0%	12 8.8%	41 13.7%	21 16.0%	20 17.7%	57 29.7%	50 18.5%	35 11.4%	56 64.4%	24 82.8%	11 20.4%	10 14.9%	371 19.4%	
전체		226 100.0%	136 100.0%	300 100.0%	131 100.0%	113 100.0%	192 100.0%	270 100.0%	308 100.0%	87 100.0%	29 100.0%	54 100.0%	67 100.0%	1913 100.0%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단과 대학이 도내 출신 학생들이 70%이상의 비율로 응답하였다. 하지만 교육대와 수의대의 경우에는 도외 출신 학생들의 응답비율이 각각 64.4%, 82.8%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대와 수의대의 경우 다른 단과대학과 동일한 학생 특성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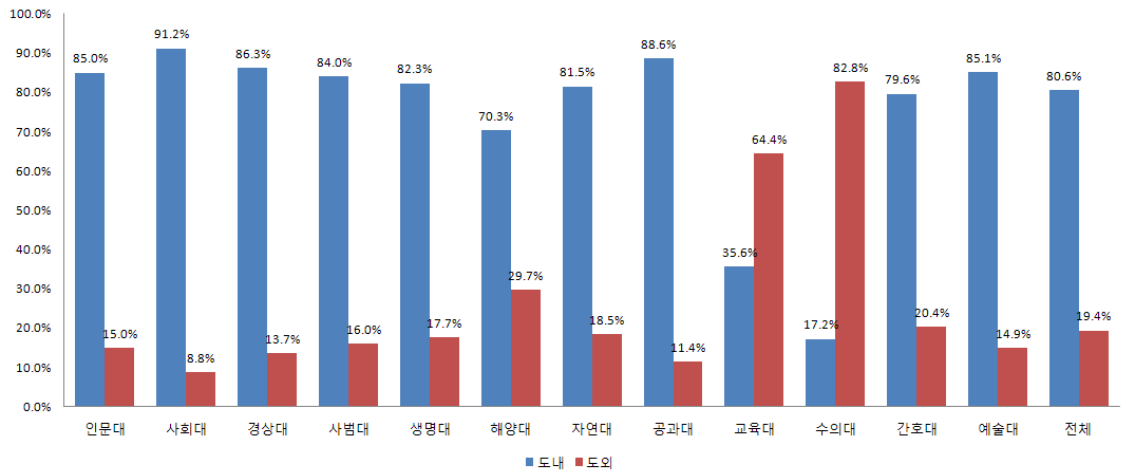


그림 3. 단과대학별 출신 지역 응답 비율

Ⅲ. 조사결과 분석 및 해석

1. 개인 및 가정생활 관련

1) 가족 구성원

- 단과대학별

단과대학별 가족구성원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단과대학별 가족구성원

	대학구분												전체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교육대	수의대	간호대	예술대	
조부	13 5.8%	14 10.3%	35 11.7%	10 7.6%	13 11.5%	13 6.8%	26 9.6%	35 11.4%	7 8.0%	2 6.9%	4 7.4%	9 13.4%	181 9.5%
조모	37 16.4%	25 18.4%	66 22.0%	21 16.0%	28 24.8%	38 19.9%	66 24.4%	64 20.8%	13 14.9%	3 10.3%	8 14.8%	11 16.4%	380 19.9%
부	205 91.1%	129 94.9%	281 93.7%	122 93.1%	110 97.3%	174 91.1%	246 91.1%	285 92.5%	84 96.6%	28 96.6%	49 90.7%	63 94.0%	1776 92.9%
모	208 92.4%	130 95.6%	291 97.0%	129 98.5%	109 96.5%	184 96.3%	255 94.4%	293 95.1%	86 98.9%	29 100.0%	54 100.0%	63 94.0%	1831 95.8%
형, 오빠	60 26.7%	39 28.7%	86 28.7%	27 20.6%	31 27.4%	49 25.7%	70 25.9%	77 25.0%	18 20.7%	3 10.3%	9 16.7%	22 32.8%	491 25.7%
누나, 언니	72 32.0%	36 26.5%	88 29.3%	40 30.5%	37 32.7%	58 30.4%	83 30.7%	101 32.8%	29 33.3%	15 51.7%	20 37.0%	18 26.9%	597 31.2%
남동생	79 35.1%	44 32.4%	117 39.0%	55 42.0%	38 33.6%	65 34.0%	109 40.4%	105 34.1%	34 39.1%	8 27.6%	24 44.4%	27 40.3%	705 36.9%
여동생	64 28.4%	41 30.1%	86 28.7%	43 32.8%	34 30.1%	50 26.2%	79 29.3%	76 24.7%	21 24.1%	5 17.2%	17 31.5%	20 29.9%	536 28.0%
전체	225 100.0%	136 100.0%	300 100.0%	131 100.0%	113 100.0%	191 100.0%	270 100.0%	308 100.0%	87 100.0%	29 100.0%	54 100.0%	67 100.0%	1911 100.0%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과대학별로 차이는 있으나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학생은 90%이상 이며 형제가 있는 학생은 약 30% 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각 단과대학별 비율은 유사하며 수의대와 간호대 학생들은 모두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성별

성별에 따른 가족구성원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성별 가족구성원

	성별구분		전체
	남자	여자	
조부	99 10.7%	82 8.3%	181 9.5%
조모	197 21.3%	183 18.6%	380 19.9%
부	867 93.5%	909 92.4%	1776 92.9%
모	878 94.7%	953 96.8%	1831 95.8%
형, 오빠	222 23.9%	269 27.3%	491 25.7%
누나, 언니	288 31.1%	309 31.4%	597 31.2%
남동생	281 30.3%	424 43.1%	705 36.9%
여동생	233 25.1%	303 30.8%	536 28.0%
전체	927 100.0%	984 100.0%	1911 100.0%

가족구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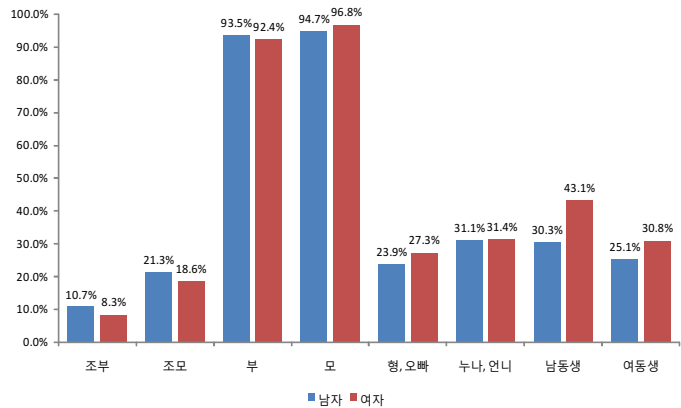


그림 4. 성별 가족구성원

표 7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라 가족구성원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남학생들이 조부·조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조금 높게 나타났으며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동생과 함께 있는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 출신지역

출신지역에 따른 가족구성원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출신지역별 가족구성원을 살펴보면 특징적으로 도내·외의 가족구성원에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다만 도내 학생들이 조부, 조모, 형·오빠, 누나·언니, 남동생에서 도외 학생들보다 조금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8. 출신지역별 가족구성원

	지역구분		전체	
	도내	도외		
가족구성원	조부	147 9.5%	34 9.2%	181 9.5%
	조모	312 20.2%	68 18.4%	380 19.9%
	부	1421 92.2%	355 95.9%	1776 92.9%
	모	1469 95.3%	362 97.8%	1831 95.8%
	형, 오빠	431 28.0%	60 16.2%	491 25.7%
	누나, 언니	488 31.7%	109 29.5%	597 31.2%
	남동생	585 38.0%	120 32.4%	705 36.9%
	여동생	428 27.8%	108 29.2%	536 28.0%
	전체	1541 100.0%	370 100.0%	191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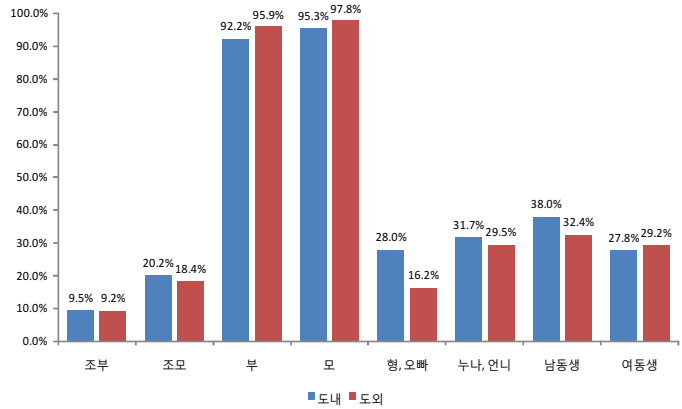


그림 5. 출신지역별 가족구성원

2) 입학 후 거주 형태

- 단과대학별

단과대학별 입학 후 거주 형태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단과대학별 입학 후 거주 형태

	대학구분												전체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교육대	수의대	간호대	예술대		
입학 후 거주형태	본가	165 73.0%	98 72.1%	207 69.0%	86 65.6%	79 69.9%	98 51.0%	169 62.6%	216 70.1%	25 28.7%	4 13.8%	38 70.4%	42 62.7%	1227 64.1%
	친척집	1 .4%	5 3.7%	4 1.3%	2 1.5%	5 4.4%	4 2.1%	3 1.1%	4 1.3%	0 .0%	0 .0%	0 .0%	3 4.5%	31 1.6%
	자취	22 9.7%	12 8.8%	31 10.3%	12 9.2%	8 7.1%	24 12.5%	40 14.8%	34 11.0%	20 23.0%	10 34.5%	6 11.1%	12 17.9%	231 12.1%
	하숙	1 .4%	2 1.5%	0 .0%	1 .8%	0 .0%	0 .0%	1 .4%	0 .0%	4 4.6%	0 .0%	0 .0%	1 1.5%	10 .5%
	기숙사	35 15.5%	19 14.0%	57 19.0%	30 22.9%	21 18.6%	64 33.3%	53 19.6%	49 15.9%	38 43.7%	15 51.7%	9 16.7%	9 13.4%	399 20.9%
기타	2 .9%	0 .0%	1 .3%	0 .0%	0 .0%	2 1.0%	4 1.5%	5 1.6%	0 .0%	0 .0%	1 1.9%	0 .0%	15 .8%	
전체	226 100.0%	136 100.0%	300 100.0%	131 100.0%	113 100.0%	192 100.0%	270 100.0%	308 100.0%	87 100.0%	29 100.0%	54 100.0%	67 100.0%	1913 100.0%	

단과대학별 입학 후 거주 형태를 살펴보면 64%의 학생이 본가에서 생활할 것으로 나타났고 20.9%의 학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12.1%의 학생이 자취를 하며 생활할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대와 수의대의 경우에는 80% 가량이 자취 또는 기숙사에서 생활할 것으로 응답하여 도외에서 입학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성별

성별에 따른 입학 후 거주 형태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성별 입학 후 거주 형태

		성별구분		전체
		남자	여자	
입학	본가	562 60.6%	665 67.5%	1227 64.1%
	친척집	17 1.8%	14 1.4%	31 1.6%
후	자취	95 10.2%	136 13.8%	231 12.1%
	하숙	4 .4%	6 .6%	10 .5%
거주 형태	기숙사	242 26.1%	157 15.9%	399 20.9%
	기타	8 .9%	7 .7%	15 .8%
전체		928 100.0%	985 100.0%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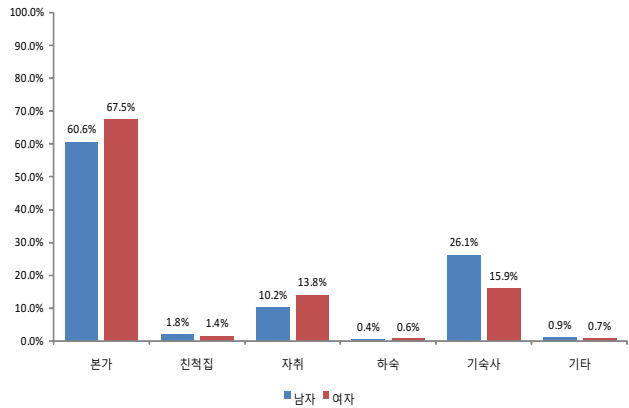


그림 6. 성별 입학 후 거주 형태

성별에 따른 입학 후 거주 형태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여학생들은 남학생보다 자취를 조금 더 많이 하고 있으며, 남학생들은 여학생들 보다 기숙사에 생활하는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 출신지역별

출신지역에 따른 입학 후 거주 형태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1과 같다.

출신지역에 따른 입학 후 거주 형태를 살펴보면 도내 출신 학생들의 약 80%는 본가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자취하는 경우가 약 10%로 나타났다. 도외 출신 학생들은 73%가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17.3%가 자취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출신지역별 입학 후 거주 형태

		지역구분		전체
		도내	도외	
입학 후 거주 형태	본가	1208 78.3%	19 5.1%	1227 64.1%
	친척집	24 1.6%	7 1.9%	31 1.6%
	자취	167 10.8%	64 17.3%	231 12.1%
	하숙	3 .2%	7 1.9%	10 .5%
	기숙사	128 8.3%	271 73.0%	399 20.9%
	기타	12 .8%	3 .8%	15 .8%
전체	1542 100.0%	371 100.0%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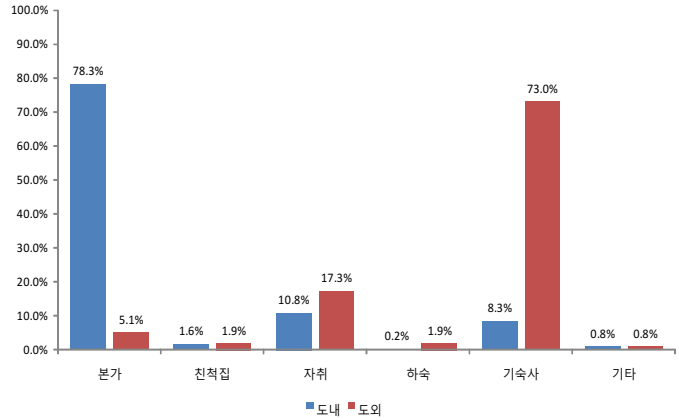


그림 7. 출신지역별 입학 후 거주 형태

3) 가정의 경제수준

- 단과대학별

단과대학별 가정의 경제수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단과대학별 가정의 경제수준

		대학구분												전체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교육대	수의대	간호대	예술대	
가정 의 경 제 수 준	상	2 .9%	1 .7%	5 1.7%	3 2.3%	1 .9%	5 2.6%	6 2.2%	5 1.6%	7 8.0%	2 6.9%	0 .0%	3 4.5%	40 2.1%
	중상	32 14.2%	30 22.1%	45 15.0%	19 14.5%	21 18.6%	32 16.7%	44 16.3%	50 16.2%	25 28.7%	14 48.3%	9 16.7%	9 13.4%	330 17.3%
	중	128 56.6%	67 49.3%	186 62.0%	76 58.0%	71 62.8%	112 58.3%	160 59.3%	170 55.2%	44 50.6%	10 34.5%	26 48.1%	47 70.1%	1097 57.3%
	중하	50 22.1%	30 22.1%	52 17.3%	28 21.4%	18 15.9%	30 15.6%	43 15.9%	73 23.7%	10 11.5%	3 10.3%	15 27.8%	8 11.9%	360 18.8%
	하	14 6.2%	8 5.9%	12 4.0%	5 3.8%	2 1.8%	13 6.8%	17 6.3%	10 3.2%	1 1.1%	0 .0%	4 7.4%	0 .0%	86 4.5%
전체	226 100.0%	136 100.0%	300 100.0%	131 100.0%	113 100.0%	192 100.0%	270 100.0%	308 100.0%	87 100.0%	29 100.0%	54 100.0%	67 100.0%	1913 100.0%	

단과대학별 가정의 경제수준을 살펴보면 57.3%의 가정이 중간 정도의 경제수준임을 알 수 있으며, 수의대의 경우에는 가정의 경제수준이 중상인 비율이 48.3%로 타 단과대학과 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 성별

성별에 따른 가정의 경제수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성별 가정의 경제수준

	성별구분		전체
	남자	여자	
가정 의 경 제 수 준	상	12 1.2%	40 2.1%
	중상	165 17.8%	330 17.3%
	중	515 55.5%	1097 57.3%
	중하	175 18.9%	360 18.8%
	하	45 4.8%	86 4.5%
전체	928 100.0%	985 100.0%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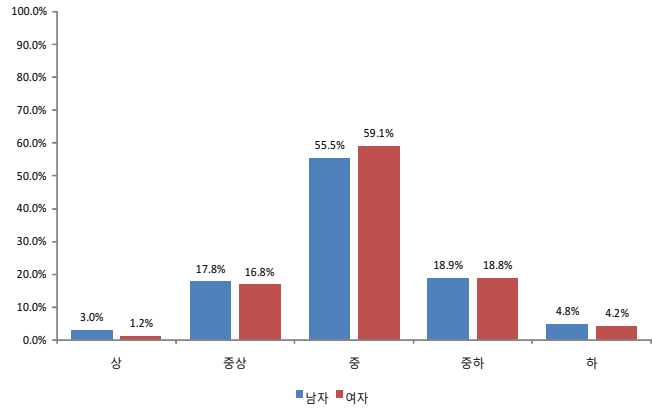


그림 8. 성별 가정의 경제수준

성별에 따른 가정의 경제수준은 거의 같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남학생들은 가정의 경제수준이 상이라는 학생이 3% 정도로 여학생들이 1.2%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중간의 경제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학생이 59.1%로 남학생의 55.5%보다 높게 나타났다.

- 출신지역별

출신지역에 따른 가정의 경제수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 출신지역별 가정의 경제수준

	가정의 경제수준	지역구분		전체
		도내	도외	
상	22 1.4%	18 4.9%	40 2.1%	
중상	222 14.4%	108 29.1%	330 17.3%	
중	917 59.5%	180 48.5%	1097 57.3%	
중하	309 20.0%	51 13.7%	360 18.8%	
하	72 4.7%	14 3.8%	86 4.5%	
전체	1542 100.0%	371 100.0%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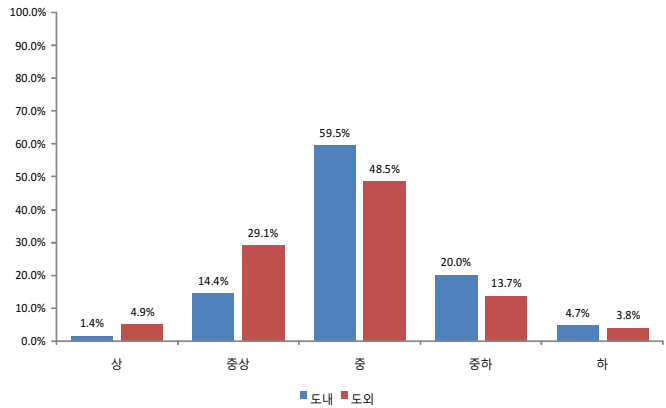


그림 9. 출신지역별 가정의 경제수준

출신지역별 가정의 경제수준은 도외 학생들의 가정이 도내 학생들의 가정보다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중상이상의 경제수준 가정이 도외의 경우 34%임에 반에 도내의 경우 15.8%로 나타났다.

4) 부모님의 학력

- 단과대학별

단과대학에 따른 부모님 학력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5, 표 16과 같다.

표 15. 단과대학별 아버지 학력

	고졸이하	대학구분												전체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교육대	수의대	간호대	예술대	
아버지 학력	71 32.4%	43 31.9%	118 40.5%	29 23.4%	34 30.4%	74 39.4%	83 31.3%	98 32.5%	12 13.8%	4 13.8%	18 34.6%	13 19.7%	597 31.9%	
대학교 중퇴	10 4.6%	11 8.1%	13 4.5%	7 5.6%	1 .9%	11 5.9%	29 10.9%	18 6.0%	3 3.4%	0 .0%	3 5.8%	0 .0%	106 5.7%	
대학교 졸업	116 53.0%	65 48.1%	134 46.0%	72 58.1%	62 55.4%	85 45.2%	133 50.2%	161 53.3%	61 70.1%	20 69.0%	27 51.9%	46 69.7%	982 52.5%	
대학원이상	14 6.4%	13 9.6%	18 6.2%	13 10.5%	12 10.7%	13 6.9%	16 6.0%	20 6.6%	10 11.5%	5 17.2%	2 3.8%	5 7.6%	141 7.5%	
기타	8 3.7%	3 2.2%	8 2.7%	3 2.4%	3 2.7%	5 2.7%	4 1.5%	5 1.7%	1 1.1%	0 .0%	2 3.8%	2 3.0%	44 2.4%	
전체	219 100.0%	135 100.0%	291 100.0%	124 100.0%	112 100.0%	188 100.0%	265 100.0%	302 100.0%	87 100.0%	29 100.0%	52 100.0%	66 100.0%	1870 100.0%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학생의 52.5% 비율의 아버지가 대학을 졸업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원 이상 졸업하신 아버지는 7.5%로 나타났다. 고졸이하의 학력이신 아버지는 31.9%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특징을 보면 자연대 학생의 아버지가 대학교를 중퇴하신 경우가 10.9%로 타 대학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대와 수의대 학생의 아버지가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고 계신 경우가 각각 81.6%, 86.2%로 타 대학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6. 단과대학별 어머니 학력

		대학구분											전체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교육대	수의대	간호대		예술대
어 머 니 학 력	고졸이하	94 43.3%	61 45.9%	161 54.2%	49 37.4%	48 43.2%	90 47.4%	131 49.2%	138 45.5%	27 31.0%	5 17.2%	25 46.3%	24 36.4%	853 45.3%
	대학교 중퇴	13 6.0%	13 9.8%	10 3.4%	5 3.8%	5 4.5%	17 8.9%	16 6.0%	13 4.3%	1 1.1%	0 .0%	0 .0%	3 4.5%	96 5.1%
	대학교 졸업	94 43.3%	50 37.6%	104 35.0%	61 46.6%	54 48.6%	68 35.8%	102 38.3%	129 42.6%	49 56.3%	21 72.4%	25 46.3%	33 50.0%	790 41.9%
	대학원이상	7 3.2%	5 3.8%	13 4.4%	10 7.6%	1 .9%	8 4.2%	10 3.8%	15 5.0%	9 10.3%	3 10.3%	3 5.6%	3 4.5%	87 4.6%
	기타	9 4.1%	4 3.0%	9 3.0%	6 4.6%	3 2.7%	7 3.7%	7 2.6%	8 2.6%	1 1.1%	0 .0%	1 1.9%	3 4.5%	58 3.1%
전체	217 100.0%	133 100.0%	297 100.0%	131 100.0%	111 100.0%	190 100.0%	266 100.0%	303 100.0%	87 100.0%	29 100.0%	54 100.0%	66 100.0%	1884 100.0%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학생의 46.5%의 어머니가 대학을 졸업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대학원 이상 졸업하신 어머니는 4.6%로 나타났다. 고졸이하의 학력이신 어머니는 45.3%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특징을 보면 수의과대학 학생들의 어머니가 대학교를 졸업한 비율이 72.4%로 타 대학보다 높게 나타났다.

- 성별

성별에 따른 부모님 학력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7, 표 18과 같다.

표 17. 성별 아버지 학력

	성별구분		전체	
	남자	여자		
아버지 학력	고졸이하	293 32.2%	304 31.7%	597 31.9%
	대학교 중퇴	57 6.3%	49 5.1%	106 5.7%
	대학교 졸업	464 51.0%	518 54.0%	982 52.5%
	대학원 이상	80 8.8%	61 6.4%	141 7.5%
	기타	16 1.8%	28 2.9%	44 2.4%
전체	910 100.0%	960 100.0%	187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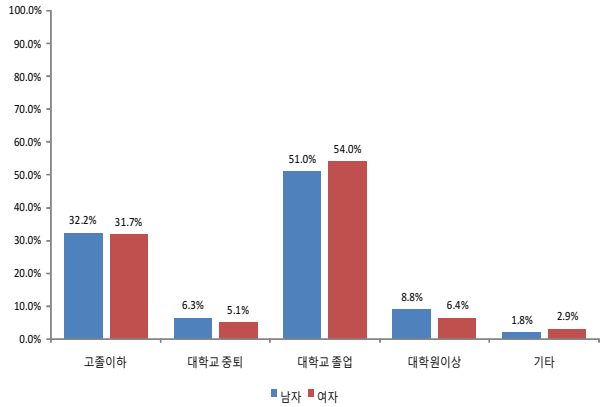


그림 10. 성별 아버지 학력

성별에 따른 아버지의 학력을 살펴보면 남녀가 아버지의 학력이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대학교 졸업한 아버지를 둔 여학생이 54%로 남학생들 보다 조금 높은 편이고 대학원 이상 졸업한 아버지를 둔 남학생이 8.8%로 여학생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표 18. 성별 어머니 학력

	성별구분		전체	
	남자	여자		
어머니 학력	고졸이하	399 43.7%	454 46.8%	853 45.3%
	대학교 중퇴	53 5.8%	43 4.4%	96 5.1%
	대학교 졸업	392 42.9%	398 41.0%	790 41.9%
	대학원 이상	44 4.8%	43 4.4%	87 4.6%
	기타	25 2.7%	33 3.4%	58 3.1%
전체	913 100.0%	971 100.0%	188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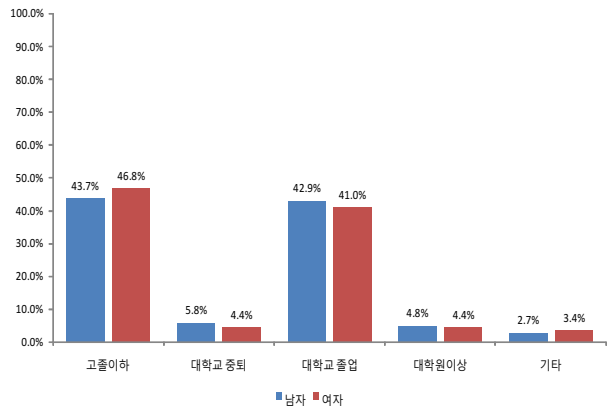


그림 11. 성별 어머니 학력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학력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학력과 마찬가지로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고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를 둔 학생 중 여학생(46.9%)이 남학생

(43.7%)보다 조금 높은 편이다.

- 출신지역별

출신지역에 따른 부모님 학력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9, 표 20과 같다.

표 19. 출신지역별 아버지 학력

	지역구분		전체	
	도내	도외		
고졸이하	509 33.9%	88 23.9%	597 31.9%	
아버지 학력	대학교 중퇴	95 6.3%	11 3.0%	106 5.7%
	대학교 졸업	776 51.7%	206 56.0%	982 52.5%
대학원이상	83 5.5%	58 15.8%	141 7.5%	
기타	39 2.6%	5 1.4%	44 2.4%	
전체	1502 100.0%	368 100.0%	187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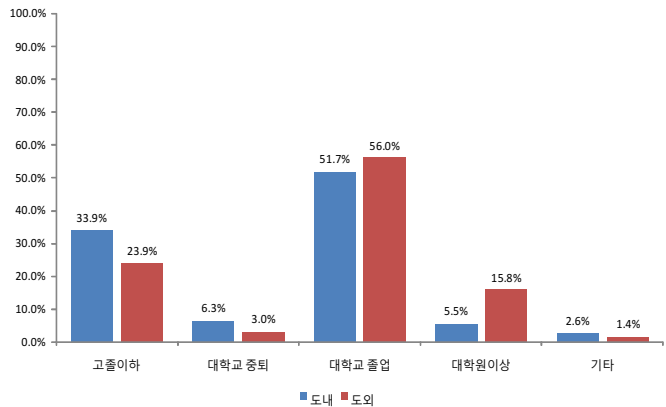


그림 12. 출신지역별 아버지 학력

출신지역별 아버지의 학력을 살펴보면 도외 지역 출신 학생들의 아버지가 대학원이상 졸업한 비율이 15.8%로 도내 출신 학생들의 아버지보다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0. 출신지역별 어머니 학력

	지역구분		전체	
	도내	도외		
고졸이하	722 47.7%	131 35.4%	853 45.3%	
어머니 학력	대학교 중퇴	81 5.4%	15 4.1%	96 5.1%
	대학교 졸업	600 39.6%	190 51.4%	790 41.9%
대학원이상	58 3.8%	29 7.8%	87 4.6%	
기타	53 3.5%	5 1.4%	58 3.1%	
전체	1514 100.0%	370 100.0%	188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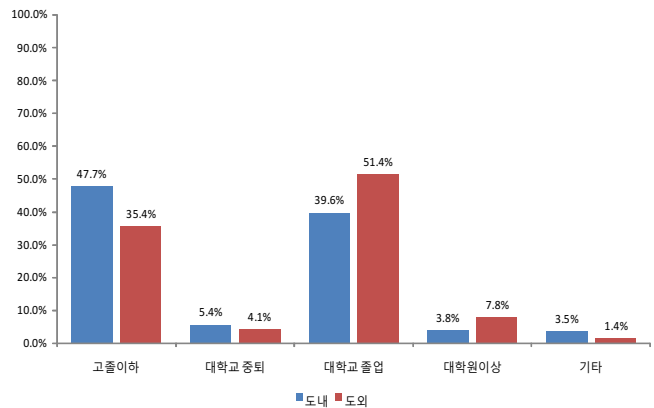


그림 13. 출신지역별 어머니 학력

출신지역별 어머니의 학력을 살펴보면 도내 출신 학생들의 어머니 중 대학교 이상 졸업하신 분은 45.4%이고 도외 출신 학생들의 어머니 중 대학교 이상 졸업하신 분은 59.2%로 도외 출신 학생들의 어머니가 학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부모님의 직업

- 단과대학별

단과대학에 따른 부모님 직업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21, 표 22와 같다.

표 21. 단과대학별 아버지 직업

	대학구분												전체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교육대	수의대	간호대	예술대	
전문직	15 6.8%	10 7.6%	25 8.7%	9 7.3%	12 10.8%	14 7.7%	19 7.4%	32 10.8%	17 20.0%	1 3.6%	1 1.9%	6 9.2%	161 8.7%
경영·관리직	15 6.8%	17 12.9%	32 11.1%	10 8.1%	20 18.0%	22 12.0%	27 10.5%	21 7.1%	11 12.9%	8 28.6%	4 7.7%	8 12.3%	195 10.6%
교직	10 4.6%	2 1.5%	6 2.1%	12 9.7%	3 2.7%	5 2.7%	11 4.3%	6 2.0%	3 3.5%	2 7.1%	3 5.8%	4 6.2%	67 3.6%
사무직	61 27.9%	36 27.3%	81 28.2%	28 22.6%	23 20.7%	41 22.4%	56 21.7%	78 26.3%	31 36.5%	10 35.7%	15 28.8%	15 23.1%	475 25.8%
숙련 기술직	27 12.3%	18 13.6%	36 12.5%	18 14.5%	9 8.1%	28 15.3%	39 15.1%	55 18.5%	4 4.7%	1 3.6%	9 17.3%	6 9.2%	250 13.6%
판매·서비스업	48 21.9%	18 13.6%	56 19.5%	24 19.4%	18 16.2%	37 20.2%	49 19.0%	44 14.8%	13 15.3%	3 10.7%	14 26.9%	13 20.0%	337 18.3%
소규모 농·축·수산업	18 8.2%	14 10.6%	25 8.7%	10 8.1%	12 10.8%	22 12.0%	26 10.1%	30 10.1%	3 3.5%	0 .0%	1 1.9%	6 9.2%	167 9.1%
비숙련 노동	4 1.8%	5 3.8%	6 2.1%	1 .8%	4 3.6%	2 1.1%	8 3.1%	8 2.7%	1 1.2%	0 .0%	0 .0%	3 4.6%	42 2.3%
전업 주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5%	1 .1%
정년 퇴직	4 1.8%	1 .8%	3 1.0%	1 .8%	0 .0%	2 1.1%	1 .4%	2 .7%	1 1.2%	2 7.1%	0 .0%	0 .0%	17 9.9%
무직·실직자	4 1.8%	4 3.0%	4 1.4%	3 2.4%	0 .0%	3 1.6%	7 2.7%	4 1.3%	0 .0%	1 3.6%	2 3.8%	0 .0%	32 1.7%
기타	13 5.9%	7 5.3%	13 4.5%	8 6.5%	10 9.0%	7 3.8%	15 5.8%	17 5.7%	1 1.2%	0 .0%	3 5.8%	3 4.6%	97 5.3%
전체	219 100.0%	132 100.0%	287 100.0%	124 100.0%	111 100.0%	183 100.0%	258 100.0%	297 100.0%	85 100.0%	28 100.0%	52 100.0%	65 100.0%	1841 100.0%

단과대학에 따른 아버지의 직업을 살펴보면 우선 전체적으로 아버지가 사무직인 경우가

2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판매 및 서비스업(18.3)이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교육대 학생들의 아버지 중 전문직의 비율이 20%로 타 대학의 전문직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고 수의대 학생들의 아버지 중 경영·관리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28.6%로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가 사무직인 비율은 교육대와 수의대가 타 대학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숙련 기술직은 공과대학이 높게 나타났다.

표 22. 단과대학별 어머니 직업

	대학구분												전체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교육대	수의대	간호대	예술대	
	전문직	6 2.8%	5 3.8%	9 3.0%	5 3.9%	6 5.4%	7 3.7%	6 2.3%	15 5.0%	6 6.9%	3 10.3%	3 5.6%	
경영·관리직	2 .9%	3 2.3%	11 3.7%	3 2.3%	2 1.8%	4 2.1%	6 2.3%	10 3.3%	1 1.1%	0 .0%	1 1.9%	4 6.2%	47 2.5%
교직	24 11.2%	14 10.6%	24 8.1%	18 14.0%	8 7.2%	15 8.0%	26 9.9%	26 8.6%	17 19.5%	6 20.7%	9 16.7%	11 16.9%	198 10.6%
사무직	32 14.9%	20 15.2%	37 12.5%	24 18.6%	19 17.1%	24 12.8%	39 14.8%	50 16.5%	13 14.9%	2 6.9%	10 18.5%	12 18.5%	282 15.1%
숙련 기술직	6 2.8%	0 .0%	9 3.0%	5 3.9%	2 1.8%	6 3.2%	4 1.5%	5 1.7%	0 .0%	0 .0%	1 1.9%	0 .0%	38 2.0%
판매·서비스업	60 27.9%	37 28.0%	98 33.1%	30 23.3%	20 18.0%	47 25.1%	73 27.8%	81 26.7%	9 10.3%	4 13.8%	16 29.6%	16 24.6%	491 26.2%
소규모 농·축·수산업	6 2.8%	11 8.3%	12 4.1%	4 3.1%	8 7.2%	13 7.0%	14 5.3%	18 5.9%	3 3.4%	0 .0%	0 .0%	1 1.5%	90 4.8%
비숙련 노동	4 1.9%	1 .8%	5 1.7%	1 .8%	0 .0%	5 2.7%	7 2.7%	5 1.7%	2 2.3%	1 3.4%	2 3.7%	2 3.1%	35 1.9%
전업 주부	51 23.7%	32 24.2%	70 23.6%	27 20.9%	32 28.8%	49 26.2%	66 25.1%	69 22.8%	30 34.5%	10 34.5%	6 11.1%	9 13.8%	451 24.1%
정년 퇴직	0 .0%	0 .0%	0 .0%	0 .0%	0 .0%	1 .5%	0 .0%	0 .0%	0 .0%	0 .0%	0 .0%	0 .0%	1 .1%
무직·실직자	6 2.8%	2 1.5%	4 1.4%	4 3.1%	0 .0%	6 3.2%	4 1.5%	3 1.0%	2 2.3%	0 .0%	2 3.7%	0 .0%	33 1.8%
기타	18 8.4%	7 5.3%	17 5.7%	8 6.2%	14 12.6%	10 5.3%	18 6.8%	21 6.9%	4 4.6%	3 10.3%	4 7.4%	5 7.7%	129 6.9%
전체	215 100.0%	132 100.0%	296 100.0%	129 100.0%	111 100.0%	187 100.0%	263 100.0%	303 100.0%	87 100.0%	29 100.0%	54 100.0%	65 100.0%	1871 100.0%

어머니의 직업을 살펴보면 판매·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어머니의 비율이 26.2%로 가장 높았으며 전업 주부가 24.1%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전문직에 종사하는 어머니의 비율이 타 대학에 비해 수의대가 높게 나타났으며 교직의 경우 교육대가 높게 나타났다.

- 성별

성별에 따른 부모님 직업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23, 표 24와 같다.

표 23. 성별 아버지 직업

		아버지 직업												전체
		전문직	경영 관리직	교직	사무직	숙련 기술직	판매·서 비스업	소규모 농·축 수산업	비숙련 노동	전업 주부	정년 퇴직	무직·실 직자	기타	
성별	남자	86 9.6%	100 11.2%	40 4.5%	223 24.9%	129 14.4%	145 16.2%	72 8.0%	22 2.5%	0 0.0%	11 1.2%	21 2.3%	46 5.1%	895 100.0%
	여자	75 7.9%	95 10.0%	27 2.9%	252 26.6%	121 12.8%	192 20.3%	95 10.0%	20 2.1%	1 0.1%	6 0.6%	11 1.2%	51 5.4%	946 100.0%
전체		161 8.7%	195 10.6%	67 3.6%	475 25.8%	250 13.6%	337 18.3%	167 9.1%	42 2.3%	1 0.1%	17 0.9%	32 1.7%	97 5.3%	184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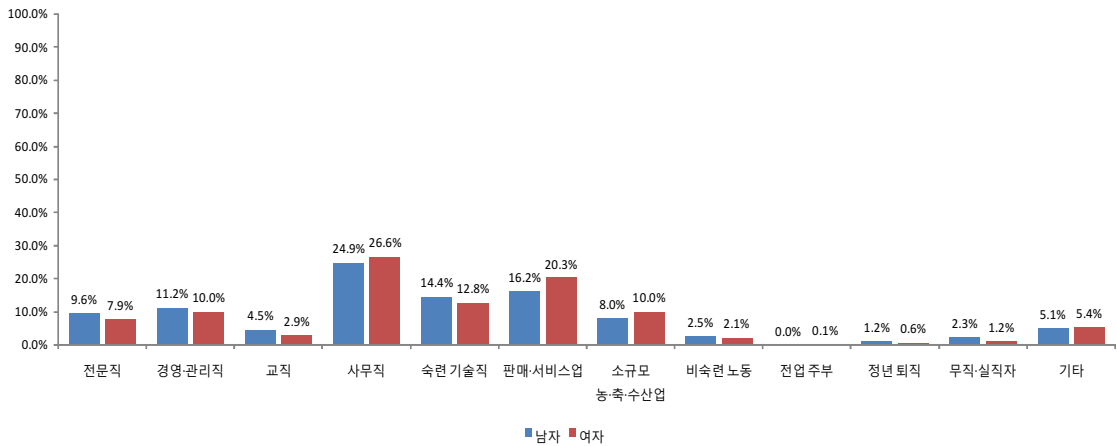


그림 14. 성별 아버지 직업

성별에 따른 아버지의 직업을 살펴보면 남학생·여학생 모두 사무직에 종사하는 아버지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판매·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아버지의 비율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표 24. 성별 어머니 직업

		어머니 직업											전체	
		전문직	경영 관리직	교직	사무직	숙련 기술직	판매서 비스업	소규모 농·축 수산업	비숙련 노동	전업 주부	정년 퇴직	무직실 직자	기타	전체
성별	남자	42 4.6%	27 3.0%	96 10.6%	118 13.0%	18 2.0%	239 26.4%	40 4.4%	17 1.9%	236 26.0%	1 0.1%	13 1.4%	59 6.5%	906 100.0%
구분	여자	34 3.5%	20 2.1%	102 10.6%	164 17.0%	20 2.1%	252 26.1%	50 5.2%	18 1.9%	215 22.3%	0 0.0%	20 2.1%	70 7.3%	965 100.0%
전체		76 4.1%	47 2.5%	198 10.6%	282 15.1%	38 2.0%	491 26.2%	90 4.8%	35 1.9%	451 24.1%	1 0.1%	33 1.8%	129 6.9%	187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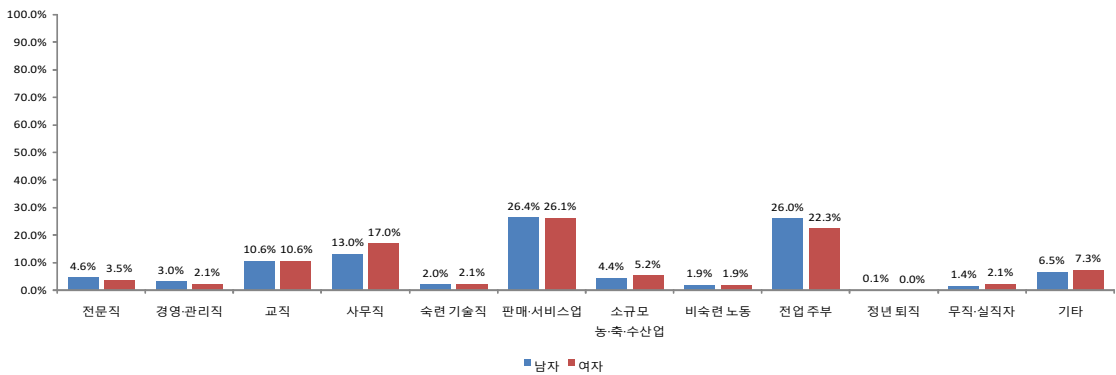


그림 15. 성별 어머니 직업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직업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남학생의 어머니가 전업 주부인 경우가 조금 높게 나타났으며 사무직에 종사하는 어머니를 학생의 경우 여학생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 출신지역별

출신지역에 따른 부모님 직업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25, 표 26과 같다.

표 25. 출신지역별 아버지 직업

		아버지 직업											전체	
		전문직	경영 관리직	교직	사무직	숙련 기술직	판매서 비스업	소규모 농·축 수산업	비숙련 노동	전업 주부	정년 퇴직	무직 실직자	기타	전체
지역	도내	111 7.5%	129 8.7%	50 3.4%	371 25.1%	225 15.2%	280 19.0%	158 10.7%	38 2.6%	1 .1%	13 .9%	23 1.6%	78 5.3%	1477 100.0%
구분	도외	50 13.7%	66 18.1%	17 4.7%	104 28.6%	25 6.9%	57 15.7%	9 2.5%	4 1.1%	0 .0%	4 1.1%	9 2.5%	19 5.2%	364 100.0%
전체		161 8.7%	195 10.6%	67 3.6%	475 25.8%	250 13.6%	337 18.3%	167 9.1%	42 2.3%	1 .1%	17 .9%	32 1.7%	97 5.3%	184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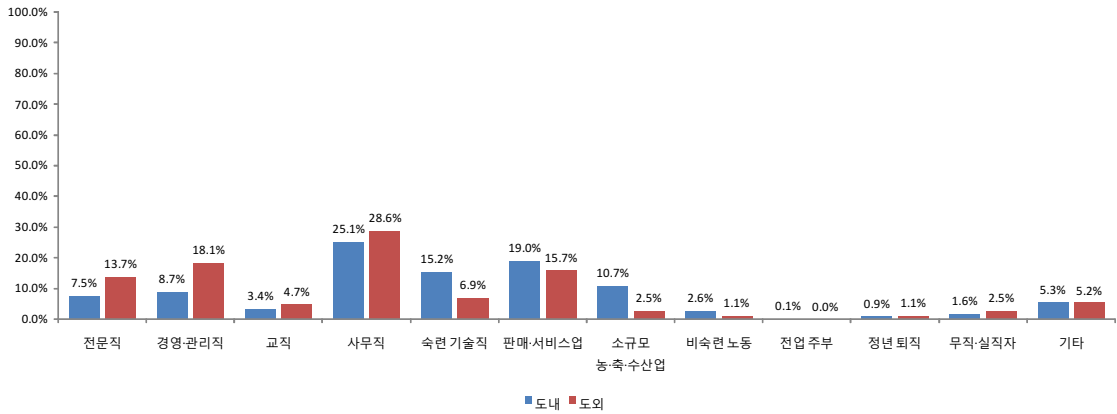


그림 16. 출신지역별 아버지 직업

출신 지역에 따라 아버지의 직업을 살펴보면 전문직, 경영·관리직, 교직, 사무직의 경우 도외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외의 직종에 근무하는 경우는 도내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26. 출신지역별 어머니 직업

		어머니 직업												전체
지역	구분	전문직	경영·관리직	교직	사무직	숙련 기술직	판매·서비스업	소규모 농·축·수산업	비숙련 노동	전업주부	정년 퇴직	무직·실직자	기타	
지역	도내	56 3.7%	39 2.6%	144 9.6%	233 15.5%	33 2.2%	424 28.2%	88 5.9%	29 1.9%	328 21.9%	1 .1%	27 1.8%	99 6.6%	1501 100.0%
구분	도외	20 5.4%	8 2.2%	54 14.6%	49 13.2%	5 1.4%	67 18.1%	2 .5%	6 1.6%	123 33.2%	0 .0%	6 1.6%	30 8.1%	370 100.0%
전체		76 4.1%	47 2.5%	198 10.6%	282 15.1%	38 2.0%	491 26.2%	90 4.8%	35 1.9%	451 24.1%	1 .1%	33 1.8%	129 6.9%	187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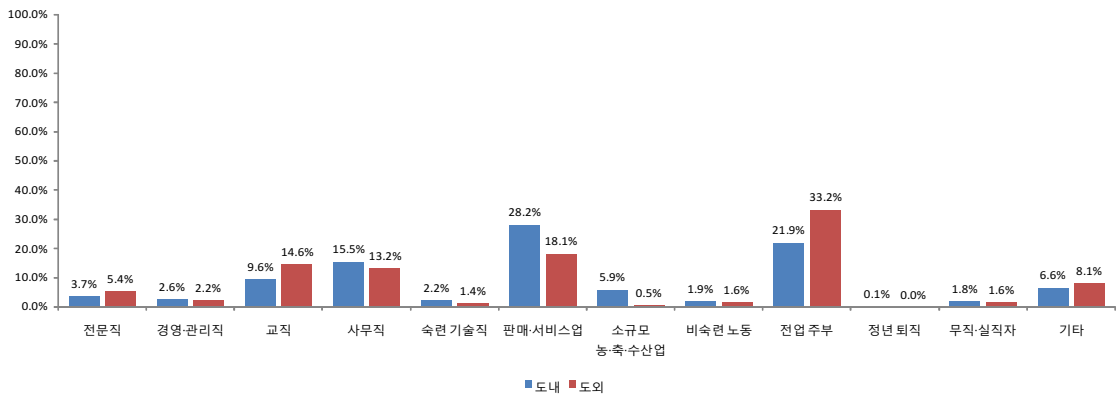


그림 17. 출신지역별 어머니 직업

출신지역에 따른 어머니의 직업을 살펴보면 전문직, 교직, 전업주부에서 도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외의 직업은 도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도내의 어머니들이 판매·서비스업에 많이 종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6) 가정 분위기

- 단과대학별

단과대학에 따른 가정 분위기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27과 같다.

표 27. 단과대학별 가정 분위기

		가정 분위기					전체
		매우 화목한 편이다	비교적 화목한 편이다	보통이다	비교적 화목하지 않은 편이다	매우 화목하지 않은 편이다	
대 학 구 분	인문대	83 36.7%	83 36.7%	47 20.8%	11 4.9%	2 .9%	226 100.0%
	사회대	43 31.6%	57 41.9%	30 22.1%	3 2.2%	3 2.2%	136 100.0%
	경상대	91 30.3%	133 44.3%	58 19.3%	17 5.7%	1 .3%	300 100.0%
	사범대	35 26.7%	58 44.3%	29 22.1%	6 4.6%	3 2.3%	131 100.0%
	생명대	41 36.3%	51 45.1%	17 15.0%	2 1.8%	2 1.8%	113 100.0%
	해양대	66 34.4%	74 38.5%	47 24.5%	3 1.6%	2 1.0%	192 100.0%
	자연대	80 29.6%	119 44.1%	56 20.7%	13 4.8%	2 .7%	270 100.0%
	공과대	97 31.5%	131 42.5%	64 20.8%	11 3.6%	5 1.6%	308 100.0%
	교육대	35 40.2%	33 37.9%	16 18.4%	3 3.4%	0 .0%	87 100.0%
	수의대	13 44.8%	12 41.4%	3 10.3%	0 .0%	1 3.4%	29 100.0%
	간호대	14 25.9%	28 51.9%	7 13.0%	4 7.4%	1 1.9%	54 100.0%
	예술대	26 38.8%	21 31.3%	16 23.9%	1 1.5%	3 4.5%	67 100.0%
	전체	624 32.6%	800 41.8%	390 20.4%	74 3.9%	25 1.3%	1913 100.0%

응답자 가정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화목하다고 느끼는 학생의 비율이 74.4%로 나타났으며 보통 20.4%, 화목하지 않다가 5.2%로 나타나 대체로 가정이 화목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대학별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매우 화목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은 대학은 수의대이고 화목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간호대가 높게 나타났다. 화목하지 않다고 느끼는 비율은 간호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성별

성별에 따른 가정 분위기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28과 같다.

표 28. 성별 가정 분위기

	성별구분		전체	
	남자	여자		
가정 분위기	매우 화목한 편이다	317 34.2%	307 31.2%	624 32.6%
	비교적 화목한 편이다	364 39.2%	436 44.3%	800 41.8%
	보통이다	195 21.0%	195 19.8%	390 20.4%
	비교적 화목하지 않은 편이다	35 3.8%	39 4.0%	74 3.9%
	매우 화목하지 않은 편이다	17 1.8%	8 .8%	25 1.3%
전체	928 100.0%	985 100.0%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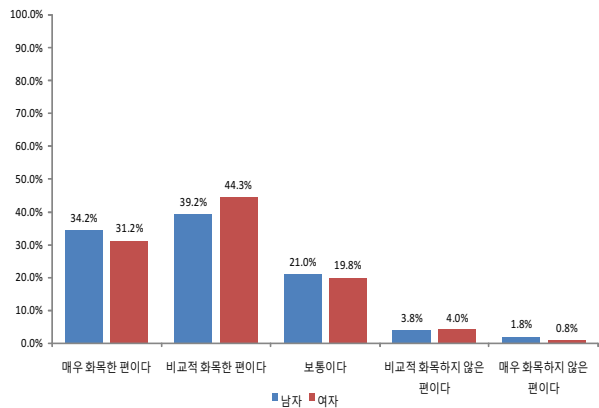


그림 18. 성별 가정 분위기

성별에 따른 가정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여학생들(75.5%)이 남학생(73.4%)보다 가정이 화목하다고 느끼고 있다.

- 출신지역별

출신지역에 따른 가정 분위기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29와 같다.

표 29. 출신지역별 가정 분위기

	지역구분		전체	
	도내	도외		
가정 분위 기	매우 화목한 편이다	460 29.8%	164 44.2%	624 32.6%
	비교적 화목한 편이다	668 43.3%	132 35.6%	800 41.8%
	보통이다	334 21.7%	56 15.1%	390 20.4%
	비교적 화목하지 않은 편이다	58 3.8%	16 4.3%	74 3.9%
	매우 화목하지 않은 편이다	22 1.4%	3 .8%	25 1.3%
	전체	1542 100.0%	371 100.0%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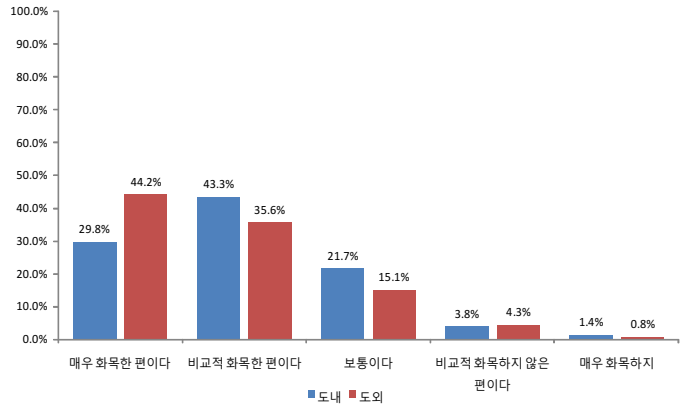


그림 19. 출신지역별 가정 분위기

출신지역에 따른 가정 분위기를 살펴보면 도외(79.8%) 출신 학생들이 도내(73.2%) 출신 학생들보다 가정이 화목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7) 부모님에 대한 느낌

- 단과대학별

단과대학에 따른 부모님에 대한 느낌을 교차분석한 결과는 표 30, 표 31와 같다.

표 30. 단과대학별 아버지에 대한 느낌

	아버지에 대한 느낌					전체
	매우 편안하다	다소 편안하다	그저 그렇다	다소 편안하지 않다	매우 편안하지 않다	
인문대	81 36.8%	69 31.4%	42 19.1%	20 9.1%	8 3.6%	220 100.0%
사회대	48 35.6%	48 35.6%	27 20.0%	10 7.4%	2 1.5%	135 100.0%
경상대	91 30.7%	110 37.2%	62 20.9%	22 7.4%	11 3.7%	296 100.0%
사범대	36 28.3%	50 39.4%	21 16.5%	11 8.7%	9 7.1%	127 100.0%
생명대	43 38.4%	45 40.2%	15 13.4%	7 6.3%	2 1.8%	112 100.0%
해양대	59 31.4%	70 37.2%	46 24.5%	8 4.3%	5 2.7%	188 100.0%
자연대	94 35.3%	84 31.6%	61 22.9%	18 6.8%	9 3.4%	266 100.0%
공과대	85 27.9%	114 37.4%	61 20.0%	32 10.5%	13 4.3%	305 100.0%
교육대	35 40.7%	28 32.6%	13 15.1%	9 10.5%	1 1.2%	86 100.0%
수의대	13 44.8%	9 31.0%	6 20.7%	1 3.4%	0 .0%	29 100.0%
간호대	16 30.8%	18 34.6%	10 19.2%	5 9.6%	3 5.8%	52 100.0%
예술대	27 40.3%	19 28.4%	10 14.9%	6 9.0%	5 7.5%	67 100.0%
전체	628 33.4%	664 35.3%	374 19.9%	149 7.9%	68 3.6%	1883 100.0%

아버지에 대한 느낌에 대한 물음에 아버지가 편안하다고 느끼는 학생은 68.7%로 나타났으며 편안하지 않다고 느끼는 학생은 11.5%로 나타나 대체로 학생들이 아버지를 편안한 대상으로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과대학별로 아버지에 대한 느낌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교육대 학생들이 타 대학의 학생들보다 아버지가 편안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 단과대학별 어머니에 대한 느낌

		어머니에 대한 느낌					전체
		매우 편안하다	다소 편안하다	그저 그렇다	다소 편안하지 않다	매우 편안하지 않다	
대 학 구 분	인문대	123 56.7%	68 31.3%	20 9.2%	5 2.3%	1 .5%	217 100.0%
	사회대	70 52.2%	43 32.1%	18 13.4%	1 .7%	2 1.5%	134 100.0%
	경상대	171 57.6%	93 31.3%	26 8.8%	7 2.4%	0 .0%	297 100.0%
	사범대	61 46.6%	57 43.5%	13 9.9%	0 .0%	0 .0%	131 100.0%
	생명대	67 60.4%	37 33.3%	5 4.5%	2 1.8%	0 .0%	111 100.0%
	해양대	105 55.0%	65 34.0%	17 8.9%	3 1.6%	1 .5%	191 100.0%
	자연대	163 60.8%	76 28.4%	26 9.7%	3 1.1%	0 .0%	268 100.0%
	공과대	155 51.2%	119 39.3%	24 7.9%	4 1.3%	1 .3%	303 100.0%
	교육대	50 57.5%	26 29.9%	9 10.3%	2 2.3%	0 .0%	87 100.0%
	수의대	18 62.1%	9 31.0%	2 6.9%	0 .0%	0 .0%	29 100.0%
	간호대	34 63.0%	12 22.2%	6 11.1%	0 .0%	2 3.7%	54 100.0%
	예술대	32 48.5%	23 34.8%	9 13.6%	2 3.0%	0 .0%	66 100.0%
	전체	1049 55.6%	628 33.3%	175 9.3%	29 1.5%	7 .4%	1888 100.0%

어머니에 대한 느낌에 대한 질문에는 편안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88.9%로 나타났으며 1.9%의 학생이 편안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는다.

- 성별

성별에 따른 부모님에 대한 느낌을 교차분석한 결과는 표 32, 표 33과 같다.

표 32. 성별 아버지에 대한 느낌

		성별구분		전체
		남자	여자	
아버지에 대한 느낌	매우 편안하다	275 30.1%	353 36.4%	628 33.4%
	다소 편안하다	352 38.5%	312 32.2%	664 35.3%
	그저 그렇다	184 20.1%	190 19.6%	374 19.9%
	다소 편안하지 않다	67 7.3%	82 8.5%	149 7.9%
	매우 편안하지 않다	36 3.9%	32 3.3%	68 3.6%
전체		914 100.0%	969 100.0%	188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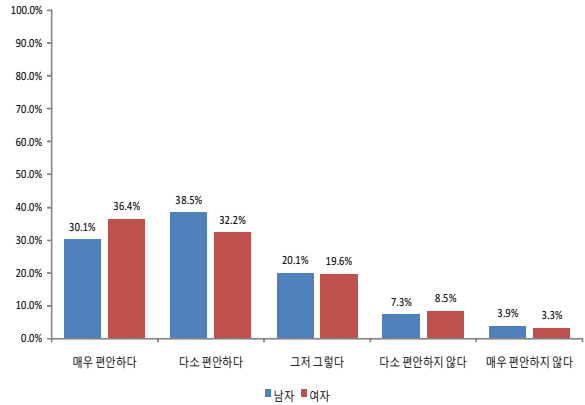


그림 20. 성별 아버지에 대한 느낌

성별에 따른 아버지에 대한 느낌을 살펴보면 남학생(69.6%)보다 여학생(68.6%)이 아버지를 조금 더 편안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3. 성별 어머니에 대한 느낌

		성별구분		전체
		남자	여자	
어머니에 대한 느낌	매우 편안하다	470 51.3%	579 59.6%	1049 55.6%
	다소 편안하다	343 37.4%	285 29.3%	628 33.3%
	그저 그렇다	87 9.5%	88 9.1%	175 9.3%
	다소 편안하지 않다	13 1.4%	16 1.6%	29 1.5%
	매우 편안하지 않다	3 .3%	4 .4%	7 .4%
전체		916 100.0%	972 100.0%	188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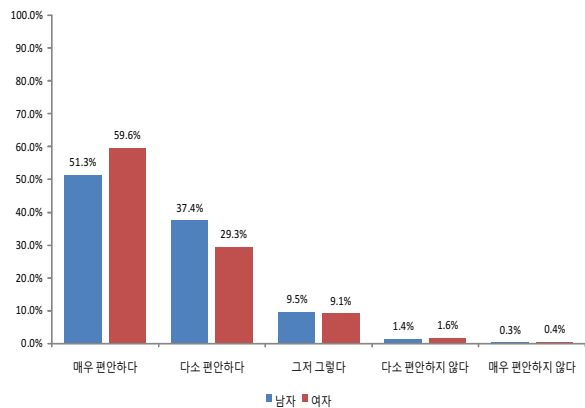


그림 21. 성별 어머니에 대한 느낌

성별에 따른 어머니에 대한 느낌을 살펴보면 여학생과 남학생이 어머니를 편안하게 느끼는 비율이 각각 88.9%, 88.7%로 나타나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출신지역별

출신지역에 따른 부모님에 대한 느낌을 교차분석한 결과는 표 34, 표 35와 같다.

표 34. 출신지역별 아버지에 대한 느낌

		지역구분		전체
		도내	도외	
아버지에 대한 느낌	매우 편안하다	475 31.4%	153 41.5%	628 33.4%
	다소 편안하다	540 35.7%	124 33.6%	664 35.3%
	그저 그렇다	319 21.1%	55 14.9%	374 19.9%
	다소 편안하지 않다	125 8.3%	24 6.5%	149 7.9%
	매우 편안하지 않다	55 3.6%	13 3.5%	68 3.6%
전체		1514 100.0%	369 100.0%	188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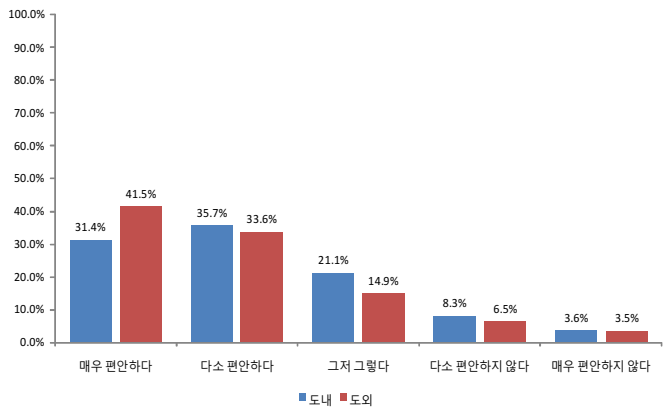


그림 22. 출신지역별 아버지에 대한 느낌

출신지역에 따른 아버지에 대한 느낌을 살펴보면 도외(75.1%) 출신의 학생들이 도내(68.1%) 출신의 학생들보다 아버지를 편안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5. 출신지역별 어머니에 대한 느낌

		지역구분		전체
		도내	도외	
어머니에 대한 느낌	매우 편안하다	822 54.2%	227 61.4%	1049 55.6%
	다소 편안하다	525 34.6%	103 27.8%	628 33.3%
	그저 그렇다	146 9.6%	29 7.8%	175 9.3%
	다소 편안하지 않다	18 1.2%	11 3.0%	29 1.5%
	매우 편안하지 않다	7 .5%	0 .0%	7 .4%
전체		1518 100.0%	370 100.0%	188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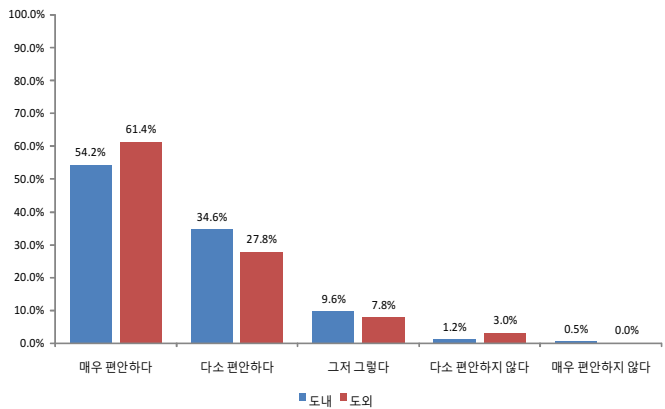


그림 23. 출신지역별 어머니에 대한 느낌

출신지역에 따른 어머니에 대한 느낌을 살펴보면 도내 출신 학생들과 도외 출신 학생들이 어머니를 편안하게 느끼는 비율이 각각 88.8%, 89.2%로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8) 학생 본인에 대한 부모님의 관심도

- 단과대학별

단과대학에 따른 학생 본인에 대한 부모님의 관심도를 교차분석한 결과는 표 36, 표 37과 같다.

표 36. 단과대학별 학생 본인에 대한 아버지의 관심도

	학생 본인에 대한 아버지의 관심도					전체
	매우 관심이 많은 편	다소 관심이 많은 편	그저 그렇다	다소 관심이 적은 편	매우 관심이 적은 편	
인문대	94 42.7%	69 31.4%	35 15.9%	13 5.9%	9 4.1%	220 100.0%
사회대	51 37.8%	57 42.2%	21 15.6%	3 2.2%	3 2.2%	135 100.0%
경상대	115 39.1%	107 36.4%	47 16.0%	13 4.4%	12 4.1%	294 100.0%
사범대	58 46.4%	44 35.2%	16 12.8%	4 3.2%	3 2.4%	125 100.0%
대 생명대	56 50.0%	42 37.5%	10 8.9%	1 .9%	3 2.7%	112 100.0%
학 해양대	73 38.8%	71 37.8%	31 16.5%	7 3.7%	6 3.2%	188 100.0%
구 자연대	106 40.3%	98 37.3%	50 19.0%	6 2.3%	3 1.1%	263 100.0%
분 공과대	114 37.4%	115 37.7%	55 18.0%	15 4.9%	6 2.0%	305 100.0%
교육대	47 55.3%	29 34.1%	6 7.1%	2 2.4%	1 1.2%	85 100.0%
수의대	18 62.1%	9 31.0%	2 6.9%	0 .0%	0 .0%	29 100.0%
간호대	21 40.4%	19 36.5%	10 19.2%	2 3.8%	0 .0%	52 100.0%
예술대	38 57.6%	14 21.2%	10 15.2%	3 4.5%	1 1.5%	66 100.0%
전체	791 42.2%	674 36.0%	293 15.6%	69 3.7%	47 2.5%	1874 100.0%

학생 본인에 대한 아버지의 관심도에 대한 물음에 관심이 많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86.2% 관심이 적은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6.2%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 보면 수의대 학생들이 아버지의 관심도가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9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7. 단과대학별 학생 본인에 대한 어머니의 관심도

	학생 본인에 대한 어머니의 관심도					전체	
	매우 관심이 많은 편	다소 관심이 많은 편	그저 그렇다	다소 관심이 적은 편	매우 관심이 적은 편		
인문대	127 58.5%	61 28.1%	24 11.1%	4 1.8%	1 .5%	217 100.0%	
사회대	72 54.1%	44 33.1%	14 10.5%	1 .8%	2 1.5%	133 100.0%	
경상대	159 53.5%	103 34.7%	26 8.8%	4 1.3%	5 1.7%	297 100.0%	
사범대	73 55.7%	45 34.4%	13 9.9%	0 .0%	0 .0%	131 100.0%	
대	생명대	66 59.5%	35 31.5%	7 6.3%	2 1.8%	1 .9%	111 100.0%
	해양대	99 51.8%	66 34.6%	19 9.9%	4 2.1%	3 1.6%	191 100.0%
구	자연대	142 53.8%	87 33.0%	30 11.4%	2 .8%	3 1.1%	264 100.0%
	공과대	165 54.6%	103 34.1%	29 9.6%	3 1.0%	2 .7%	302 100.0%
분	교육대	57 66.3%	25 29.1%	4 4.7%	0 .0%	0 .0%	86 100.0%
	수의대	21 72.4%	6 20.7%	2 6.9%	0 .0%	0 .0%	29 100.0%
	간호대	30 55.6%	18 33.3%	5 9.3%	1 1.9%	0 .0%	54 100.0%
	예술대	41 62.1%	17 25.8%	5 7.6%	3 4.5%	0 .0%	66 100.0%
전체	1052 55.9%	610 32.4%	178 9.5%	24 1.3%	17 .9%	1881 100.0%	

어머니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질문에 어머니가 관심이 많은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88.3%로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관심이 적은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2.2%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교육대가 어머니의 관심이 많은 편이라고 가장 많은 학생이 응답했다.

- 성별

성별에 따른 학생 본인에 대한 부모님의 관심도를 교차분석한 결과는 표 38, 표 39와 같다.

표 38. 성별 학생 본인에 대한 아버지의 관심도

	성별구분		전체	
	남자	여자		
아버지의 관심도	매우 관심이 많은 편	389 42.7%	402 41.8%	791 42.2%
	다소 관심이 많은 편	327 35.9%	347 36.1%	674 36.0%
	그저 그렇다	137 15.0%	156 16.2%	293 15.6%
	다소 관심이 적은 편	31 3.4%	38 4.0%	69 3.7%
	매우 관심이 적은 편	28 3.1%	19 2.0%	47 2.5%
전체	912 100.0%	962 100.0%	187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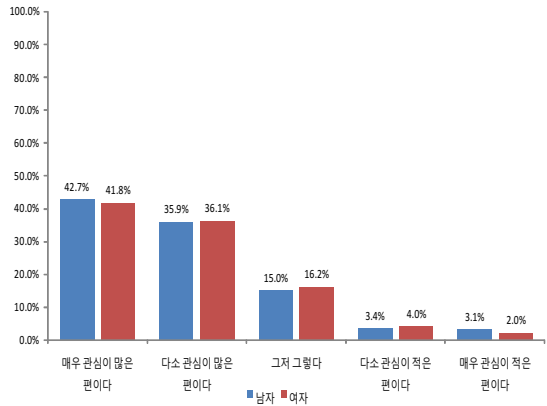


그림 24. 성별 학생 본인에 대한 아버지의 관심도

성별에 따른 아버지의 관심도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관심이 많은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에서 남학생(88.6%)이 여학생(77.9%)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9. 성별 학생 본인에 대한 어머니의 관심도

	성별구분		전체	
	남자	여자		
어머니의 관심도	매우 관심이 많은 편	513 56.3%	539 55.6%	1052 55.9%
	다소 관심이 많은 편	290 31.8%	320 33.0%	610 32.4%
	그저 그렇다	85 9.3%	93 9.6%	178 9.5%
	다소 관심이 적은 편	10 1.1%	14 1.4%	24 1.3%
	매우 관심이 적은 편	13 1.4%	4 .4%	17 .9%
전체	911 100.0%	970 100.0%	188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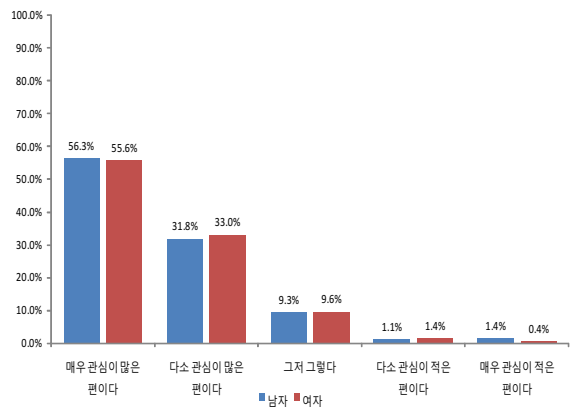


그림 25. 성별 학생 본인에 대한 어머니의 관심도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관심도를 살펴보면 본인에 대한 어머니의 관심도가 많은 편이라고 응답 학생의 비율이 남녀에서 각각 88.1%, 88.6%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다.

- 출신지역별

출신지역에 따른 학생 본인에 대한 부모님의 관심도를 교차분석한 결과는 표 40, 표 41과 같다.

표 40. 출신지역별 학생 본인에 대한 아버지의 관심도

		지역구분		전체
		도내	도외	
아버지의 관심도	매우 관심이 많은 편	575 38.2%	216 58.7%	791 42.2%
	다소 관심이 많은 편	569 37.8%	105 28.5%	674 36.0%
	그저 그렇다	260 17.3%	33 9.0%	293 15.6%
	다소 관심이 적은 편	62 4.1%	7 1.9%	69 3.7%
	매우 관심이 적은 편	40 2.7%	7 1.9%	47 2.5%
전체		1506 100.0%	368 100.0%	187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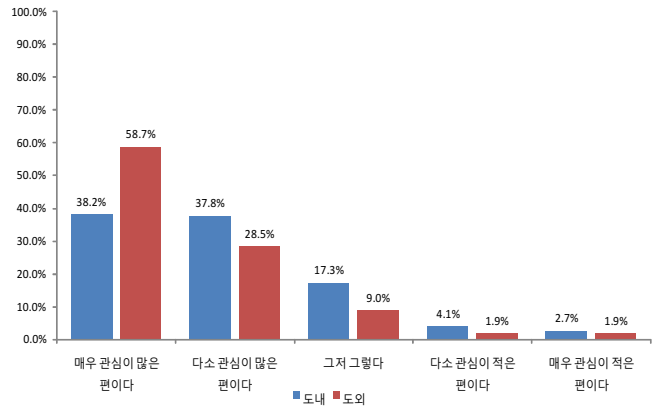


그림 26. 출신지역별 학생 본인에 대한 아버지의 관심도

출신지역별 아버지의 관심도를 살펴보면 도외(58.7%) 지역 출신의 학생들이 도내(38.2%) 지역 출신의 학생들보다 아버지가 자신에 대하여 매우 관심이 많다고 응답하였다.

표 41. 출신지역별 학생 본인에 대한 어머니의 관심도

		지역구분		전체
		도내	도외	
어머니의 관심도	매우 관심이 많은 편	793 52.4%	259 70.6%	1052 55.9%
	다소 관심이 많은 편	535 35.3%	75 20.4%	610 32.4%
	그저 그렇다	152 10.0%	26 7.1%	178 9.5%
	다소 관심이 적은 편	20 1.3%	4 1.1%	24 1.3%
	매우 관심이 적은 편	14 .9%	3 .8%	17 .9%
전체		1514 100.0%	367 100.0%	188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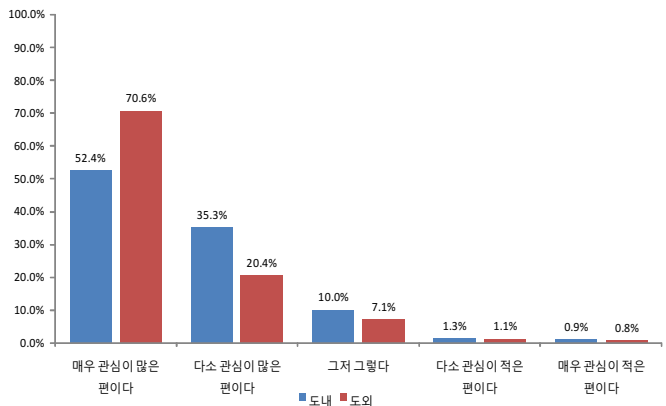


그림 27. 출신지역별 학생 본인에 대한 어머니의 관심도

출신지역별 어머니의 관심도를 살펴보면 어머니가 매우 관심이 많은 편이라가 응답한 도의 출신 학생의 비율이 70.6%로 도내 출신 학생들의 응답 비율 52.4%보다 높게 나타났다.

9)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자

- 단과대학별

단과대학에 따른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자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42와 같다.

표 42. 단과대학별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자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자						전체
	부모	조부모	본인	형제	친척	기타	
인문대	199 88.1%	0 .0%	17 7.5%	1 .4%	1 .4%	8 3.5%	226 100.0%
사회대	108 79.4%	2 1.5%	20 14.7%	3 2.2%	0 .0%	3 2.2%	136 100.0%
경상대	244 81.3%	5 1.7%	42 14.0%	0 .0%	2 .7%	7 2.3%	300 100.0%
사범대	119 90.8%	1 .8%	9 6.9%	0 .0%	0 .0%	2 1.5%	131 100.0%
대 생명대	99 87.6%	0 .0%	10 8.8%	1 .9%	0 .0%	3 2.7%	113 100.0%
학 해양대	164 85.4%	4 2.1%	18 9.4%	0 .0%	0 .0%	6 3.1%	192 100.0%
구 자연대	233 86.3%	4 1.5%	24 8.9%	1 .4%	2 .7%	6 2.2%	270 100.0%
분 공과대	264 85.7%	1 .3%	34 11.0%	0 .0%	2 .6%	7 2.3%	308 100.0%
교육대	85 97.7%	0 .0%	2 2.3%	0 .0%	0 .0%	0 .0%	87 100.0%
수의대	27 93.1%	0 .0%	2 6.9%	0 .0%	0 .0%	0 .0%	29 100.0%
간호대	45 83.3%	0 .0%	5 9.3%	2 3.7%	0 .0%	2 3.7%	54 100.0%
예술대	61 91.0%	3 4.5%	3 4.5%	0 .0%	0 .0%	0 .0%	67 100.0%
전체	1648 86.1%	20 1.0%	186 9.7%	8 .4%	7 .4%	44 2.3%	1913 100.0%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자에 대한 질문에 86.1% 학생이 부모가 지원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9.7%의 학생이 본인 스스로 등록금 및 생활비를 부담한다고 응답하였다. 단과대학

별로 살펴보면 수의대, 예술대, 사범대의 90% 학생들이 등록금 및 생활비를 부모님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대, 경상대, 공과대 학생들의 10%가 본인 스스로 등록금 및 생활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별

성별에 따른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자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43과 같다.

표 43. 출신지역별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자

		성별구분		전체
		남자	여자	
등록금	부모	785 84.6%	863 87.6%	1648 86.1%
	조부모	15 1.6%	5 .5%	20 1.0%
및 생활비	본인	91 9.8%	95 9.6%	186 9.7%
	형제	2 .2%	6 .6%	8 .4%
부담자	친척	7 .8%	0 .0%	7 .4%
	기타	28 3.0%	16 1.6%	44 2.3%
전체		928 100.0%	985 100.0%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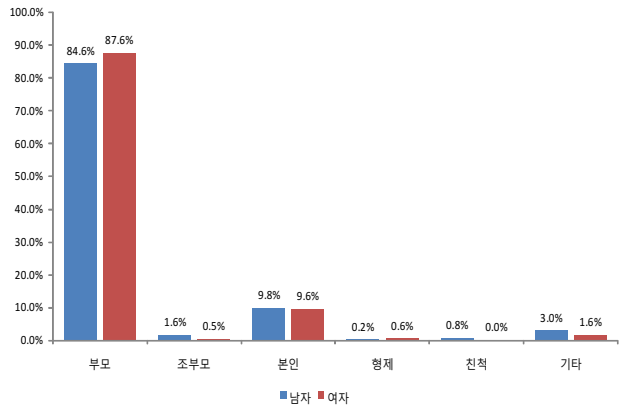


그림 28. 성별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자

성별에 따른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자를 살펴보면 남녀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자가 조부모인 경우는 남자가 1.6%로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 출신지역별

출신지역에 따른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자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44와 같다.

표 44. 출신지역별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자

	지역구분		전체	
	도내	도외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자	부모	1314 85.2%	334 90.0%	1648 86.1%
	조부모	18 1.2%	2 .5%	20 1.0%
	본인	160 10.4%	26 7.0%	186 9.7%
	형제	7 .5%	1 .3%	8 .4%
	친척	7 .5%	0 .0%	7 .4%
	기타	36 2.3%	8 2.2%	44 2.3%
	전체	1542 100.0%	371 100.0%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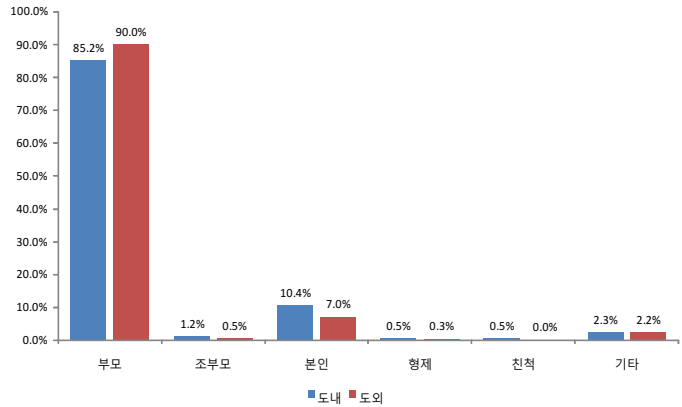


그림 29. 출신지역별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자

출신지역에 따른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자를 살펴보면 도내(85.2%)보다 도외(90.0%) 출신의 학생들이 부모님이 부담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도내의 학생들 중 10.4%가 학생 스스로 등록금 및 생활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군 입대에 대한 계획

- 단과대학별

단과대학에 따른 군 입대 계획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45와 같다.

표 45. 단과대학별 군 입대에 대한 계획

	군 입대에 대한 계획										전체
	1학년 1학기 후	1학년 2학기 후	2학년 1학기 후	2학년 2학기 후	3학년 1학기 후	3학년 2학기 후	4학년 1학기 후	4학년 2학기 후	졸업이후 (ROTC포함)	기타	
인문대	18 21.4%	15 17.9%	30 35.7%	6 7.1%	0 .0%	1 1.2%	0 .0%	0 .0%	11 13.1%	3 3.6%	84 100.0%
사회대	17 24.6%	29 42.0%	15 21.7%	4 5.8%	1 1.4%	0 .0%	0 .0%	0 .0%	3 4.3%	0 .0%	69 100.0%
경상대	35 28.0%	32 25.6%	43 34.4%	3 2.4%	0 .0%	0 .0%	1 .8%	0 .0%	8 6.4%	3 2.4%	125 100.0%
사범대	14 22.6%	24 38.7%	13 21.0%	1 1.6%	0 .0%	1 1.6%	0 .0%	0 .0%	6 9.7%	3 4.8%	62 100.0%
생명대	13 23.6%	20 36.4%	13 23.6%	3 5.5%	0 .0%	0 .0%	0 .0%	2 3.6%	4 7.3%	0 .0%	55 100.0%
해양대	32 28.6%	22 19.6%	29 25.9%	8 7.1%	1 .9%	0 .0%	2 1.8%	0 .0%	14 12.5%	4 3.6%	112 100.0%
자연대	23 19.3%	28 23.5%	40 33.6%	1 .8%	2 1.7%	0 .0%	2 1.7%	1 .8%	18 15.1%	4 3.4%	119 100.0%
공과대	72 32.1%	82 36.6%	51 22.8%	4 1.8%	1 .4%	0 .0%	0 .0%	1 .4%	11 4.9%	2 .9%	224 100.0%
교육대	1 3.4%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5 86.2%	3 10.3%	29 100.0%
수의대	0 .0%	0 .0%	0 .0%	2 10.0%	1 5.0%	0 .0%	0 .0%	1 5.0%	15 75.0%	1 5.0%	20 100.0%
간호대	3 30.0%	2 20.0%	2 20.0%	1 10.0%	0 .0%	0 .0%	0 .0%	0 .0%	1 10.0%	1 10.0%	10 100.0%
예술대	4 21.1%	10 52.6%	3 15.8%	1 5.3%	0 .0%	0 .0%	0 .0%	0 .0%	0 .0%	1 5.3%	19 100.0%
전체	232 25.0%	264 28.4%	239 25.8%	34 3.7%	6 .6%	2 .2%	5 .5%	5 .5%	116 12.5%	25 2.7%	928 100.0%

군 입대에 대한 계획을 살펴보면 1학년을 마치고 간다는 학생이 2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학년 1학기 후 간다는 학생이 25.8%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졸업 이후 또는 ROTC로 입대를 한다는 학생이 12.5%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교육대 학생들이 86.2%의 학생들이 졸업 이후에 군에 입대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수의대의 경우에도 75.0%의 학생들이 졸업 이후에 군에 입대한다고 응답하였다.

- 출신지역별

출신지역에 따른 군 입대 계획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46과 같다.

표 46. 출신지역별 군 입대에 대한 계획

		군 입대에 대한 계획										전체
지역	구분	1학년 1학기 후	1학년 2학기 후	2학년 1학기 후	2학년 2학기 후	3학년 1학기 후	3학년 2학기 후	4학년 1학기 후	4학년 2학기 후	졸업이후 (ROTC 포함)	기타	전체
지역	도내	206 28.1%	233 31.8%	197 26.9%	23 3.1%	2 .3%	1 .1%	4 .5%	3 .4%	54 7.4%	10 1.4%	733 100.0%
구분	도외	26 13.3%	31 15.9%	42 21.5%	11 5.6%	4 2.1%	1 .5%	1 .5%	2 1.0%	62 31.8%	15 7.7%	195 100.0%
전체		232 25.0%	264 28.4%	239 25.8%	34 3.7%	6 .6%	2 .2%	5 .5%	5 .5%	116 12.5%	25 2.7%	92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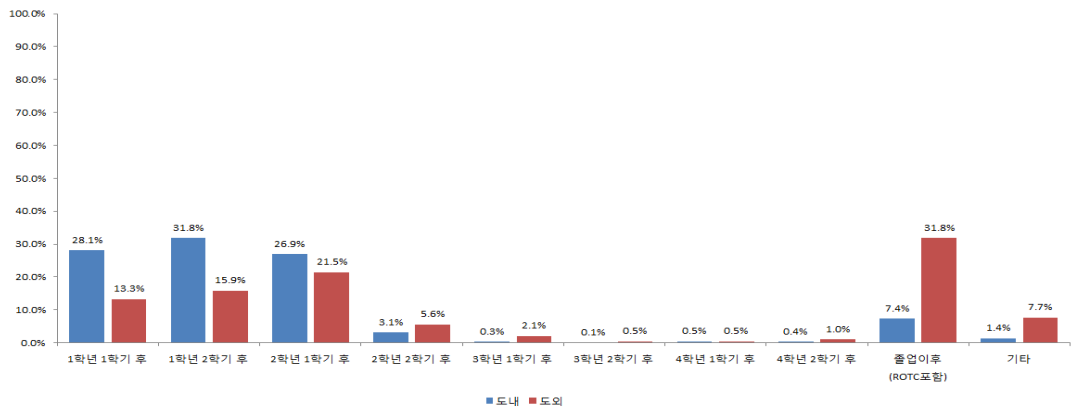


그림 30. 출신지역별 군 입대에 대한 계획

출신지역별 군 입대에 대한 계획을 살펴보면 도내 학생들의 86.8%가 2학년 1학기 후 군 입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외 학생들의 31.9%가 졸업 이후 또는 ROTC로 입대한다고 나타났다.

11) 장래 희망 직종

- 단과대학별

단과대학에 따른 장래 희망 직종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47과 같다.

표 47. 단과대학별 장래 희망 직종

	대학구분												전체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교육대	수의대	간호대	예술대		
장래 희망 직종	공무원	72 31.9%	71 52.2%	64 21.3%	17 13.0%	32 28.3%	75 39.1%	58 21.5%	54 17.5%	7 8.0%	2 6.9%	7 13.0%	2 3.0%	461 24.1%
	일반기업체	23 10.2%	14 10.3%	48 16.0%	2 1.5%	6 5.3%	15 7.8%	20 7.4%	69 22.4%	0 .0%	0 .0%	0 .0%	3 4.5%	200 10.5%
	금융기관	3 1.3%	8 5.9%	59 19.7%	3 2.3%	12 10.6%	4 2.1%	19 7.0%	11 3.6%	0 .0%	0 .0%	0 .0%	1 1.5%	120 6.3%
	교사	33 14.6%	4 2.9%	5 1.7%	88 67.2%	4 3.5%	3 1.6%	43 15.9%	6 1.9%	74 85.1%	0 .0%	5 9.3%	4 6.0%	269 14.1%
	연구직	6 2.7%	0 .0%	1 .3%	5 3.8%	24 21.2%	28 14.6%	36 13.3%	42 13.6%	1 1.1%	3 10.3%	5 9.3%	0 .0%	151 7.9%
	기술전문분야	3 1.3%	1 .7%	12 4.0%	2 1.5%	8 7.1%	27 14.1%	17 6.3%	93 30.2%	0 .0%	7 24.1%	5 9.3%	2 3.0%	177 9.3%
	사회복지	4 1.8%	4 2.9%	3 1.0%	0 .0%	4 3.5%	0 .0%	16 5.9%	2 .6%	0 .0%	0 .0%	6 11.1%	0 .0%	39 2.0%
	경영관리	7 3.1%	7 5.1%	65 21.7%	1 .8%	6 5.3%	8 4.2%	7 2.6%	5 1.6%	1 1.1%	2 6.9%	0 .0%	1 1.5%	110 5.8%
	예술직	20 8.8%	9 6.6%	7 2.3%	3 2.3%	3 2.7%	4 2.1%	14 5.2%	8 2.6%	4 4.6%	0 .0%	2 3.7%	53 79.1%	127 6.6%
	농·축·어업	0 .0%	0 .0%	1 .3%	0 .0%	5 4.4%	2 1.0%	0 .0%	0 .0%	0 .0%	4 13.8%	0 .0%	0 .0%	12 .6%
기타	55 24.3%	18 13.2%	35 11.7%	10 7.6%	9 8.0%	26 13.5%	40 14.8%	18 5.8%	0 .0%	11 37.9%	24 44.4%	1 1.5%	247 12.9%	
전체	226 100.0%	136 100.0%	300 100.0%	131 100.0%	113 100.0%	192 100.0%	270 100.0%	308 100.0%	87 100.0%	29 100.0%	54 100.0%	67 100.0%	1913 100.0%	

장래 희망 직종에 대한 질문에 공무원이 2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사(14.1%), 일반기업체(10.5%), 기술전문분야(9.3%), 연구직(7.9%), 예술직(6.6%), 금융기관(6.3%), 경영관리(5.8%), 사회복지(2.0%), 농·축·어업(0.6%)로 순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인문대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31.9%, 사회대의 경우에는 52.2%가 공무원으로 나타났다. 경상대의 경우는 공무원, 일반기업체, 금융기관, 경영관리직에 각각 약 20%로 나타났다. 사범대의 경우에는 67.2%가 교사를 희망하고 있으며, 생명대의 경우에는 공무원(28.3%)과 연구직(21.2%)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대의 경우에도 공무원이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연대의 경우에도 공무원이 2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과대의 경우에는 기술전문분야가 3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대는 85.1%가 교사를 수의대

는 전문직(수의사)이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간호대의 경우에도 간호사가 44.4%로 가장 높으며 예술대는 예술직이 7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각 단과대학별 특성에 따른 직업군을 희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성별

성별에 따른 장래 희망 직종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48과 같다.

표 48. 성별 장래 희망 직종

		장래 희망 직종											전체
		공무원	일반 기업체	금융 기관	교사	연구직	기술 전문 분야	사회 복지	경영 관리	예술직	농·축· 어업	기타	
성별	남자	237 25.5%	105 11.3%	67 7.2%	119 12.8%	71 7.7%	112 12.1%	17 1.8%	62 6.7%	44 4.7%	8 0.9%	86 9.3%	928 100.0%
	여자	224 22.7%	95 9.6%	53 5.4%	150 15.2%	80 8.1%	65 6.6%	22 2.2%	48 4.9%	83 8.4%	4 0.4%	161 16.3%	985 100.0%
전체		461 24.1%	200 10.5%	120 6.3%	269 14.1%	151 7.9%	177 9.3%	39 2.0%	110 5.8%	127 6.6%	12 0.6%	247 12.9%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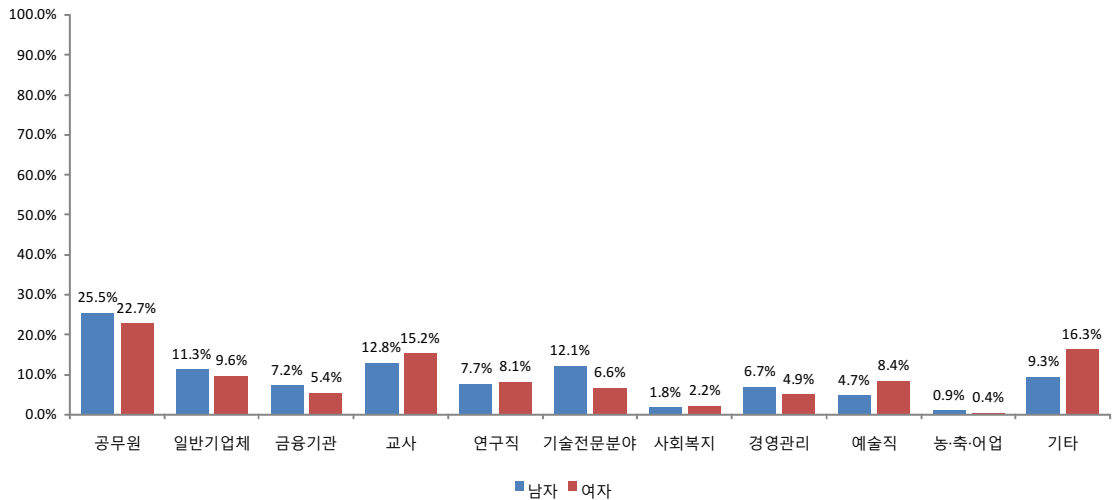


그림 31. 성별 장래 희망 직종

성별에 따른 장래 희망 직종을 살펴보면 남학생들은 공무원(25.5%), 교사(12.8%), 기술 전문분야(12.1%), 일반기업체(11.3%)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들은 공무원(22.7%), 교사 (15.2%), 일반기업체(9.6%) 순으로 나타났다.

- 출신지역별

출신지역에 따른 장래 희망 직종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49와 같다.

표 49. 출신 지역별 장래 희망 직종

		장래 희망 직종											전체
지역	구분	공무원	일반 기업체	금융 기관	교사	연구직	기술 전문 분야	사회 복지	경영 관리	예술직	농·축· 어업	기타	
도내	405	164	109	189	106	146	35	84	106	8	190	1542	
	26.3%	10.6%	7.1%	12.3%	6.9%	9.5%	2.3%	5.4%	6.9%	.5%	12.3%	100.0%	
도외	56	36	11	80	45	31	4	26	21	4	57	371	
	15.1%	9.7%	3.0%	21.6%	12.1%	8.4%	1.1%	7.0%	5.7%	1.1%	15.4%	100.0%	
전체	461	200	120	269	151	177	39	110	127	12	247	1913	
	24.1%	10.5%	6.3%	14.1%	7.9%	9.3%	2.0%	5.8%	6.6%	.6%	12.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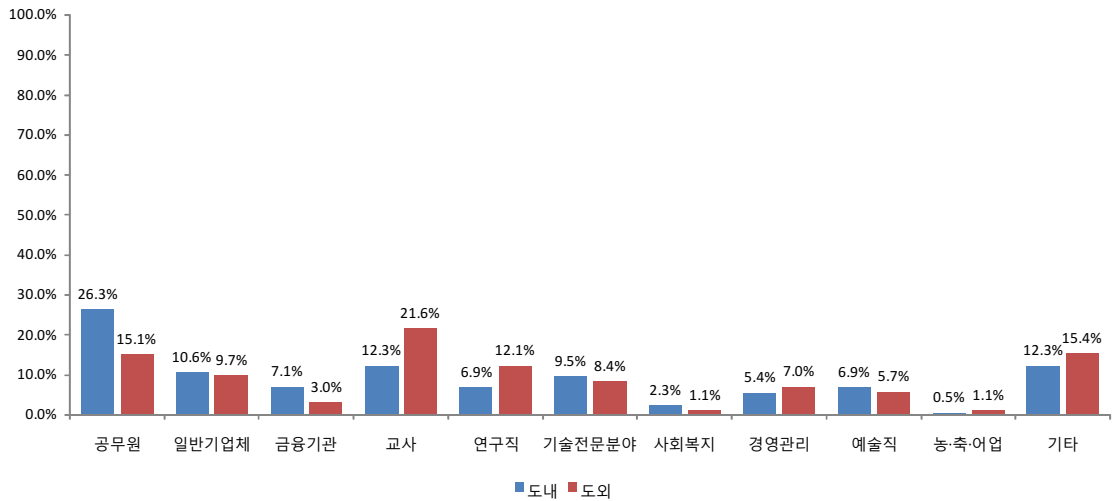


그림 32. 출신지역별 장래 희망 직종

출신지역에 따른 장래 희망 직종을 살펴보면 도내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26.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사(12.3%), 기타(12.3%), 일반기업체(10.6%) 순으로 나타났다. 도외의 경우에는 교사가 21.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무원(15.1%), 연구직(12.1%) 순으로 나타났다.

12) 졸업 후 계획하고 있는 진로

- 단과대학별

단과대학에 따른 졸업 후 계획하고 있는 진로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50과 같다.

표 50. 단과대학별 졸업 후 계획하는 진로

		대학구분											전체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교육대	수의대	간호대		예술대
졸업 후 계획하는 진로	대학원 진학	15 6.6%	6 4.4%	13 4.3%	4 3.1%	22 19.5%	27 14.1%	45 16.7%	32 10.4%	3 3.4%	3 10.3%	3 5.6%	14 20.9%	187 9.8%
	국가고시	87 38.5%	75 55.1%	61 20.3%	95 72.5%	27 23.9%	55 28.6%	76 28.1%	36 11.7%	68 78.2%	11 37.9%	29 53.7%	5 7.5%	625 32.7%
	취업	78 34.5%	38 27.9%	189 63.0%	21 16.0%	57 50.4%	88 45.8%	114 42.2%	205 66.6%	14 16.1%	12 41.4%	19 35.2%	21 31.3%	856 44.7%
	사업	6 2.7%	4 2.9%	11 3.7%	1 .8%	1 .9%	8 4.2%	9 3.3%	12 3.9%	0 .0%	1 3.4%	0 .0%	4 6.0%	57 3.0%
	유학	28 12.4%	10 7.4%	19 6.3%	5 3.8%	4 3.5%	5 2.6%	17 6.3%	15 4.9%	0 .0%	2 6.9%	2 3.7%	17 25.4%	124 6.5%
	기타	12 5.3%	3 2.2%	7 2.3%	5 3.8%	2 1.8%	9 4.7%	9 3.3%	8 2.6%	2 2.3%	0 .0%	1 1.9%	6 9.0%	64 3.3%
전체		226 100.0%	136 100.0%	300 100.0%	131 100.0%	113 100.0%	192 100.0%	270 100.0%	308 100.0%	87 100.0%	29 100.0%	54 100.0%	67 100.0%	1913 100.0%

대학 졸업 후 계획하는 진로에 대한 질문에 취업이 44.7%로 가장 높았으며 국가고시(32.7%), 대학원 진학(9.8%), 유학(6.5%), 기타(3.3%), 사업(3.0%) 순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인문대, 사회대, 사범대, 교육대, 간호대가 각각 38.5%, 55.1%, 72.5%, 78.2%, 53.7%로 국가고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상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수의대는 각각 63.0%, 50.4%, 45.8%, 42.2%, 66.6%, 41.4%로 취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예술대의 경우에는 유학이 2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성별

성별에 따른 졸업 후 계획하고 있는 진로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51과 같다.

표 51. 성별 졸업 후 계획하는 진로

	성별구분		전체	
	남자	여자		
졸업 후 계획하는 진로	대학원 진학	103 11.1%	84 8.5%	187 9.8%
	국가고시	300 32.3%	325 33.0%	625 32.7%
	취업	428 46.1%	428 43.5%	856 44.7%
	사업	38 4.1%	19 1.9%	57 3.0%
	유학	26 2.8%	98 9.9%	124 6.5%
	기타	33 3.6%	31 3.1%	64 3.3%
	전체	928 100.0%	985 100.0%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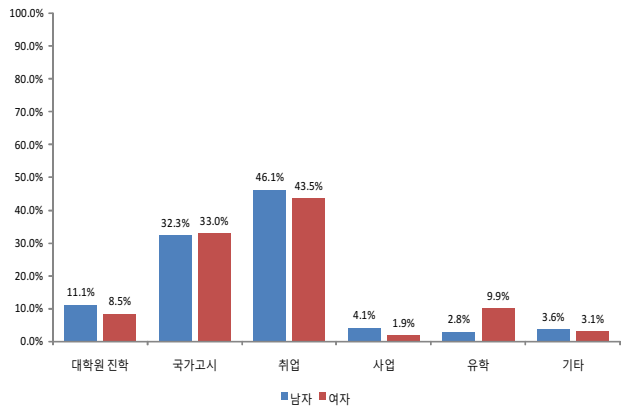


그림 33. 성별 졸업 후 계획하는 진로

성별에 따른 졸업 후 계획하는 진로를 살펴보면 남녀의 각각 46.1%, 43.5%로 취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국가고시가 남녀 각각 32.3%, 33.0%로 나타났다. 남녀간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 출신지역별

출신지역에 따른 졸업 후 계획하고 있는 진로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52와 같다.

표 52. 출신지역별 졸업 후 계획하는 진로

	지역구분		전체	
	도내	도외		
졸업 후 계획하는 진로	대학원 진학	121 7.8%	66 17.8%	187 9.8%
	국가고시	512 33.2%	113 30.5%	625 32.7%
	취업	724 47.0%	132 35.6%	856 44.7%
	사업	47 3.0%	10 2.7%	57 3.0%
	유학	92 6.0%	32 8.6%	124 6.5%
	기타	46 3.0%	18 4.9%	64 3.3%
	전체	1542 100.0%	371 100.0%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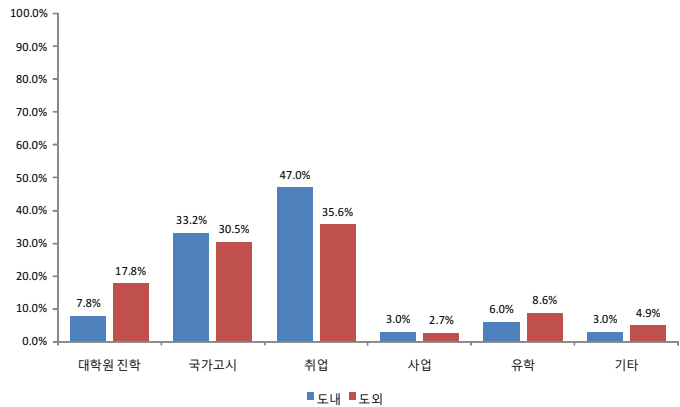


그림 34. 출신지역별 졸업 후 계획하는 진로

출신지역에 따른 졸업 후 계획하는 진로를 살펴보면 도내의 경우에는 취업(47.0%), 국가고시(33.2%), 대학원 진학(7.8%) 순으로 나타났고 도외의 경우에는 취업(35.6%), 국가고시(30.5%), 대학원 진학(17.8%) 순으로 나타났다. 순위에는 차이가 없으나 비율을 보면 도외의 학생들이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을 더 많이 계획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3) 진로 결정에 대한 장애 요소

- 단과대학별

단과대학에 따른 진로 결정에 대한 장애 요소를 교차분석한 결과는 표 53과 같다.

표 53. 단과대학별 진로결정 장애 요소

	진로결정 장애 요소											전체
	자신의 흥미 적성 모름	자신감 의욕 부족	외국어 능력 부족	취업에 적절치 않은 전공	학교 명성 부재	진로 직업 정보 부족	유망 직업 모름	중요한 타인과 갈등	우유부 단한 성격	경제적 어려움	기타	
인문대	50 22.1%	41 18.1%	30 13.3%	17 7.5%	6 2.7%	43 19.0%	13 5.8%	2 .9%	11 4.9%	10 4.4%	3 1.3%	226 100.0%
사회대	39 28.7%	22 16.2%	24 17.6%	7 5.1%	4 2.9%	27 19.9%	3 2.2%	2 1.5%	7 5.1%	0 .0%	1 .7%	136 100.0%
경상대	84 28.0%	28 9.3%	63 21.0%	7 2.3%	9 3.0%	74 24.7%	11 3.7%	3 1.0%	11 3.7%	8 2.7%	2 .7%	300 100.0%
사범대	25 19.1%	33 25.2%	11 8.4%	8 6.1%	6 4.6%	26 19.8%	5 3.8%	1 .8%	10 7.6%	4 3.1%	2 1.5%	131 100.0%
대 생명대	26 23.0%	19 16.8%	20 17.7%	8 7.1%	1 .9%	21 18.6%	7 6.2%	0 .0%	5 4.4%	5 4.4%	1 .9%	113 100.0%
학 해양대	50 26.0%	18 9.4%	30 15.6%	10 5.2%	3 1.6%	50 26.0%	10 5.2%	2 1.0%	13 6.8%	5 2.6%	1 .5%	192 100.0%
구 자연대	52 19.3%	33 12.2%	42 15.6%	14 5.2%	10 3.7%	80 29.6%	13 4.8%	7 2.6%	10 3.7%	7 2.6%	2 .7%	270 100.0%
분 공과대	61 19.8%	52 16.9%	55 17.9%	9 2.9%	13 4.2%	78 25.3%	15 4.9%	8 2.6%	16 5.2%	1 .3%	0 .0%	308 100.0%
교육대	21 24.1%	20 23.0%	10 11.5%	1 1.1%	8 9.2%	8 9.2%	1 1.1%	1 1.1%	11 12.6%	3 3.4%	3 3.4%	87 100.0%
수의대	2 6.9%	3 10.3%	0 .0%	0 .0%	4 13.8%	13 44.8%	0 .0%	0 .0%	3 10.3%	3 10.3%	1 3.4%	29 100.0%
간호대	11 20.4%	8 14.8%	11 20.4%	1 1.9%	1 1.9%	15 27.8%	0 .0%	1 1.9%	3 5.6%	3 5.6%	0 .0%	54 100.0%
예술대	9 13.4%	7 10.4%	16 23.9%	10 14.9%	2 3.0%	13 19.4%	1 1.5%	2 3.0%	2 3.0%	4 6.0%	1 1.5%	67 100.0%
전체	430 22.5%	284 14.8%	312 16.3%	92 4.8%	67 3.5%	448 23.4%	79 4.1%	29 1.5%	102 5.3%	53 2.8%	17 .9%	1913 100.0%

진로결정에 장애가 되는 요소에 대한 질문에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정보 부족이 23.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모름(22.5%), 외국어 능력 부족(16.3%), 자신감 및 의욕 부족(14.8%) 순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생명대, 교육대는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모르는 부분이 진로결정에 장애 요소라고 각각 22.1%, 28.7%, 28.0%, 23.0%, 24.1%로 나타났으며 사범대는 자신감 및 의욕 부족이 2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연대와 공과대, 수의대, 간호대는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정보 부족이 진로결정에 장애가 되는 요소로 각각 29.6%, 25.3%, 44.8%, 2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성별

성별에 따른 진로 결정에 대한 장애 요소를 교차분석한 결과는 표 54와 같다.

표 54. 성별 진로결정 장애 요소

		진로결정 장애 요소											
		자신의 흥미 적성 모름	자신감 의욕 부족	외국어 능력 부족	취업에 적절치 않은 전공	학교 명성 부재	진로 직업 정보 부족	유망 직업 모름	중요한 타인과 갈등	우유 부단한 성격	경제적 어려움	기타	전체
성별	남자	194 20.9%	131 14.1%	145 15.6%	42 4.5%	43 4.6%	213 23.0%	40 4.3%	19 2.0%	60 6.5%	31 3.3%	10 1.1%	928 100.0%
구분	여자	236 24.0%	153 15.5%	167 17.0%	50 5.1%	24 2.4%	235 23.9%	39 4.0%	10 1.0%	42 4.3%	22 2.2%	7 0.7%	985 100.0%
전체		430 22.5%	284 14.8%	312 16.3%	92 4.8%	67 3.5%	448 23.4%	79 4.1%	29 1.5%	102 5.3%	53 2.8%	17 0.9%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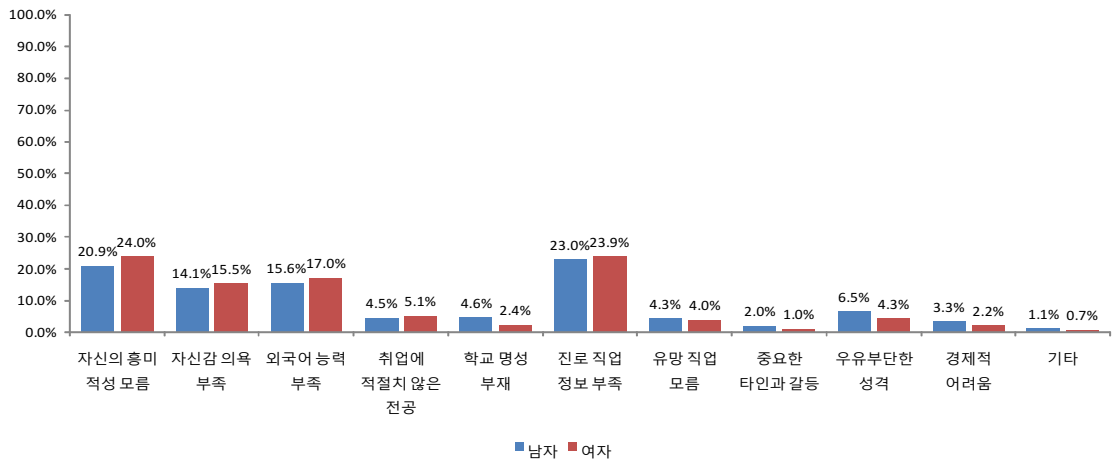


그림 35. 성별 진로결정 장애 요소

성별에 따른 진로결정 장애 요소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에는 진로 및 직업 정보 부족(23.0%), 자신의 흥미 및 적성을 모른다(20.9%), 외국어 능력 부족(15.6%), 자신감 및 의욕 부족(14.1%) 순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자신의 흥미 및 적성 모름(24.0%),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정보 부족(23.9%), 외국어 능력 부족(17.0%), 자신감 및 의욕 부족(15.5%) 순으로 나타났다.

-. 출신지역별

출신지역에 따른 진로 결정에 대한 장애 요소를 교차분석한 결과는 표 55와 같다.

표 55. 출신지역별 진로결정 장애 요소

		진로결정 장애 요소											전체
지역	구분	자신의 흥미 적성 모름	자신감 의욕 부족	외국어 능력 부족	취업에 적절치 않은 전공	학교 명성 부재	진로 직업 정보 부족	유망 직업 모름	중요한 타인과 갈등	우유부단한 성격	경제적 어려움	기타	
지역	도내	376 24.4%	229 14.9%	247 16.0%	79 5.1%	42 2.7%	365 23.7%	66 4.3%	27 1.8%	72 4.7%	32 2.1%	7 .5%	1542 100.0%
구분	도외	54 14.6%	55 14.8%	65 17.5%	13 3.5%	25 6.7%	83 22.4%	13 3.5%	2 .5%	30 8.1%	21 5.7%	10 2.7%	371 100.0%
전체		430 22.5%	284 14.8%	312 16.3%	92 4.8%	67 3.5%	448 23.4%	79 4.1%	29 1.5%	102 5.3%	53 2.8%	17 .9%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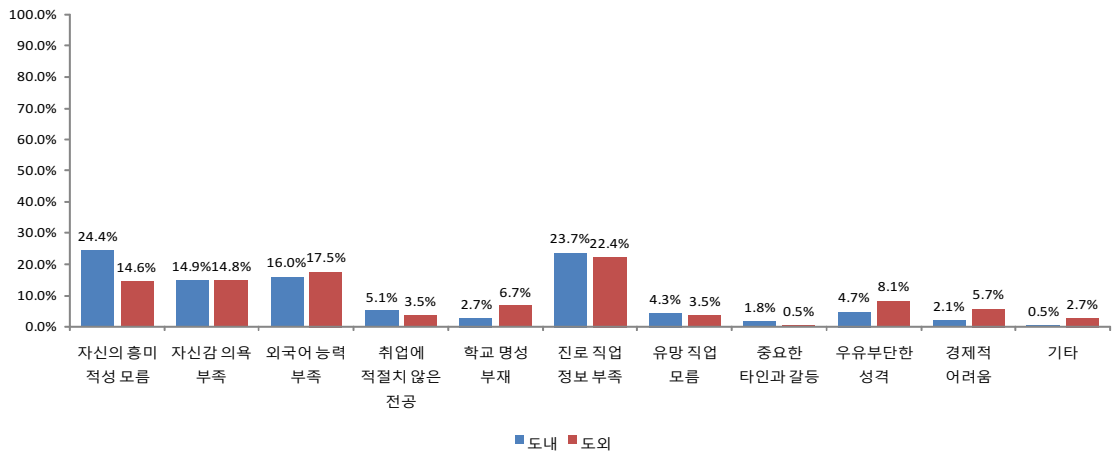


그림 36. 출신지역별 진로결정 장애 요소

출신지역에 따른 진로결정 장애 요소를 살펴보면 도내의 경우에는 자신의 흥미 및 적성을 모른다는 24.4%로 가장 높은 반면 도외의 경우에는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정보 부족이 2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대학생 생활 관련

1) 대학진학 목적

- 단과대학별

단과대학에 따른 대학진학 목적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56과 같다.

표 56. 단과대학별 대학진학 목적

	대학구분													전체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교육대	수의대	간호대	예술대		
대학진학 목적	유망 직업	55 24.3%	51 37.5%	119 39.7%	61 46.6%	40 35.4%	70 36.5%	107 39.6%	118 38.3%	47 54.0%	14 48.3%	25 46.3%	22 32.8%	729 38.1%
	교양 습득	22 9.7%	8 5.9%	22 7.3%	2 1.5%	6 5.3%	6 3.1%	8 3.0%	19 6.2%	5 5.7%	0 .0%	1 1.9%	4 6.0%	103 5.4%
	부모님 및 주위의 권유	22 9.7%	19 14.0%	21 7.0%	20 15.3%	9 8.0%	24 12.5%	23 8.5%	32 10.4%	10 11.5%	0 .0%	4 7.4%	0 .0%	184 9.6%
	전문적 지식 습득	79 35.0%	43 31.6%	97 32.3%	28 21.4%	45 39.8%	68 35.4%	93 34.4%	103 33.4%	14 16.1%	12 41.4%	17 31.5%	35 52.2%	634 33.1%
	사회적 지위 획득	17 7.5%	3 2.2%	14 4.7%	6 4.6%	5 4.4%	7 3.6%	14 5.2%	8 2.6%	2 2.3%	1 3.4%	2 3.7%	1 1.5%	80 4.2%
	기타	31 13.7%	12 8.8%	27 9.0%	14 10.7%	8 7.1%	17 8.9%	25 9.3%	28 9.1%	9 10.3%	2 6.9%	5 9.3%	5 7.5%	183 9.6%
전체	226 100.0%	136 100.0%	300 100.0%	131 100.0%	113 100.0%	192 100.0%	270 100.0%	308 100.0%	87 100.0%	29 100.0%	54 100.0%	67 100.0%	1913 100.0%	

대학진학 목적에 대한 질문에 유망 직업을 얻기 위해라고 응답한 학생이 38.1%로 가장 높았으며 전문적 지식 습득이 33.1%로 두 번째로 높았다. 그다음 기타(9.6%), 부모님 및 주위의 권유(9.6%), 교양 습득(5.4%), 사회적 지위 획득(4.2%) 순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 별로 살펴보면 생명대와 예술대를 제외하고 모든 대학의 학생들이 유망 직업을 얻기 위해 대학에 진학했다고 하였으며 생명대와 예술대는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대학에 진학했다고 하였다.

- 성별

성별에 따른 대학진학 목적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57과 같다.

표 57. 성별 대학진학 목적

	성별구분		전체
	남자	여자	
유망 직업	378 40.7%	351 35.6%	729 38.1%
교양 습득	60 6.5%	43 4.4%	103 5.4%
부모님 및 주위의 권유	94 10.1%	90 9.1%	184 9.6%
전문적 지식 습득	272 29.3%	362 36.8%	634 33.1%
사회적 지위 획득	38 4.1%	42 4.3%	80 4.2%
기타	86 9.3%	97 9.8%	183 9.6%
전체	928 100.0%	985 100.0%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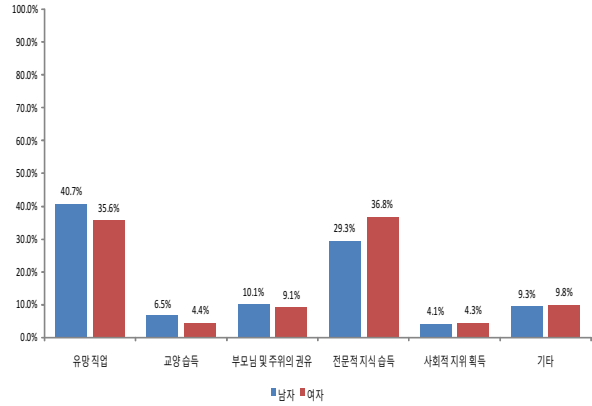


그림 37. 성별 대학진학 목적

성별에 따른 대학진학 목적을 살펴보면 남학생은 유망 직업을 얻기 위해가 4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가 3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출신지역별

출신지역에 따른 대학진학 목적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58과 같다.

표 58. 출신지역별 대학진학 목적

	지역구분		전체
	도내	도외	
유망 직업	585 37.9%	144 38.8%	729 38.1%
교양 습득	85 5.5%	18 4.9%	103 5.4%
부모님 및 주위의 권유	160 10.4%	24 6.5%	184 9.6%
전문적 지식 습득	508 32.9%	126 34.0%	634 33.1%
사회적 지위 획득	67 4.3%	13 3.5%	80 4.2%
기타	137 8.9%	46 12.4%	183 9.6%
전체	1542 100.0%	371 100.0%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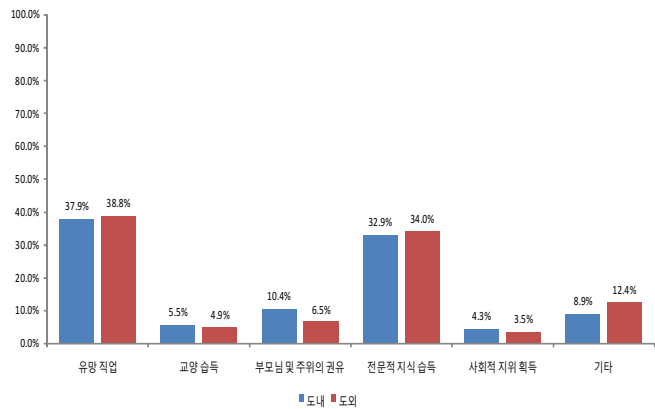


그림 38. 출신지역별 대학진학 목적

출신지역에 따른 대학진학 목적을 살펴보면 도내·외 학생 모두 유망직업을 얻기 위해가 각각 37.9%, 3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

- 단과대학별

단과대학에 따른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59와 같다.

표 59. 단과대학별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

	대학구분												전체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교육대	수의대	간호대	예술대		
전공공부	40 17.7%	29 21.3%	58 19.3%	34 26.0%	31 27.4%	37 19.3%	77 28.5%	86 27.9%	8 9.2%	8 27.6%	11 20.4%	35 52.2%	454 23.7%	
대 학 생 활 에 서 가 장 하 고 싶 은 일	폭넓은 대인관계 형성	90 39.8%	57 41.9%	120 40.0%	40 30.5%	48 42.5%	70 36.5%	84 31.1%	112 36.4%	19 21.8%	7 24.1%	17 31.5%	15 22.4%	679 35.5%
	이성교제	12 5.3%	8 5.9%	12 4.0%	11 8.4%	5 4.4%	15 7.8%	8 3.0%	21 6.8%	5 5.7%	3 10.3%	3 5.6%	1 1.5%	104 5.4%
	교양지식 습득	9 4.0%	5 3.7%	5 1.7%	0 .0%	2 1.8%	2 1.0%	7 2.6%	9 2.9%	3 3.4%	2 6.9%	1 1.9%	0 .0%	45 2.4%
	각종 동아리활동	3 1.3%	3 2.2%	4 1.3%	3 2.3%	6 5.3%	4 2.1%	13 4.8%	11 3.6%	11 12.6%	1 3.4%	1 1.9%	1 1.5%	61 3.2%
	자격시험 준비	9 4.0%	5 3.7%	11 3.7%	2 1.5%	2 1.8%	8 4.2%	14 5.2%	13 4.2%	1 1.1%	0 .0%	1 1.9%	0 .0%	66 3.5%
	해외어학연수 및 인턴십	17 7.5%	5 3.7%	32 10.7%	7 5.3%	5 4.4%	17 8.9%	15 5.6%	12 3.9%	8 9.2%	1 3.4%	1 1.9%	3 4.5%	123 6.4%
	다양한 사회경험	39 17.3%	21 15.4%	55 18.3%	28 21.4%	12 10.6%	37 19.3%	48 17.8%	35 11.4%	31 35.6%	6 20.7%	14 25.9%	12 17.9%	338 17.7%
	기타	7 3.1%	3 2.2%	3 1.0%	6 4.6%	2 1.8%	2 1.0%	4 1.5%	9 2.9%	1 1.1%	1 3.4%	5 9.3%	0 .0%	43 2.2%
	전체	226 100.0%	136 100.0%	300 100.0%	131 100.0%	113 100.0%	192 100.0%	270 100.0%	308 100.0%	87 100.0%	29 100.0%	54 100.0%	67 100.0%	1913 100.0%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질문에 폭 넓은 대인관계 형성이 35.5%로 가장 높았으며 전공공부(23.7%), 다양한 사회경험(17.7%) 순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교육대는 다양한 사회경험(35.6%)을 예술대는 전공공부(52.2%)를 가장 하고 싶은 일로 선택하였으며 나머지 대학들은 모두 폭 넓은 대인관계 형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성별

성별에 따른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60과 같다.

표 60. 성별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									
		전공공부	폭넓은 대인관계	이성교제	교양지식 습득	각종 동아리 활동	자격시험 준비	해외어학 연수 및 인턴십	다양한 사회경험	기타	전체
성별	남자	225 24.2%	371 40.0%	76 8.2%	21 2.3%	40 4.3%	34 3.7%	30 3.2%	107 11.5%	24 2.6%	928 100.0%
	여자	229 23.2%	308 31.3%	28 2.8%	24 2.4%	21 2.1%	32 3.2%	93 9.4%	231 23.5%	19 1.9%	985 100.0%
전체		454 23.7%	679 35.5%	104 5.4%	45 2.4%	61 3.2%	66 3.5%	123 6.4%	338 17.7%	43 2.2%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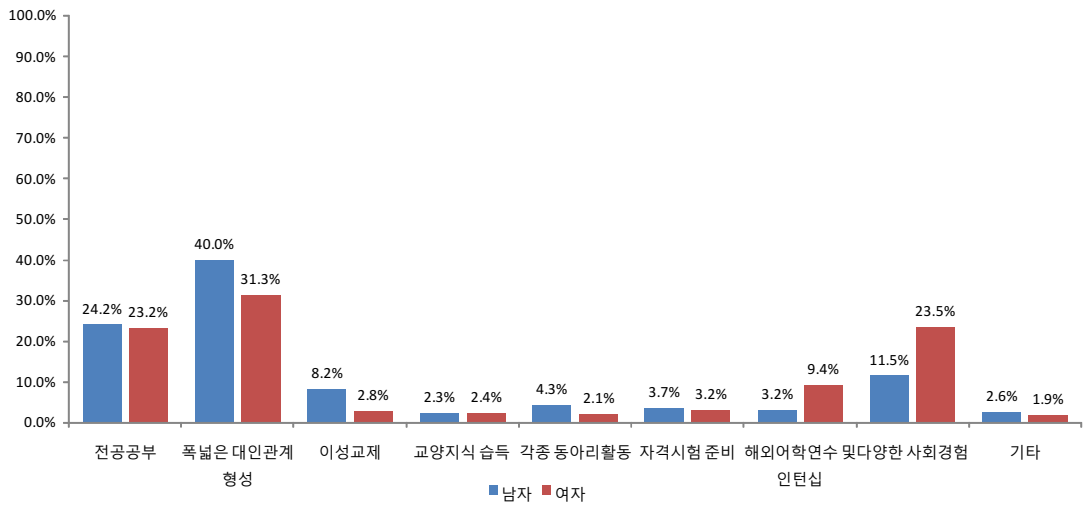


그림 39. 성별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

성별에 따른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살펴보면 남녀 학생 모두 폭 넓은 대인 관계 형성이 각각 40.0%, 3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두 번째로 하고 싶은 일에서는 남 학생은 24.2%가 전공공부를 여학생은 다양한 사회경험이 23.5%로 높게 나타나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였다.

- 출신지역별

출신지역에 따른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61과 같다.

표 61. 출신지역별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									
		전공 공부	폭넓은 대인관계	이성교제	교양지식 습득	각종 동아리 활동	자격시험 준비	해외어학 연수 및 인턴십	다양한 사회경험	기타	전체
지역	도내	348 22.6%	582 37.7%	86 5.6%	36 2.3%	40 2.6%	55 3.6%	90 5.8%	276 17.9%	29 1.9%	1542 100.0%
	도외	106 28.6%	97 26.1%	18 4.9%	9 2.4%	21 5.7%	11 3.0%	33 8.9%	62 16.7%	14 3.8%	371 100.0%
전체		454 23.7%	679 35.5%	104 5.4%	45 2.4%	61 3.2%	66 3.5%	123 6.4%	338 17.7%	43 2.2%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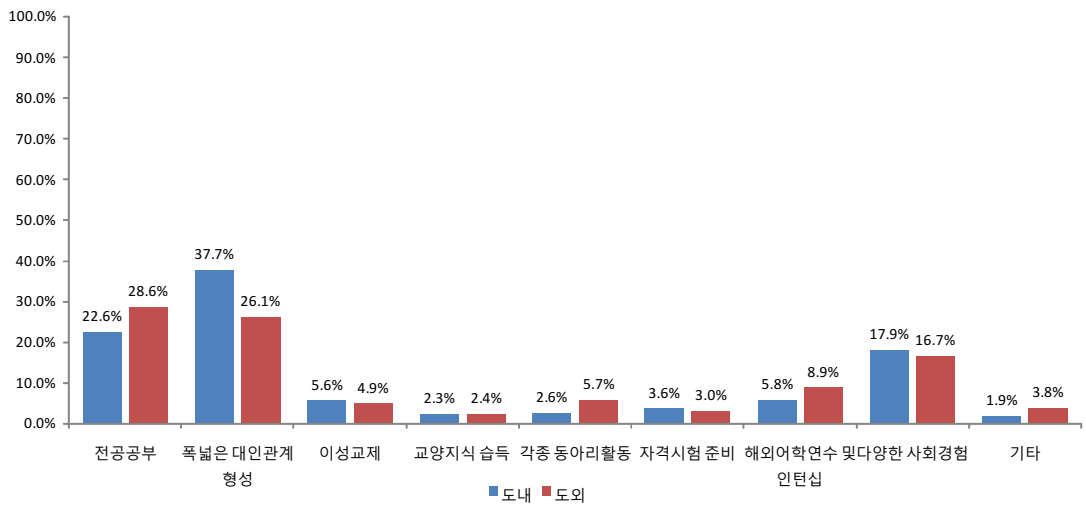


그림 40. 출신지역별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

출신 지역별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살펴보면 도내 학생들은 폭 넓은 대인 관계 형성이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도외 학생들은 전공공부가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재학 중 해외여행이나 외국연수에 대한 생각

- 단과대학별

단과대학에 따른 재학 중 해외여행이나 외국연수에 대한 생각에 대하여 교차분석 결과는 표 62와 같다.

표 62. 단과대학별 재학 중 해외여행 및 외국연수에 대한 생각

	대학구분												전체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교육대	수의대	간호대	예술대	
사고와 경험의 폭을 넓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을 생각	80	39	100	39	36	64	71	85	30	6	11	32	593
	35.4%	28.7%	33.3%	29.8%	31.9%	33.3%	26.3%	27.6%	34.5%	20.7%	20.4%	47.8%	31.0%
대학생으로 꼭 해볼 만한 일이라 생각하여 기회가 된다면 가 볼 생각	106	55	137	50	51	79	109	110	29	17	25	23	791
	46.9%	40.4%	45.7%	38.2%	45.1%	41.1%	40.4%	35.7%	33.3%	58.6%	46.3%	34.3%	41.3%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 없음	37	35	55	38	24	49	81	102	24	6	15	11	477
	16.4%	25.7%	18.3%	29.0%	21.2%	25.5%	30.0%	33.1%	27.6%	20.7%	27.8%	16.4%	24.9%
사치라고 생각되어 번 의미를 찾지 못함	3	7	8	4	2	0	9	11	4	0	3	1	52
	1.3%	5.1%	2.7%	3.1%	1.8%	.0%	3.3%	3.6%	4.6%	.0%	5.6%	1.5%	2.7%
전체	226	136	300	131	113	192	270	308	87	29	54	67	191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재학 중 해외여행 및 외국연수에 대한 생각에 대한 질문에 대학생으로 꼭 해볼 만한 일이라 생각하여 기회가 된다면 가 볼 생각이라는 학생이 4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고와 경험의 폭을 넓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을 생각이라는 학생이 31.0%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교육대(34.5%)와 예술대(47.8%)의 학생들은 사고와 경험의 폭을 넓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을 생각이라고 응답한 학생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나머지 대학들은 대학생으로 꼭 해볼 만한 일이라 생각하여 기회가 된다면 가 볼 생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성별

성별에 따른 재학 중 해외여행이나 외국연수에 대한 생각에 대하여 교차분석 결과는 표 63과 같다.

표 63. 성별 재학 중 해외여행 및 외국연수에 대한 생각

	성별구분		전체	
	남자	여자		
해외 여행 외국 연수에 대한 생각	사고와 경험의 폭을 넓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을 생각	208 22.4%	385 39.1%	593 31.0%
	대학생으로 꼭 해볼 만한 일이라 생각하여 기회가 된다면 가 볼 생각	354 38.1%	437 44.4%	791 41.3%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 없음	322 34.7%	155 15.7%	477 24.9%
	사치라고 생각되어 변 의미를 찾지 못함	44 4.7%	8 .8%	52 2.7%
전체	928 100.0%	985 100.0%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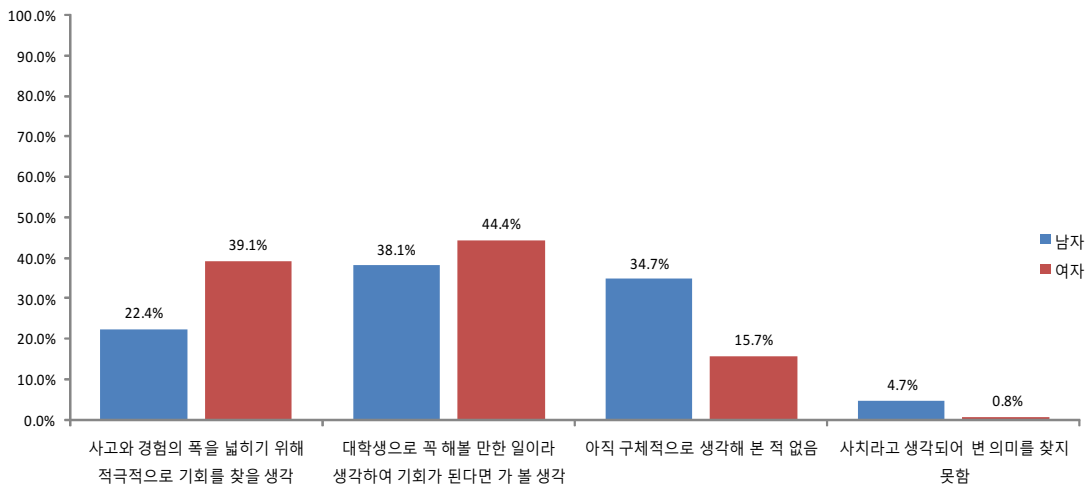


그림 41. 성별 재학 중 해외여행 및 외국연수에 대한 생각

성별에 따른 재학 중 해외여행 및 외국연수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면 남녀 학생 모두 대학생으로 꼭 해볼 만한 일이라 생각하여 기회가 된다면 가 볼 생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각각 38.1%,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출신지역별

출신지역에 따른 재학 중 해외여행이나 외국연수에 대한 생각에 대하여 교차분석 결과는 표 64와 같다.

표 64. 출신지역별 재학 중 해외여행 및 외국연수에 대한 생각

	지역구분		전체	
	도내	도외		
해외 여행 외국 연수에 대한 생각	사고와 경험의 폭을 넓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을 생각	468 30.4%	125 33.7%	593 31.0%
	대학생으로 꼭 해볼 만한 일이라 생각하여 기회가 된다면 가 볼 생각	631 40.9%	160 43.1%	791 41.3%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 없음	401 26.0%	76 20.5%	477 24.9%
	사치라고 생각되어 변 의미를 찾지 못함	42 2.7%	10 2.7%	52 2.7%
전체		1542 100.0%	371 100.0%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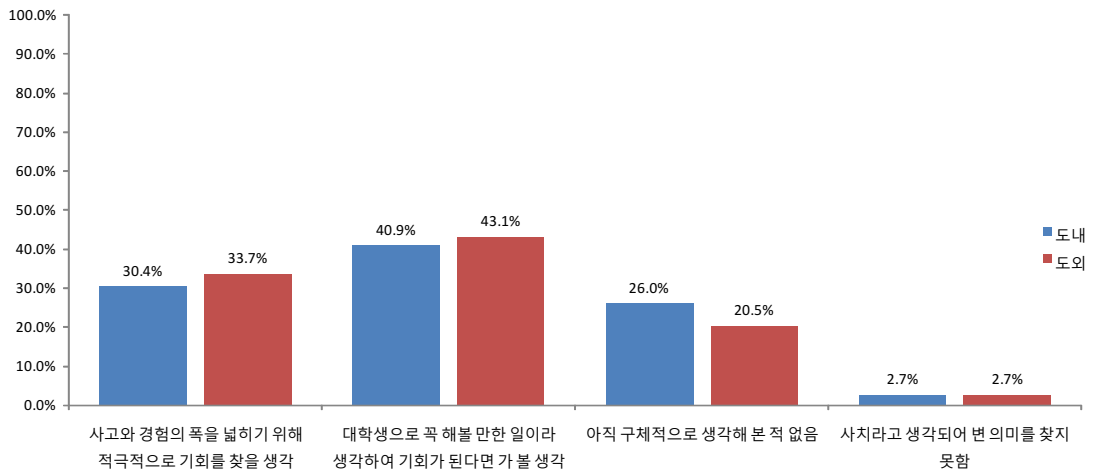


그림 42. 출신지역별 재학 중 해외여행 및 외국연수에 대한 생각

출신 지역별 재학 중 해외여행 및 외국연수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면 도·내외 출신 학생 모두 대학생으로 꼭 해볼 만한 일이라 생각하여 기회가 된다면 가 볼 생각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각각 40.9%, 4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입학 후 걱정되는 문제점

- 단과대학별

단과대학에 따른 입학 후 걱정되는 문제점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65와 같다.

표 65. 단과대학별 입학 후 걱정되는 문제점

		대학구분											전체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교육대	수의대	간호대		예술대
입학 후 걱정되는 문제점	학점 취득	76 33.6%	36 26.5%	92 30.7%	53 40.5%	35 31.0%	64 33.3%	95 35.2%	105 34.1%	17 19.5%	13 44.8%	35 64.8%	26 38.8%	647 33.8%
	진로 방향 결정	82 36.3%	58 42.6%	114 38.0%	33 25.2%	39 34.5%	69 35.9%	90 33.3%	93 30.2%	1 1.1%	5 17.2%	4 7.4%	24 35.8%	612 32.0%
	대인관계 유지	25 11.1%	14 10.3%	25 8.3%	15 11.5%	14 12.4%	13 6.8%	18 6.7%	36 11.7%	14 16.1%	2 6.9%	6 11.1%	5 7.5%	187 9.8%
	시간 및 생활관리	19 8.4%	16 11.8%	39 13.0%	17 13.0%	15 13.3%	22 11.5%	29 10.7%	32 10.4%	33 37.9%	7 24.1%	6 11.1%	4 6.0%	239 12.5%
	학비와 생활비 마련	21 9.3%	10 7.4%	26 8.7%	13 9.9%	9 8.0%	21 10.9%	32 11.9%	35 11.4%	17 19.5%	1 3.4%	3 5.6%	7 10.4%	195 10.2%
	기타	3 1.3%	2 1.5%	4 1.3%	0 .0%	1 .9%	3 1.6%	6 2.2%	7 2.3%	5 5.7%	1 3.4%	0 .0%	1 1.5%	33 1.7%
전체		226 100.0%	136 100.0%	300 100.0%	131 100.0%	113 100.0%	192 100.0%	270 100.0%	308 100.0%	87 100.0%	29 100.0%	54 100.0%	67 100.0%	1913 100.0%

입학 후 걱정되는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학점 취득이 33.8%로 가장 높았으며 진로 방향 결정(32.0%), 시간 및 생활관리(12.5%), 학비와 생활비 마련(10.2%), 대인관계 유지(9.8%), 기타(1.7%) 순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생명대, 해양대는 진로 방향 결정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범대, 자연대, 공과대, 수의대, 간호대, 예술대는 학점 취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대의 경우에는 시간 및 생활관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성별

성별에 따른 입학 후 걱정되는 문제점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66과 같다.

표 66. 성별 입학 후 걱정되는 문제점

		성별구분		전체
		남자	여자	
입학 후	학점 취득	300 32.3%	347 35.2%	647 33.8%
	진로 방향 결정	286 30.8%	326 33.1%	612 32.0%
걱정되는	대인관계 유지	93 10.0%	94 9.5%	187 9.8%
	시간 및 생활관리	118 12.7%	121 12.3%	239 12.5%
문제점	학비와 생활비 마련	106 11.4%	89 9.0%	195 10.2%
	기타	25 2.7%	8 .8%	33 1.7%
전체		928 100.0%	985 100.0%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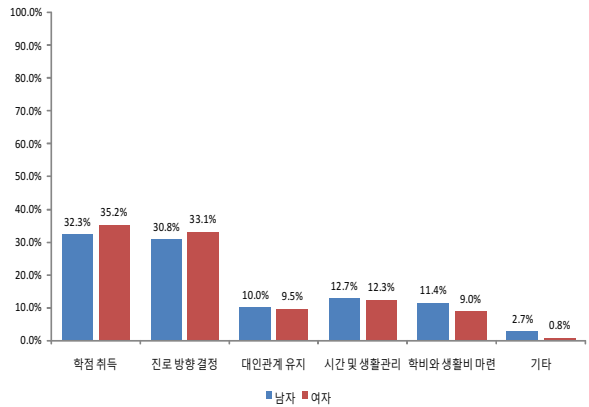


그림 43. 성별 입학 후 걱정되는 문제점

성별에 따른 입학 후 걱정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남녀 학생 모두 학점 취득이 가장 걱정되는 문제점으로 응답하였다.

- 출신지역별

출신지역에 따른 입학 후 걱정되는 문제점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67과 같다.

표 67. 출신지역별 입학 후 걱정되는 문제점

		지역구분		전체
		도내	도외	
입학 후	학점 취득	530 34.4%	117 31.5%	647 33.8%
	진로 방향 결정	518 33.6%	94 25.3%	612 32.0%
걱정되는	대인관계 유지	152 9.9%	35 9.4%	187 9.8%
	시간 및 생활관리	170 11.0%	69 18.6%	239 12.5%
문제점	학비와 생활비 마련	149 9.7%	46 12.4%	195 10.2%
	기타	23 1.5%	10 2.7%	33 1.7%
전체		1542 100.0%	371 100.0%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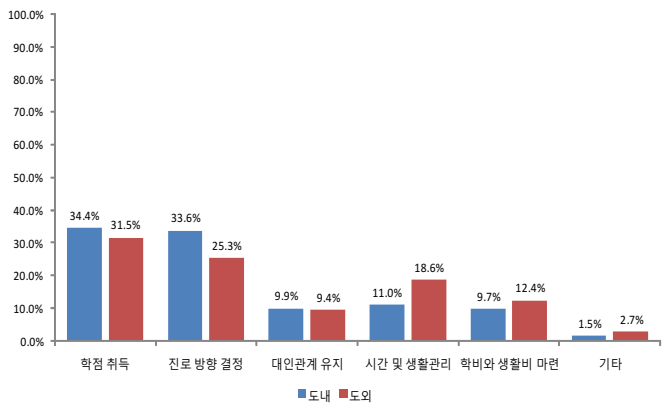


그림 44. 출신지역별 입학 후 걱정되는 문제점

출신 지역에 따른 입학 후 걱정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도·내외 학생들 모두 학점 취득이 가장 걱정되는 문제점으로 응답하였다.

5) 아르바이트 희망 여부

- 단과대학별

단과대학에 따른 아르바이트 희망 여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68과 같다.

표 68. 단과대학별 아르바이트 희망 여부

		대학구분											전체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교육대	수의대	간호대	예술대	
아 르 바 이 트 희 망 여 부	절실하게 원함	33 14.6%	12 8.8%	38 12.7%	13 9.9%	9 8.0%	18 9.4%	28 10.4%	43 14.0%	21 24.1%	3 10.3%	5 9.3%	13 19.4%	236 12.3%
	원함	144 63.7%	91 66.9%	200 66.7%	82 62.6%	78 69.0%	127 66.1%	176 65.2%	179 58.1%	56 64.4%	19 65.5%	33 61.1%	41 61.2%	1226 64.1%
	별로 관심 없음	34 15.0%	26 19.1%	50 16.7%	25 19.1%	20 17.7%	37 19.3%	39 14.4%	70 22.7%	8 9.2%	5 17.2%	12 22.2%	11 16.4%	337 17.6%
	하고 싶지 않음	15 6.6%	7 5.1%	12 4.0%	11 8.4%	6 5.3%	10 5.2%	27 10.0%	16 5.2%	2 2.3%	2 6.9%	4 7.4%	2 3.0%	114 6.0%
전체		226 100.0%	136 100.0%	300 100.0%	131 100.0%	113 100.0%	192 100.0%	270 100.0%	308 100.0%	87 100.0%	29 100.0%	54 100.0%	67 100.0%	1913 100.0%

아르바이트 희망 여부에 대한 질문에 76.4%가 희망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모든 대학의 학생들의 70%가 아르바이트를 원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 성별

성별에 따른 아르바이트 희망 여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69와 같다.

표 69. 성별 아르바이트 희망 여부

		성별구분		전체
		남자	여자	
아 르 바 이 트	절실하게 원함	114 12.3%	122 12.4%	236 12.3%
	원함	552 59.5%	674 68.4%	1226 64.1%
희 망	별로 관심 없음	209 22.5%	128 13.0%	337 17.6%
	하고 싶지 않음	53 5.7%	61 6.2%	114 6.0%
전체		928 100.0%	985 100.0%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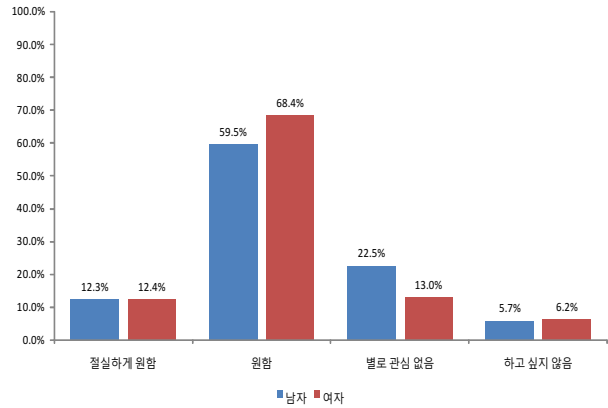


그림 45. 성별 아르바이트 희망 여부

성별에 따른 아르바이트 희망 여부를 살펴보면 남녀학생 모두 70% 이상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신지역별

출신지역에 따른 아르바이트 희망 여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70과 같다.

표 70. 출신지역별 아르바이트 희망 여부

		지역구분		전체
		도내	도외	
아 르 바 이 트	절실하게 원함	184 11.9%	52 14.0%	236 12.3%
	원함	1017 66.0%	209 56.3%	1226 64.1%
희 망	별로 관심 없음	259 16.8%	78 21.0%	337 17.6%
	하고 싶지 않음	82 5.3%	32 8.6%	114 6.0%
전체		1542 100.0%	371 100.0%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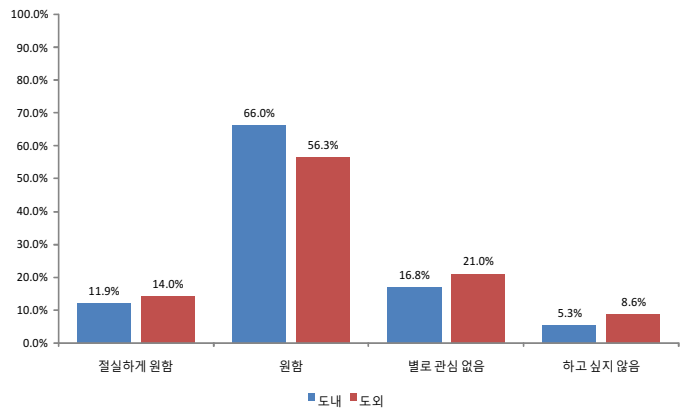


그림 46. 출신지역별 아르바이트 희망 여부

출신 지역별 아르바이트 희망 여부를 살펴보면 도·내외 학생 모두 70%이상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이유

- 단과대학별

단과대학에 따른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이유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71과 같다.

표 71. 단과대학별 아르바이트 희망 이유

	대학구분												전체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교육대	수의대	간호대	예술대		
아 르 바 이 트 희 망 이 유	폭넓은 사회경험 쌓기	16 7.5%	9 7.3%	25 9.0%	8 6.9%	9 9.0%	17 9.4%	15 6.0%	29 10.0%	8 10.0%	5 18.5%	3 6.5%	12 18.5%	156 8.8%
	용돈 마련	155 72.4%	90 72.6%	197 71.1%	85 73.3%	74 74.0%	119 66.1%	191 77.0%	197 68.2%	53 66.3%	17 63.0%	30 65.2%	41 63.1%	1249 70.7%
	학비 마련	15 7.0%	9 7.3%	14 5.1%	10 8.6%	3 3.0%	11 6.1%	10 4.0%	19 6.6%	1 1.3%	3 11.1%	5 10.9%	4 6.2%	104 5.9%
	생활비 마련	23 10.7%	12 9.7%	35 12.6%	12 10.3%	12 12.0%	30 16.7%	25 10.1%	35 12.1%	16 20.0%	1 3.7%	6 13.0%	8 12.3%	215 12.2%
	기타	5 2.3%	4 3.2%	6 2.2%	1 .9%	2 2.0%	3 1.7%	7 2.8%	9 3.1%	2 2.5%	1 3.7%	2 4.3%	0 .0%	42 2.4%
전체	214 100.0%	124 100.0%	277 100.0%	116 100.0%	100 100.0%	180 100.0%	248 100.0%	289 100.0%	80 100.0%	27 100.0%	46 100.0%	65 100.0%	1766 100.0%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1766명) 중 70.7%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라고 응답하였고 12.2%가 생활비 마련이라고 응답하였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모든 대학의 학생들이 용돈 마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성별

성별에 따른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이유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72와 같다.

표 72. 성별 아르바이트 희망 이유

		성별구분		전체
		남자	여자	
아르바이트 희망 이유	폭넓은 사회경험 쌓기	78 9.2%	78 8.5%	156 8.8%
	용돈 마련	572 67.6%	677 73.6%	1249 70.7%
	학비 마련	50 5.9%	54 5.9%	104 5.9%
	생활비 마련	126 14.9%	89 9.7%	215 12.2%
	기타	20 2.4%	22 2.4%	42 2.4%
전체		846 100.0%	920 100.0%	176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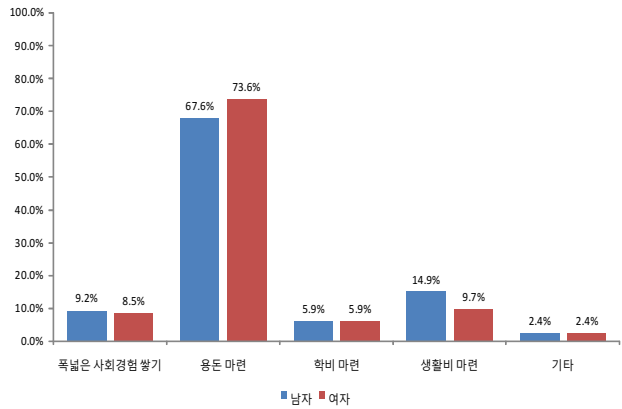


그림 47. 성별 아르바이트 희망 이유

성별에 따른 아르바이트 희망 이유를 살펴보면 남녀 학생 약 70%가 용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

- 출신지역별

출신지역에 따른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이유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73과 같다.

표 73. 출신지역별 아르바이트 희망 이유

		지역구분		전체
		도내	도외	
아르바이트 희망 이유	폭넓은 사회경험 쌓기	110 7.6%	46 14.0%	156 8.8%
	용돈 마련	1058 73.6%	191 58.2%	1249 70.7%
	학비 마련	75 5.2%	29 8.8%	104 5.9%
	생활비 마련	161 11.2%	54 16.5%	215 12.2%
	기타	34 2.4%	8 2.4%	42 2.4%
전체		1438 100.0%	328 100.0%	176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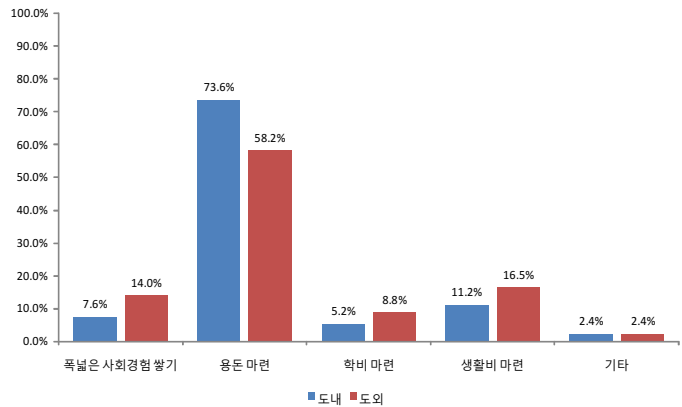


그림 48. 출신지역별 아르바이트 희망 이유

출신지역에 따른 아르바이트 희망 이유를 살펴보면 도내 출신 학생들의 73.6%가 용돈 마련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11.2%가 생활비 마련이라고 응답하였다. 도외 출신 학생들은 58.2%가 용돈 마련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14.0% 학생이 폭넓은 사회경험을 쌓기 위해라고 응답하였다.

7) 활동하고 싶은 동아리

- 단과대학별

단과대학에 따른 활동하고 싶은 동아리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74와 같다.

표 74. 단과대학별 활동하고 싶은 동아리

	대학구분												전체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교육대	수의대	간호대	예술대		
활동하고 싶은 동아리	취업	9 4.0%	12 8.8%	26 8.7%	3 2.3%	1 .9%	9 4.7%	15 5.6%	26 8.4%	0 .0%	1 3.4%	0 .0%	7 10.4%	109 5.7%
	교양 학술	24 10.6%	8 5.9%	12 4.0%	7 5.3%	7 6.2%	14 7.3%	11 4.1%	17 5.5%	5 5.7%	2 6.9%	2 3.7%	3 4.5%	112 5.9%
	스포츠	35 15.5%	21 15.4%	66 22.0%	34 26.0%	20 17.7%	57 29.7%	66 24.4%	76 24.7%	20 23.0%	9 31.0%	3 5.6%	5 7.5%	412 21.5%
	취미	92 40.7%	67 49.3%	111 37.0%	42 32.1%	48 42.5%	63 32.8%	107 39.6%	132 42.9%	47 54.0%	14 48.3%	25 46.3%	41 61.2%	789 41.2%
	종교	1 .4%	2 1.5%	0 .0%	1 .8%	4 3.5%	2 1.0%	3 1.1%	4 1.3%	1 1.1%	0 .0%	1 1.9%	2 3.0%	21 1.1%
	봉사	24 10.6%	15 11.0%	44 14.7%	14 10.7%	14 12.4%	19 9.9%	28 10.4%	19 6.2%	8 9.2%	1 3.4%	20 37.0%	1 1.5%	207 10.8%
	지역 및 사회문제	8 3.5%	3 2.2%	0 .0%	1 .8%	3 2.7%	3 1.6%	2 .7%	2 .6%	0 .0%	0 .0%	0 .0%	0 .0%	22 1.2%
	하고 싶지 않음	33 14.6%	8 5.9%	41 13.7%	29 22.1%	16 14.2%	25 13.0%	38 14.1%	32 10.4%	6 6.9%	2 6.9%	3 5.6%	8 11.9%	241 12.6%
	전체	226 100.0%	136 100.0%	300 100.0%	131 100.0%	113 100.0%	192 100.0%	270 100.0%	308 100.0%	87 100.0%	29 100.0%	54 100.0%	67 100.0%	1913 100.0%

활동하고 싶은 동아리에 대한 질문에 취미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41.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스포츠(21.5%), 봉사(10.8%) 순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모든 대학에서 취미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성별

성별에 따른 활동하고 싶은 동아리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75와 같다.

표 75. 성별 활동하고 싶은 동아리

	성별구분		전체
	남자	여자	
취업	55 5.9%	54 5.5%	109 5.7%
교양 학술	49 5.3%	63 6.4%	112 5.9%
활동하고 싶은 동아리			
스포츠	299 32.2%	113 11.5%	412 21.5%
취미	336 36.2%	453 46.0%	789 41.2%
종교	8 .9%	13 1.3%	21 1.1%
봉사	59 6.4%	148 15.0%	207 10.8%
지역 및 사회문제	12 1.3%	10 1.0%	22 1.2%
하고싶지 않음	110 11.9%	131 13.3%	241 12.6%
전체	928 100.0%	985 100.0%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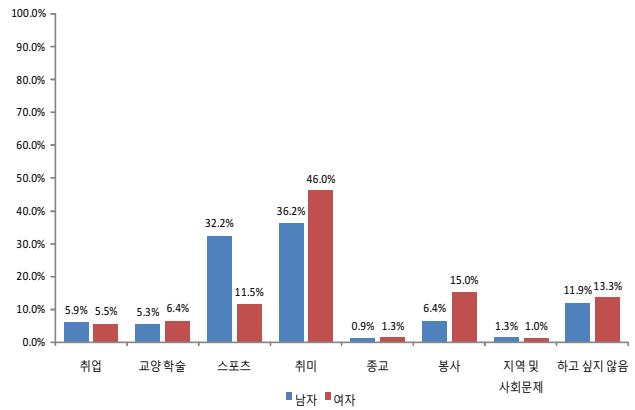


그림 49. 성별 활동하고 싶은 동아리

성별에 따른 활동하고 싶은 동아리를 살펴보면 남학생(36.2%)·여학생(46.0%) 모두 취미와 관련된 동아리를 가장 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두 번째는 남학생은 스포츠(32.2%)였으며 여학생은 봉사(15.0%)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출신지역별

출신지역에 따른 활동하고 싶은 동아리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76과 같다.

표 76. 출신지역별 활동하고 싶은 동아리

	지역구분		전체	
	도내	도외		
활동하고 싶은 동아리	취업	95 6.2%	14 3.8%	109 5.7%
	교양 학술	78 5.1%	34 9.2%	112 5.9%
	스포츠	321 20.8%	91 24.5%	412 21.5%
	취미	648 42.0%	141 38.0%	789 41.2%
	종교	16 1.0%	5 1.3%	21 1.1%
	봉사	176 11.4%	31 8.4%	207 10.8%
	지역 및 사회문제	15 1.0%	7 1.9%	22 1.2%
	하고 싶지 않음	193 12.5%	48 12.9%	241 12.6%
	전체	1542 100.0%	371 100.0%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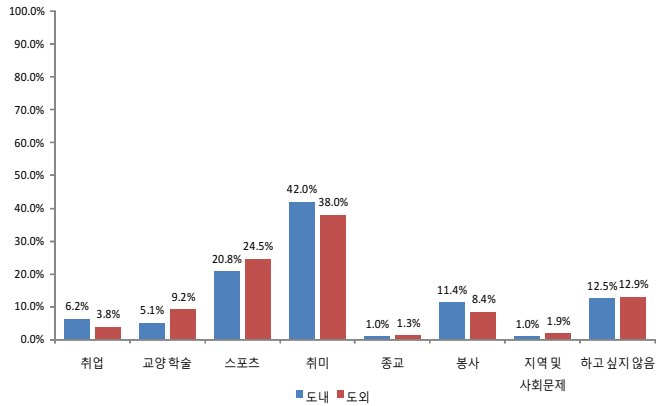


그림 50. 출신지역별 활동하고 싶은 동아리

출신지역에 따른 활동하고 싶은 동아리를 살펴보면 도내 출신 학생(42.0%)·도외 출신 학생(38.0%) 모두 취미와 관련된 동아리를 가장 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8) 동아리 활동 이유

- 단과대학별

단과대학에 따른 동아리 활동 이유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77과 같다.

표 77. 단과대학별 동아리 활동 이유

	대학구분												전체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교육대	수의대	간호대	예술대		
동 아 리 활 동 이 유	자아발견과 인격성숙	7 3.4%	9 6.9%	15 5.4%	8 7.1%	10 9.7%	10 5.7%	20 8.0%	22 7.6%	11 12.6%	0 .0%	3 5.7%	5 8.1%	120 6.8%
	교양지식 습득	7 3.4%	0 .0%	6 2.2%	1 .9%	2 1.9%	4 2.3%	4 1.6%	16 5.6%	0 .0%	1 3.6%	0 .0%	2 3.2%	43 2.4%
	사회봉사	14 6.9%	8 6.2%	18 6.5%	7 6.2%	10 9.7%	6 3.4%	9 3.6%	9 3.1%	1 1.1%	2 7.1%	5 9.4%	4 6.5%	93 5.2%
	폭넓은 인간관계 형성	53 26.0%	42 32.3%	86 30.8%	19 16.8%	26 25.2%	48 27.4%	74 29.6%	89 30.9%	21 24.1%	10 35.7%	16 30.2%	14 22.6%	498 28.1%
	다양한 사회경험 습득	45 22.1%	29 22.3%	60 21.5%	18 15.9%	10 9.7%	32 18.3%	40 16.0%	35 12.2%	10 11.5%	1 3.6%	15 28.3%	14 22.6%	309 17.4%
	소질개발과 취미생활	71 34.8%	34 26.2%	80 28.7%	55 48.7%	38 36.9%	65 37.1%	82 32.8%	101 35.1%	43 49.4%	13 46.4%	12 22.6%	22 35.5%	616 34.8%
	취업 준비	2 1.0%	4 3.1%	6 2.2%	1 .9%	0 .0%	3 1.7%	7 2.8%	7 2.4%	0 .0%	0 .0%	2 3.8%	0 .0%	32 1.8%
	기타	5 2.5%	4 3.1%	8 2.9%	4 3.5%	7 6.8%	7 4.0%	14 5.6%	9 3.1%	1 1.1%	1 3.6%	0 .0%	1 1.6%	61 3.4%
	전체	204 100.0%	130 100.0%	279 100.0%	113 100.0%	103 100.0%	175 100.0%	250 100.0%	288 100.0%	87 100.0%	28 100.0%	53 100.0%	62 100.0%	1772 100.0%

동아리 활동 이유에 대한 질문에 34.8%의 학생들이 소질개발과 취미생활이라고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폭넓은 인간관계 형성(28.1%)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인문대(34.8%), 사범대(48.7%), 생명대(36.9%), 해양대(37.1%), 자연대(32.8%), 공과대(35.1%), 교육대(49.4%), 수의대(46.4%), 예술대(35.5%)는 소질 개발과 취미생활을 위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회대(32.3%), 경상대(30.8%), 간호대(30.2%)의 경우에는 폭넓은 인간관계 형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성별

성별에 따른 동아리 활동 이유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78과 같다.

표 78. 성별 동아리 활동 이유

성별	구분	동아리 활동 이유							전체	
		자아발견과 인격성숙	교양지식 습득	사회봉사	폭넓은 인간관계 형성	다양한 사회경험 습득	소질개발과 취미생활	취업 준비		기타
남자		64 7.4%	28 3.2%	30 3.5%	268 31.0%	113 13.1%	315 36.4%	15 1.7%	32 3.7%	865 100.0%
여자		56 6.2%	15 1.7%	63 6.9%	230 25.4%	196 21.6%	301 33.2%	17 1.9%	29 3.2%	907 100.0%
전체		120 6.8%	43 2.4%	93 5.2%	498 28.1%	309 17.4%	616 34.8%	32 1.8%	61 3.4%	177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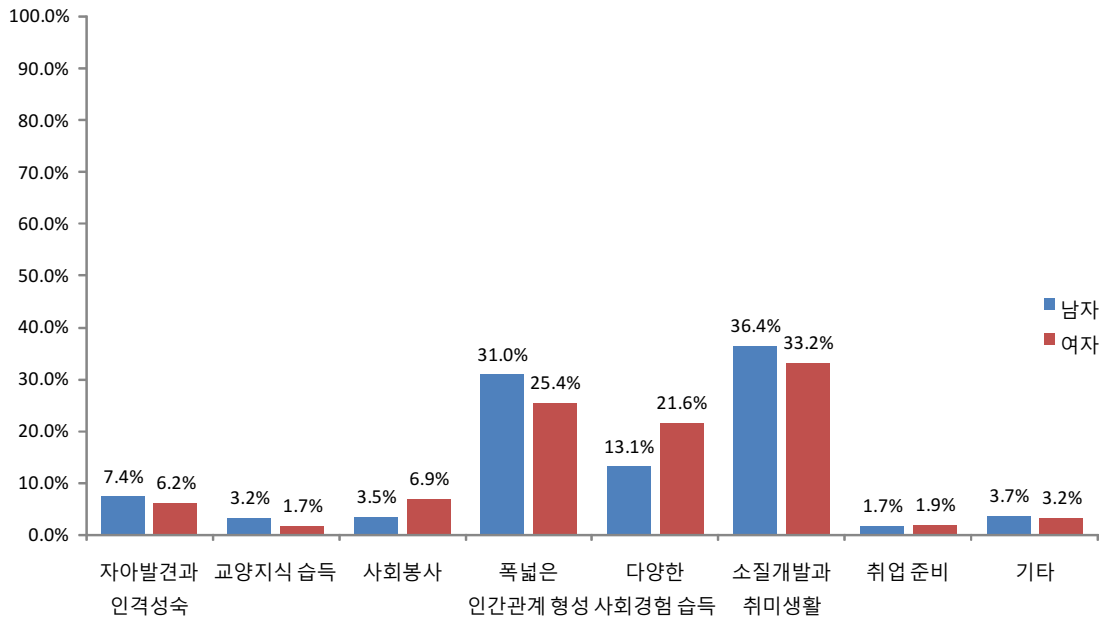


그림 51. 성별 동아리 활동 이유

성별에 따른 동아리 활동 이유를 살펴보면 남학생(36.4%)·여학생(33.2%) 모두 소질개발과 취미생활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폭넓은 인간관계 형성으로 나타났다.

- 출신지역별

출신지역에 따른 동아리 활동 이유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79와 같다.

표 79. 출신지역별 동아리 활동 이유

		동아리 활동 이유							전체	
지역	구분	자아발견과 인격성숙	교양지식 습득	사회봉사	폭넓은 인간관계 형성	다양한 사회경험 습득	소질개발과 취미생활	취업 준비		기타
지역	도내	99 7.0%	35 2.5%	79 5.5%	409 28.7%	253 17.8%	471 33.1%	29 2.0%	49 3.4%	1424 100.0%
	도외	21 6.0%	8 2.3%	14 4.0%	89 25.6%	56 16.1%	145 41.7%	3 .9%	12 3.4%	348 100.0%
전체		120 6.8%	43 2.4%	93 5.2%	498 28.1%	309 17.4%	616 34.8%	32 1.8%	61 3.4%	177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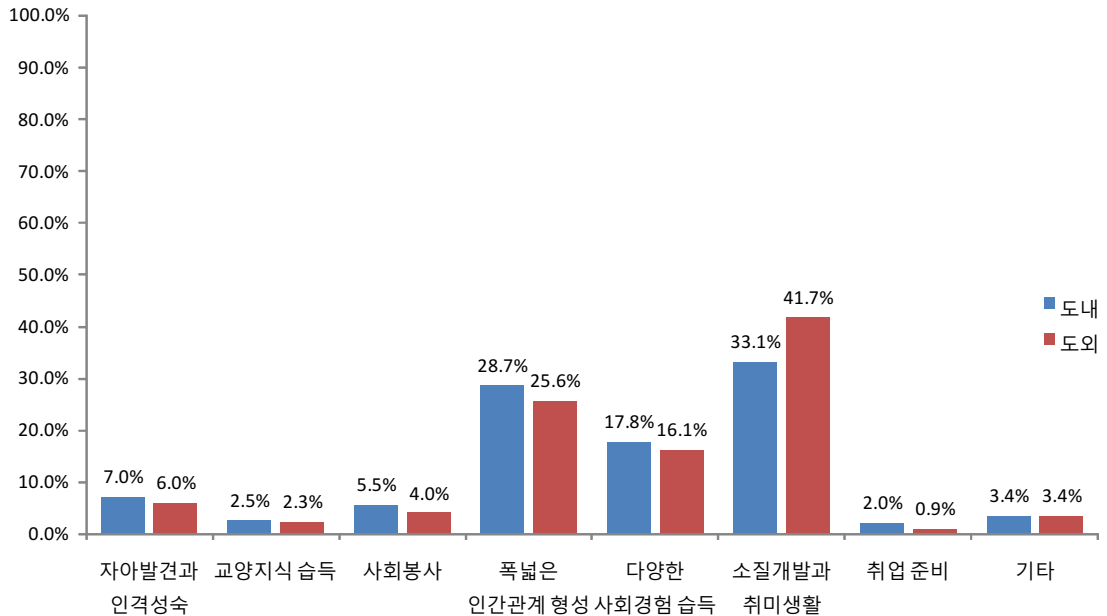


그림 52. 출신지역별 동아리 활동 이유

출신지역별 성별에 따른 동아리 활동 이유를 살펴보면 도내·외 학생 각각 33.1%, 41.7%로 소질개발과 취미생활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폭넓은 인간관계 형성으로 나타났다.

9) 진로와 관련하여 대학생황에서 주력하고 싶은 일

- 단과대학별

단과대학에 따른 진로와 관련하여 대학생황에서 주력하고 싶은 일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80과 같다.

표 80. 단과대학별 진로 관련 대학생황에서 주력하고 싶은 것

진로 관련 대학생황에서 주력하고 싶은 일	대학구분													전체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교육대	수의대	간호대	예술대		
외국어공부	102 45.1%	44 32.4%	119 39.7%	34 26.0%	40 35.4%	66 34.4%	81 30.0%	80 26.0%	23 26.4%	4 13.8%	14 25.9%	22 32.8%	629 32.9%	
전공공부	48 21.2%	30 22.1%	61 20.3%	65 49.6%	39 34.5%	42 21.9%	78 28.9%	86 27.9%	38 43.7%	18 62.1%	34 63.0%	29 43.3%	568 29.7%	
자격증	34 15.0%	24 17.6%	51 17.0%	15 11.5%	18 15.9%	59 30.7%	60 22.2%	81 26.3%	4 4.6%	2 6.9%	1 1.9%	4 6.0%	353 18.5%	
인턴십	14 6.2%	15 11.0%	41 13.7%	6 4.6%	5 4.4%	7 3.6%	18 6.7%	21 6.8%	1 1.1%	2 6.9%	1 1.9%	3 4.5%	134 7.0%	
동아리활동	3 1.3%	4 2.9%	3 1.0%	2 1.5%	2 1.8%	1 .5%	6 2.2%	4 1.3%	9 10.3%	2 6.9%	1 1.9%	0 .0%	37 1.9%	
대인관계	20 8.8%	13 9.6%	18 6.0%	8 6.1%	9 8.0%	13 6.8%	18 6.7%	28 9.1%	9 10.3%	1 3.4%	3 5.6%	9 13.4%	149 7.8%	
기타	5 2.2%	6 4.4%	7 2.3%	1 .8%	0 .0%	4 2.1%	9 3.3%	8 2.6%	3 3.4%	0 .0%	0 .0%	0 .0%	43 2.2%	
전체	226 100.0%	136 100.0%	300 100.0%	131 100.0%	113 100.0%	192 100.0%	270 100.0%	308 100.0%	87 100.0%	29 100.0%	54 100.0%	67 100.0%	1913 100.0%	

진로와 관련하여 대학생황에서 주력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32.9%의 학생들이 외국어공부를 가장 주력하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전공공부(29.7%)를 선택하였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학생들은 각각 45.1%, 32.4%, 39.7%, 35.4%, 34.4%, 30.0%로 외국어 공부를 가장 주력하고 싶다고 하였으며 사범대, 공과대, 교육대, 수의대, 간호대, 예술대는 각각 49.6%, 27.9%, 43.7%, 62.1%, 63.0%, 43.3% 학생들이 전공 공부를 가장 주력하고 싶다고 하였다.

- 성별

성별에 따른 진로와 관련하여 대학생활에 주력하고 싶은 일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81과 같다.

표 81. 성별 진로 관련 대학생활에서 주력하고 싶은 것

	성별구분		전체	
	남자	여자		
주 력 하 고 싶 은 일	외국어 공부	230 24.8%	399 40.5%	629 32.9%
	전공공부	290 31.3%	278 28.2%	568 29.7%
	자격증	208 22.4%	145 14.7%	353 18.5%
	인턴십	48 5.2%	86 8.7%	134 7.0%
	동아리 활동	26 2.8%	11 1.1%	37 1.9%
	대인관계	105 11.3%	44 4.5%	149 7.8%
	기타	21 2.3%	22 2.2%	43 2.2%
	전체	928 100.0%	985 100.0%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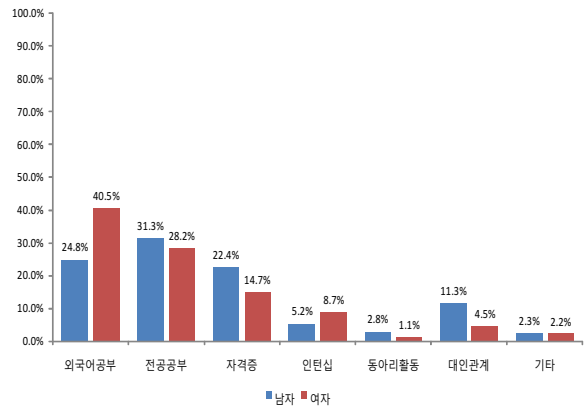


그림 53. 성별 진로 관련 대학생활에서 주력하고 싶은 것

성별에 따라 진로와 관련하여 대학생활에서 주력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남학생들은 전공 공부(31.3%)를 여학생들은 외국어 공부(40.5%)에 가장 주력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 출신지역별

출신지역에 따른 진로와 관련하여 대학생활에 주력하고 싶은 일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82와 같다.

표 82. 출신지역별 진로 관련 대학 생활에서 주력하고 싶은 것

	지역구분		전체	
	도내	도외		
주 력 하 고 싶 은 일	외국어 공부	506 32.8%	123 33.2%	629 32.9%
	전공공부	435 28.2%	133 35.8%	568 29.7%
	자격증	303 19.6%	50 13.5%	353 18.5%
	인턴십	108 7.0%	26 7.0%	134 7.0%
	동아리 활동	29 1.9%	8 2.2%	37 1.9%
	대인관계	126 8.2%	23 6.2%	149 7.8%
	기타	35 2.3%	8 2.2%	43 2.2%
전체	1542 100.0%	371 100.0%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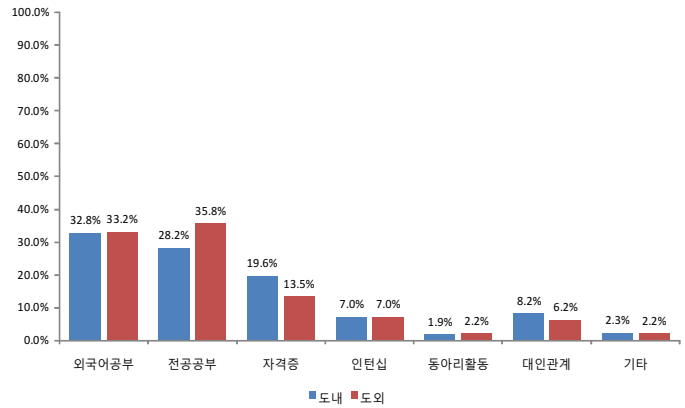


그림 54. 출신지역별 진로 관련 대학 생활에서 주력하고 싶은 것

출신지역에 따라 진로와 관련하여 대학 생활에서 주력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도내 출신 학생들은 외국어 공부(32.8%)를 도외 출신 학생들은 전공 공부(35.8%)에 가장 주력하고 싶다고 하였다.

3. 대학 및 학부(과)선택 관련

1) 입학 전 본교에 대한 인식

- 단과대학별

단과대학에 따른 입학 전 본교에 대한 인식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83과 같다.

표 83. 단과대학별 입학 전 본교에 대한 인식

		대학구분											전체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교육대	수의대	간호대		예술대
입학 전 본교에 대한 인식	아주 좋음	49 21.7%	28 20.6%	68 22.7%	13 9.9%	33 29.2%	47 24.5%	47 17.4%	58 18.8%	12 13.8%	3 10.3%	7 13.0%	16 23.9%	381 19.9%
	조금 좋음	73 32.3%	40 29.4%	109 36.3%	35 26.7%	37 32.7%	57 29.7%	95 35.2%	108 35.1%	23 26.4%	7 24.1%	18 33.3%	13 19.4%	615 32.1%
	보통	97 42.9%	56 41.2%	106 35.3%	55 42.0%	41 36.3%	76 39.6%	110 40.7%	125 40.6%	41 47.1%	14 48.3%	25 46.3%	30 44.8%	776 40.6%
	별로 좋지 않음	7 3.1%	10 7.4%	14 4.7%	26 19.8%	2 1.8%	10 5.2%	16 5.9%	16 5.2%	7 8.0%	4 13.8%	4 7.4%	8 11.9%	124 6.5%
	아주 좋지 않음	0 .0%	2 1.5%	3 1.0%	2 1.5%	0 .0%	2 1.0%	2 .7%	1 .3%	4 4.6%	1 3.4%	0 .0%	0 .0%	17 .9%
전체		226 100.0%	136 100.0%	300 100.0%	131 100.0%	113 100.0%	192 100.0%	270 100.0%	308 100.0%	87 100.0%	29 100.0%	54 100.0%	67 100.0%	1913 100.0%

입학 전 본교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40.6%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32.1% 학생이 조금 좋음, 19.9% 학생이 아주 좋음으로 나타났고 좋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7.4%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경상대를 제외한 대학의 학생들은 보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상대는 조금 좋음이 3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성별

성별에 따른 입학 전 본교에 대한 인식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84와 같다.

표 84. 성별 입학 전 본교에 대한 인식

		성별구분		전체
		남자	여자	
입학 전 본교에 대한 인식	아주 좋음	183 19.7%	198 20.1%	381 19.9%
	조금 좋음	311 33.5%	304 30.9%	615 32.1%
	보통	361 38.9%	415 42.1%	776 40.6%
	별로 좋지 않음	61 6.6%	63 6.4%	124 6.5%
	아주 좋지 않음	12 1.3%	5 .5%	17 .9%
전체		928 100.0%	985 100.0%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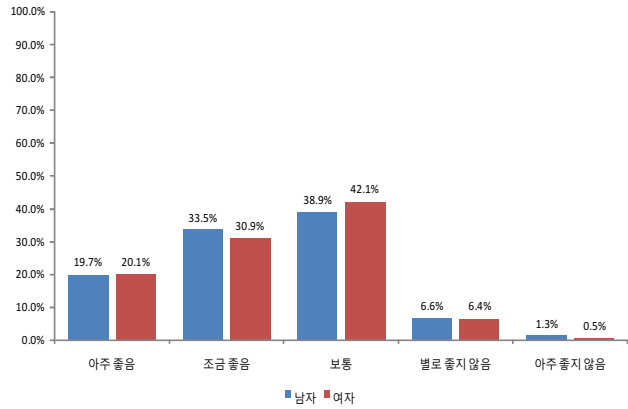


그림 55. 성별 입학 전 본교에 대한 인식

성별에 따른 입학 전 본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약 90%가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 출신지역별

출신지역에 따른 입학 전 본교에 대한 인식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85와 같다.

표 85. 출신지역별 입학 전 본교에 대한 인식

		지역구분		전체
		도내	도외	
입학 전 본교에 대한 인식	아주 좋음	336 21.8%	45 12.1%	381 19.9%
	조금 좋음	512 33.2%	103 27.8%	615 32.1%
	보통	590 38.3%	186 50.1%	776 40.6%
	별로 좋지 않음	96 6.2%	28 7.5%	124 6.5%
	아주 좋지 않음	8 .5%	9 2.4%	17 .9%
전체		1542 100.0%	371 100.0%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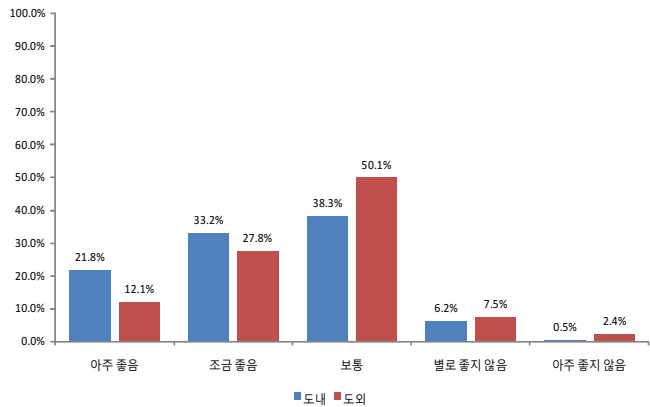


그림 56. 출신지역별 입학 전 본교에 대한 인식

출신지역에 따른 입학 전 본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도내·외 출신 학생 모두 90% 이상 긍정적 이라고 응답하였으며 10% 미만 학생들이 부정적 인식을 나타냈다.

2) 현재 본교에 대한 자긍심

- 단과대학별

단과대학에 따른 현재 본교에 대한 자긍심에 대하여 교차분석 결과는 표 86과 같다.

표 86. 단과대학별 현재 본교에 대한 자긍심

		대학구분												전체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교육대	수의대	간호대	예술대	
현재 본교에 대한 자긍심	매우 자랑스러움	33 14.6%	26 19.1%	62 20.7%	10 7.6%	26 23.0%	28 14.6%	37 13.7%	42 13.6%	16 18.4%	3 10.3%	4 7.4%	16 23.9%	303 15.8%
	자랑스러운 편	90 39.8%	53 39.0%	149 49.7%	63 48.1%	52 46.0%	78 40.6%	104 38.5%	123 39.9%	36 41.4%	7 24.1%	22 40.7%	16 23.9%	793 41.5%
	보통	100 44.2%	55 40.4%	85 28.3%	53 40.5%	35 31.0%	79 41.1%	121 44.8%	140 45.5%	32 36.8%	16 55.2%	27 50.0%	35 52.2%	778 40.7%
	부끄러운 편	2 .9%	2 1.5%	3 1.0%	4 3.1%	0 .0%	6 3.1%	6 2.2%	3 1.0%	1 1.1%	2 6.9%	1 1.9%	0 .0%	30 1.6%
	매우 부끄러움	1 .4%	0 .0%	1 .3%	1 .8%	0 .0%	1 .5%	2 .7%	0 .0%	2 2.3%	1 3.4%	0 .0%	0 .0%	9 .5%
전체		226 100.0%	136 100.0%	300 100.0%	131 100.0%	113 100.0%	192 100.0%	270 100.0%	308 100.0%	87 100.0%	29 100.0%	54 100.0%	67 100.0%	1913 100.0%

현재 본교에 대한 자긍심에 대한 질문에 자랑스러운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41.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40.7%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인문대, 사회대, 자연대, 공과대, 수의대, 간호대, 예술대의 경우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 비율이 각각 44.2%, 40.4%, 44.8%, 45.5%, 55.2%, 50.0%, 52.2%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교육대는 각각 49.7%, 48.1%, 46.0%, 41.4%로 자랑스러운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성별

성별에 따른 현재 본교에 대한 자긍심에 대하여 교차분석 결과는 표 87과 같다.

표 87. 성별 현재 본교에 대한 자긍심

		성별구분		전체
		남자	여자	
현재	매우 자랑스러움	163 17.6%	140 14.2%	303 15.8%
	자랑스러운 편	388 41.8%	405 41.1%	793 41.5%
본교에 대한 자긍심	보통	352 37.9%	426 43.2%	778 40.7%
	부끄러운 편	18 1.9%	12 1.2%	30 1.6%
	매우 부끄러움	7 .8%	2 .2%	9 .5%
전체		928 100.0%	985 100.0%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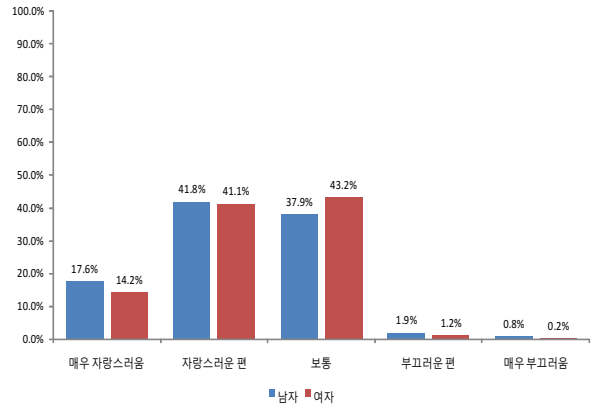


그림 57. 성별 현재 본교에 대한 자긍심

성별에 따른 현재 본교에 대한 자긍심을 살펴보면 남학생들은 자랑스러운 편이라 응답한 비율이 41.8%로 가장 높았으며 여학생은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출신지역별

출신지역에 따른 현재 본교에 대한 자긍심에 대하여 교차분석 결과는 표 88과 같다.

표 88. 출신지역별 현재 본교에 대한 자긍심

		지역구분		전체
		도내	도외	
현재	매우 자랑스러움	248 16.1%	55 14.8%	303 15.8%
	자랑스러운 편	657 42.6%	136 36.7%	793 41.5%
본교에 대한 자긍심	보통	613 39.8%	165 44.5%	778 40.7%
	부끄러운 편	19 1.2%	11 3.0%	30 1.6%
	매우 부끄러움	5 .3%	4 1.1%	9 .5%
전체		1542 100.0%	371 100.0%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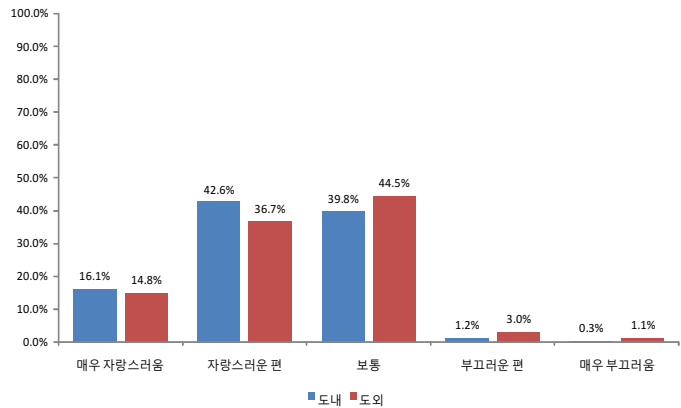


그림 58. 출신지역별 현재 본교에 대한 자긍심

출신 지역에 따른 현재 본교에 대한 자긍심을 살펴보면 도내 출신 학생들은 자랑스러운 편이라 응답한 비율이 42.6%로 가장 높았으며 도외 출신 학생들은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입학한 모집단위(학과, 학부) 선택 시기

- 단과대학별

단과대학에 따른 입학한 모집단위(학과, 학부) 선택 시기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89와 같다.

표 89. 단과대학별 입학한 모집단위 선택 시기

		대 학 구 분											전체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교육대	수의대	간호대		예술대
모 집 단 위	입학원서 접수기간 중	85 37.6%	63 46.3%	104 34.7%	65 49.6%	46 40.7%	94 49.0%	107 39.6%	98 31.8%	38 43.7%	13 44.8%	12 22.2%	18 26.9%	743 38.8%
	고교 3~입학원서 접수 전	106 46.9%	57 41.9%	153 51.0%	53 40.5%	57 50.4%	71 37.0%	116 43.0%	155 50.3%	34 39.1%	9 31.0%	24 44.4%	29 43.3%	864 45.2%
선 택 시 기	고교 1~2학년말	27 11.9%	14 10.3%	38 12.7%	10 7.6%	7 6.2%	22 11.5%	36 13.3%	43 14.0%	13 14.9%	5 17.2%	15 27.8%	14 20.9%	244 12.8%
	중학교 또는 그 이전	8 3.5%	2 1.5%	3 1.0%	3 2.3%	3 2.7%	5 2.6%	11 4.1%	12 3.9%	2 2.3%	2 6.9%	3 5.6%	6 9.0%	60 3.1%
	기타	0 .0%	0 .0%	2 .7%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1%
전체		226 100.0%	136 100.0%	300 100.0%	131 100.0%	113 100.0%	192 100.0%	270 100.0%	308 100.0%	87 100.0%	29 100.0%	54 100.0%	67 100.0%	1913 100.0%

입학한 모집단위(학과, 학부)의 선택 시기에 대한 질문에 고교 3~입학원서 접수 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입학원서 접수기간 중이 38.8%로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생명대, 자연대, 공과대, 간호대, 예술대의 경우에는 고교 3~입학원서 접수 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범대, 해양대, 교육대, 수의대는 입학원서 접수기간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성별

성별에 따른 입학한 모집단위(학과, 학부) 선택 시기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90과 같다.

표 90. 성별 입학한 모집단위 선택 시기

	성별구분		전체	
	남자	여자		
입학한 모집단위 선택 시기	입학원서 접수기간 중	347 37.4%	396 40.2%	743 38.8%
	고교 3~입학원서 접수 전	439 47.3%	425 43.1%	864 45.2%
	고교 1~2학년말	110 11.9%	134 13.6%	244 12.8%
	중학교 또는 그 이전	31 3.3%	29 2.9%	60 3.1%
	기타	1 .1%	1 .1%	2 .1%
전체	928 100.0%	985 100.0%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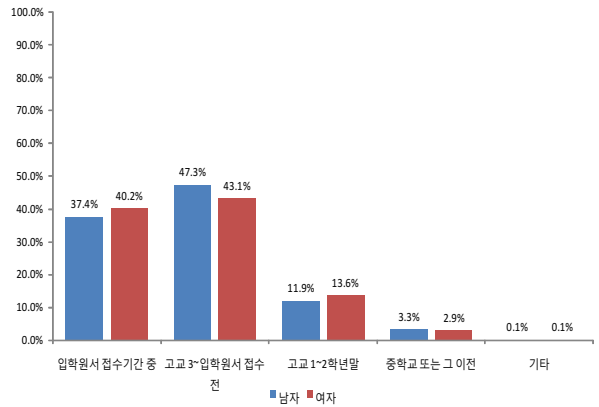


그림 59. 성별 입학한 모집단위 선택 시기

성별에 따른 입학한 모집단위(학과, 학부)의 선택 시기를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 47.3%, 43.1%로 고교 3~입학원서 접수 전에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출신지역별

출신지역에 따른 입학한 모집단위(학과, 학부) 선택 시기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91과 같다.

표 91. 출신지역별 입학한 모집단위 선택 시기

		지역구분		전체
		도내	도외	
입학한 모집단위	입학원서 접수기간 중	563 36.5%	180 48.5%	743 38.8%
	고교 3~입학원서 접수 전	723 46.9%	141 38.0%	864 45.2%
선택 시기	고교 1~2학년말	203 13.2%	41 11.1%	244 12.8%
	중학교 또는 그 이전	51 3.3%	9 2.4%	60 3.1%
	기타	2 .1%	0 .0%	2 .1%
전체		1542 100.0%	371 100.0%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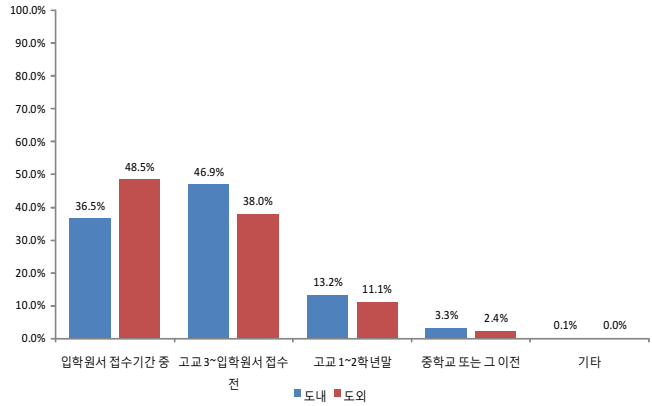


그림 60. 출신지역별 입학한 모집단위 선택 시기

출신 지역에 따른 입학한 모집단위(학과, 학부)의 선택 시기를 살펴보면 도내 출신 학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에서 입학원서 접수 전까지 선택한 비율이 46.9%로 가장 높았으며 도외 출신 학생들은 입학원서 접수기간 중이라고 선택한 비율이 4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학과 선택 시 우선 고려 사항

- 단과대학별

단과대학에 따른 학과 선택 시 우선 고려사항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92와 같다.

학과 선택 시 우선 고려 사항에 대한 질문에 합격 가능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적성(20.4%), 학문적 흥미(16.6%), 취직률과 취업전망(12.2%) 순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인문대, 경상대는 각각 25.2%, 18.0%로 학문적 흥미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공과대는 각각 21.3%, 27.5%, 28.3%, 30.7%, 22.7%로 합격 가능성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연대, 교육대, 수의대, 예술대는 각각 29.6%, 33.3%, 31.0%, 35.8%로 적성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간호대의 경우에는 취직률과 취업전망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4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92. 단과대학별 학과 선택 시 우선 고려 사항

		대학구분										전체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교육대	수의대		간호대	예술대
학과 선택 시 우선 고려 사항	합격 가능성	63 27.9%	29 21.3%	52 17.3%	36 27.5%	32 28.3%	59 30.7%	52 19.3%	70 22.7%	6 6.9%	0 .0%	3 5.6%	17 25.4%	419 21.9%
	학과 명성	3 1.3%	6 4.4%	14 4.7%	7 5.3%	2 1.8%	4 2.1%	1 .4%	11 3.6%	0 .0%	6 20.7%	1 1.9%	0 .0%	55 2.9%
	적성	48 21.2%	21 15.4%	51 17.0%	22 16.8%	26 23.0%	30 15.6%	80 29.6%	46 14.9%	29 33.3%	9 31.0%	4 7.4%	24 35.8%	390 20.4%
	학문적 흥미	57 25.2%	17 12.5%	54 18.0%	17 13.0%	13 11.5%	24 12.5%	48 17.8%	59 19.2%	2 2.3%	5 17.2%	5 9.3%	16 23.9%	317 16.6%
	취직률과 취업전망	13 5.8%	16 11.8%	38 12.7%	12 9.2%	8 7.1%	14 7.3%	34 12.6%	47 15.3%	24 27.6%	2 6.9%	25 46.3%	1 1.5%	234 12.2%
	미래 비전	16 7.1%	15 11.0%	39 13.0%	10 7.6%	18 15.9%	16 8.3%	18 6.7%	21 6.8%	9 10.3%	3 10.3%	8 14.8%	1 1.5%	174 9.1%
	주변사람 권유	12 5.3%	9 6.6%	13 4.3%	17 13.0%	5 4.4%	23 12.0%	18 6.7%	23 7.5%	9 10.3%	0 .0%	3 5.6%	4 6.0%	136 7.1%
	어렸을 때부터 원함	3 1.3%	3 2.2%	5 1.7%	3 2.3%	0 .0%	7 3.6%	4 1.5%	8 2.6%	7 8.0%	3 10.3%	2 3.7%	4 6.0%	49 2.6%
	뚜렷한 이유 없음	11 4.9%	20 14.7%	34 11.3%	7 5.3%	9 8.0%	15 7.8%	15 5.6%	23 7.5%	1 1.1%	1 3.4%	3 5.6%	0 .0%	139 7.3%
	전체	226 100.0%	136 100.0%	300 100.0%	131 100.0%	113 100.0%	192 100.0%	270 100.0%	308 100.0%	87 100.0%	29 100.0%	54 100.0%	67 100.0%	1913 100.0%

-. 성별

성별에 따른 학과 선택 시 우선 고려사항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93과 같다.

표 93. 성별 학과 선택 시 우선 고려 사항

		학과 선택 시 우선 고려 사항								전체	
		합격 가능성	학과 명성	적성	학문적 흥미	취직률 취업전망	미래비 전	주변사 람 권유	어렸을 때부터 원함		뚜렷한 이유 없음
성별 구분	남자	205 22.1%	30 3.2%	193 20.8%	149 16.1%	103 11.1%	90 9.7%	63 6.8%	20 2.2%	75 8.1%	928 100.0%
	여자	214 21.7%	25 2.5%	197 20.0%	168 17.1%	131 13.3%	84 8.5%	73 7.4%	29 2.9%	64 6.5%	985 100.0%
전체		419 21.9%	55 2.9%	390 20.4%	317 16.6%	234 12.2%	174 9.1%	136 7.1%	49 2.6%	139 7.3%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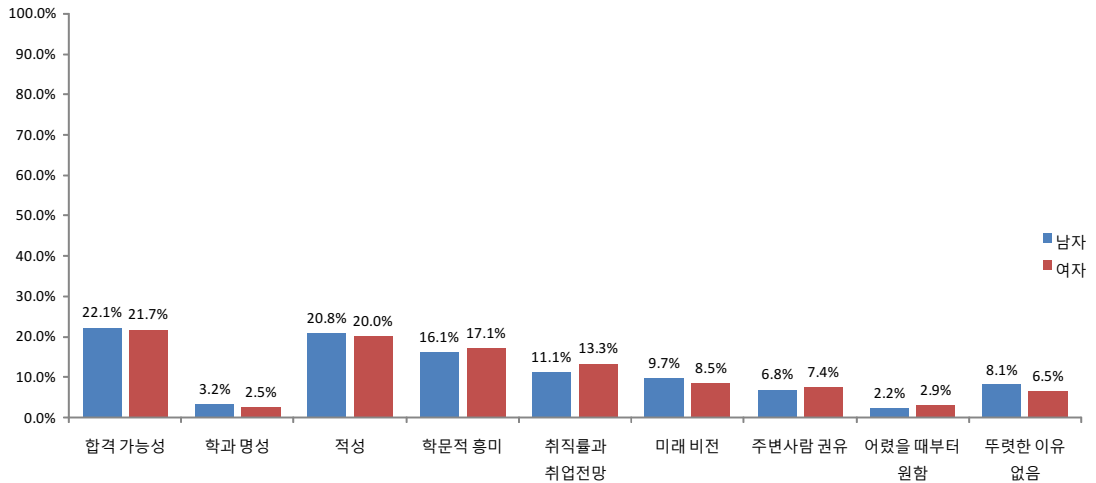


그림 61. 성별 학과 선택 시 우선 고려 사항

성별에 따른 학과 선택 시 우선 고려 사항을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22.1%, 21.7%로 합격 가능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출신지역별

출신지역에 따른 학과 선택 시 우선 고려사항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94와 같다.

표 94. 출신지역별 학과 선택 시 우선 고려 사항

		학과 선택 시 우선 고려 사항									
		합격 가능성	학과 명성	적성	학문적 흥미	취직률과 취업전망	미래비전	주변사람 권유	어렸을 때부터 원함	뚜렷한 이유 없음	전체
지역	도내	358 23.2%	42 2.7%	292 18.9%	254 16.5%	190 12.3%	136 8.8%	118 7.7%	29 1.9%	123 8.0%	1542 100.0%
구분	도외	61 16.4%	13 3.5%	98 26.4%	63 17.0%	44 11.9%	38 10.2%	18 4.9%	20 5.4%	16 4.3%	371 100.0%
전체		419 21.9%	55 2.9%	390 20.4%	317 16.6%	234 12.2%	174 9.1%	136 7.1%	49 2.6%	139 7.3%	1913 100.0%

출신 지역에 따른 학과 선택 시 우선 고려 사항을 살펴보면 도내 출신 학생들은 합격 가능성(23.2%)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도외 출신 학생들은 적성(26.4%)이 학과 선택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된 사항이라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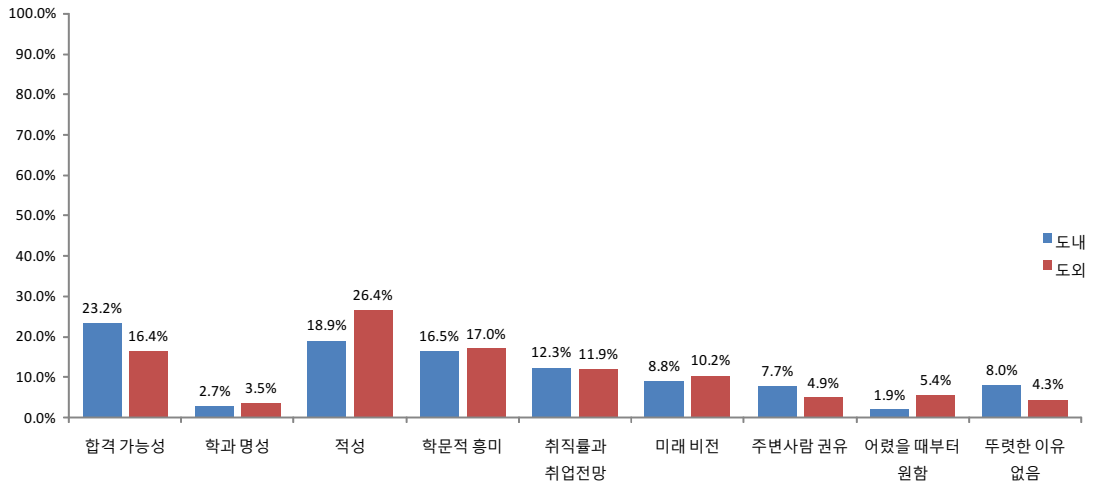


그림 62. 출신지역별 학과 선택 시 우선 고려 사항

5) 본교 선택 시 우선 고려 사항

- 단과대학별

단과대학에 따른 본교 선택 시 우선 고려 사항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95와 같다.

표 95. 단과대학별 본교 선택 시 우선 고려 사항

		대학구분												전체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교육대	수의대	간호대	예술대	
본교 선택 시	자신의 적성과 취향	47 20.8%	24 17.6%	78 26.0%	24 18.3%	25 22.1%	46 24.0%	62 23.0%	57 18.5%	25 28.7%	14 48.3%	5 9.3%	28 41.8%	435 22.7%
	가까운 지역	86 38.1%	52 38.2%	101 33.7%	48 36.6%	36 31.9%	40 20.8%	88 32.6%	121 39.3%	15 17.2%	2 6.9%	18 33.3%	15 22.4%	622 32.5%
	우수한 교수진 및 연구활동	4 1.8%	3 2.2%	4 1.3%	0 .0%	5 4.4%	6 3.1%	7 2.6%	5 1.6%	0 .0%	0 .0%	1 1.9%	0 .0%	35 1.8%
우선 고려 사항	합격가능성	53 23.5%	38 27.9%	66 22.0%	43 32.8%	26 23.0%	57 29.7%	60 22.2%	63 20.5%	16 18.4%	8 27.6%	12 22.2%	23 34.3%	465 24.3%
	취업전망	9 4.0%	6 4.4%	30 10.0%	8 6.1%	10 8.8%	25 13.0%	22 8.1%	26 8.4%	19 21.8%	2 6.9%	9 16.7%	0 .0%	166 8.7%
	장학 및 복지제도	11 4.9%	5 3.7%	12 4.0%	2 1.5%	5 4.4%	6 3.1%	12 4.4%	18 5.8%	0 .0%	0 .0%	2 3.7%	0 .0%	73 3.8%
	기타	16 7.1%	8 5.9%	9 3.0%	6 4.6%	6 5.3%	12 6.3%	19 7.0%	18 5.8%	12 13.8%	3 10.3%	7 13.0%	1 1.5%	117 6.1%
전체		226 100.0%	136 100.0%	300 100.0%	131 100.0%	113 100.0%	192 100.0%	270 100.0%	308 100.0%	87 100.0%	29 100.0%	54 100.0%	67 100.0%	1913 100.0%

본교 선택 시 우선 고려 사항에 대한 질문에 가까운 지역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합격 가능성(24.3%), 자신의 적성과 취향(22.7%) 순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자연대, 공과대, 간호대는 가까운 지역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해양대는 합격 가능성, 교육대와 수의대, 예술대는 자신의 적성과 취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성별

성별에 따른 본교 선택 시 우선 고려 사항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96과 같다.

표 96. 성별 본교 선택 시 우선 고려 사항

	본교 선택 시 우선 고려 사항							전체
	자신의 적성과 취향	가까운 지역	우수한 교수진 및 연구활동	합격 가능성	취업전망	장학 및 복지제도	기타	
성별								
남자	205 22.1%	311 33.5%	21 2.3%	224 24.1%	83 8.9%	32 3.4%	52 5.6%	928 100.0%
구분								
여자	230 23.4%	311 31.6%	14 1.4%	241 24.5%	83 8.4%	41 4.2%	65 6.6%	985 100.0%
전체	435 22.7%	622 32.5%	35 1.8%	465 24.3%	166 8.7%	73 3.8%	117 6.1%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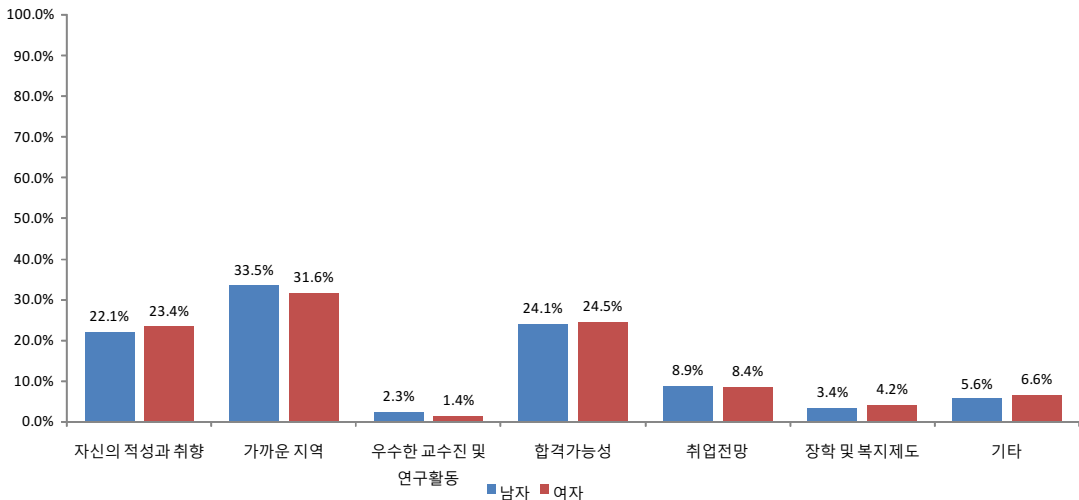


그림 63. 성별 본교 선택 시 우선 고려 사항

성별에 따른 본교 선택 시 우선 고려 사항을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지역적으로 가까워서가 33.5%, 3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출신지역별

출신지역에 따른 본교 선택 시 우선 고려 사항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97과 같다.

표 97. 출신지역별 본교 선택 시 우선 고려 사항

		본교 선택 시 우선 고려 사항							
		자신의 적성과 취향	가까운 지역	우수한 교수진 및 연구활동	합격가능 성	취업전망	장학 및 복지제도	기타	전체
지역	도내	313 20.3%	609 39.5%	25 1.6%	358 23.2%	126 8.2%	51 3.3%	60 3.9%	1542 100.0%
구분	도외	122 32.9%	13 3.5%	10 2.7%	107 28.8%	40 10.8%	22 5.9%	57 15.4%	371 100.0%
전체		435 22.7%	622 32.5%	35 1.8%	465 24.3%	166 8.7%	73 3.8%	117 6.1%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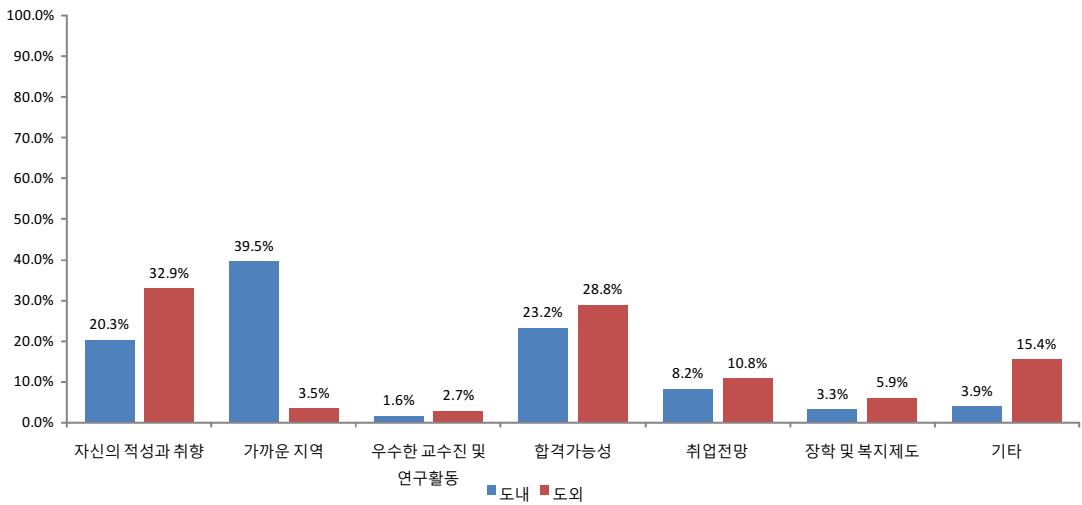


그림 64. 출신지역별 본교 선택 시 우선 고려 사항

출신 지역에 따른 본교 선택 시 우선 고려 사항을 살펴보면 도내 출신 학생들은 가까운 지역이 3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합격 가능성(23.2%)이 높게 나타났다. 도외 출신 학생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적성과 취향이 3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합격 가능성(28.8%)이 높게 나타났다.

6) 본교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

- 단과대학별

단과대학에 따른 본교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98과 같다.

표 98. 단과대학별 본교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영향 요인

	대 학 구 분												전체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교육대	수의대	간호대	예술대		
본 교 선 택 시 가 장 중 요 한 영 향 요 인	합격가능성	64 28.3%	38 27.9%	67 22.3%	33 25.2%	26 23.0%	60 31.3%	75 27.8%	77 25.0%	22 25.3%	9 31.0%	6 11.1%	22 32.8%	499 26.1%
	학교의 명성	13 5.8%	3 2.2%	14 4.7%	0 .0%	8 7.1%	8 4.2%	12 4.4%	13 4.2%	0 .0%	1 3.4%	1 1.9%	5 7.5%	78 4.1%
	집에서 등교	50 22.1%	28 20.6%	61 20.3%	28 21.4%	23 20.4%	26 13.5%	47 17.4%	67 21.8%	7 8.0%	3 10.3%	10 18.5%	12 17.9%	362 18.9%
	경제적 문제	23 10.2%	12 8.8%	24 8.0%	15 11.5%	1 .9%	7 3.6%	21 7.8%	23 7.5%	1 1.1%	0 .0%	8 14.8%	5 7.5%	140 7.3%
	취직률과 취업전망	5 2.2%	11 8.1%	24 8.0%	7 5.3%	5 4.4%	22 11.5%	13 4.8%	22 7.1%	20 23.0%	5 17.2%	8 14.8%	3 4.5%	145 7.6%
	원하는 학과	26 11.5%	17 12.5%	56 18.7%	25 19.1%	33 29.2%	34 17.7%	48 17.8%	45 14.6%	21 24.1%	9 31.0%	10 18.5%	10 14.9%	334 17.5%
	주변사람 권유	18 8.0%	16 11.8%	20 6.7%	15 11.5%	8 7.1%	17 8.9%	31 11.5%	25 8.1%	11 12.6%	0 .0%	6 11.1%	3 4.5%	170 8.9%
	외국 유학의 특전	7 3.1%	2 1.5%	8 2.7%	0 .0%	1 .9%	0 .0%	0 .0%	4 1.3%	0 .0%	0 .0%	0 .0%	3 4.5%	25 1.3%
	뚜렷한 이유 없음	20 8.8%	9 6.6%	26 8.7%	8 6.1%	8 7.1%	18 9.4%	23 8.5%	32 10.4%	5 5.7%	2 6.9%	5 9.3%	4 6.0%	160 8.4%
	전체	226 100.0%	136 100.0%	300 100.0%	131 100.0%	113 100.0%	192 100.0%	270 100.0%	308 100.0%	87 100.0%	29 100.0%	54 100.0%	67 100.0%	1913 100.0%

본교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영향 요인에 대한 질문에 합격 가능성이 2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집에서 등교(18.9%), 원하는 학과(17.5%), 주변 사람 권유(8.9%), 뚜렷한 이유 없음(8.4%), 취직률과 취업전망(7.6%), 경제적 문제(7.3%), 학교의 명성(4.1%), 외국 유학의 특전(1.3%) 순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사범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교육대, 예술대는 합격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고 생명대와 간호대는 원하는 학과가 가장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수의대의

경우에는 합격가능성과 원하는 학과가 가장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 성별

성별에 따른 본교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99와 같다.

표 99. 성별 본교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영향 요인

		본교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영향 요인									
		합격가능성	학교의 명성	집에서 등교	경제적 문제	취직률과 취업전망	원하는 학과	주변사람 권유	외국 유학의 특전	뚜렷한 이유 없음	전체
성별 구분	남자	235 25.3%	44 4.7%	187 20.2%	63 6.8%	79 8.5%	156 16.8%	72 7.8%	6 0.6%	86 9.3%	928
	여자	264 26.8%	34 3.5%	175 17.8%	77 7.8%	66 6.7%	178 18.1%	98 9.9%	19 1.9%	74 7.5%	985
전체		499 26.1%	78 4.1%	362 18.9%	140 7.3%	145 7.6%	334 17.5%	170 8.9%	25 1.3%	160 8.4%	19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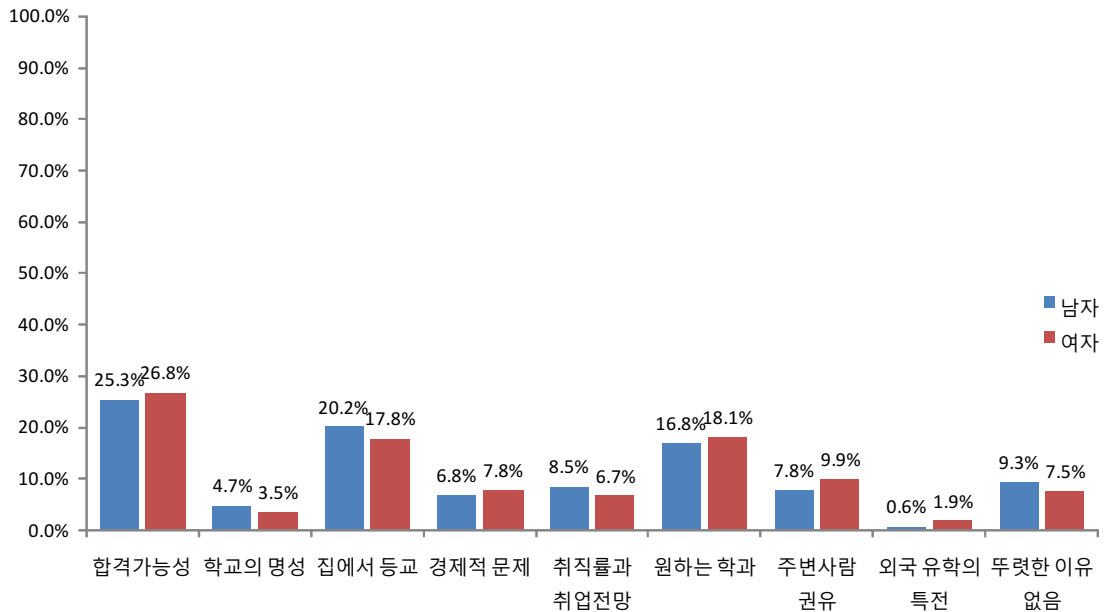


그림 65. 성별 본교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영향 요인

성별에 따른 본교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영향 요인을 살펴보면 남녀 학생 모두 합격가능성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 출신지역별

출신지역에 따른 본교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00과 같다.

표 100. 출신지역별 본교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영향 요인

		본교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영향 요인									
		합격 가능성	학교의 명성	집에서 등교	경제적 문제	취직률과 취업전망	원하는 학과	주변사 람 권유	외국 유학의 특전	뚜렷한 이유 없음	전체
지역	도내	397 25.7%	67 4.3%	351 22.8%	122 7.9%	110 7.1%	219 14.2%	136 8.8%	21 1.4%	119 7.7%	1542 100.0%
구분	도외	102 27.5%	11 3.0%	11 3.0%	18 4.9%	35 9.4%	115 31.0%	34 9.2%	4 1.1%	41 11.1%	371 100.0%
전체		499 26.1%	78 4.1%	362 18.9%	140 7.3%	145 7.6%	334 17.5%	170 8.9%	25 1.3%	160 8.4%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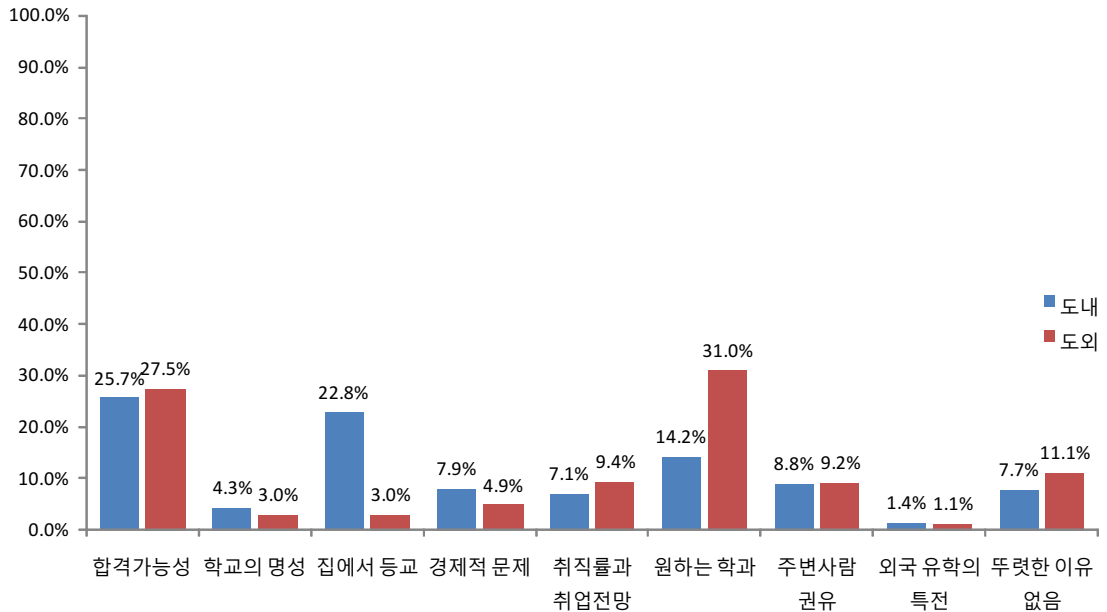


그림 66. 출신지역별 본교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영향 요인

출신 지역에 따른 본교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영향 요인을 살펴보면 도내 출신 학생들은 합격 가능성이 25.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집에서 의 등교가 22.8%로 높게 나타났다. 도외 출신 학생들의 경우에는 원하는 학과가 31.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합격가능성이 27.5%로 그 다음 높게 나타났다.

7) 본교에 대한 정보 수집에 도움이 된 매체(대상)

- 단과대학별

단과대학에 따른 본교에 대한 정보 수집에 도움이 된 매체(대상)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01과 같다.

표 101. 단과대학별 본교에 대한 정보 수집에 도움이 된 매체

		대학구분												전체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교육대	수의대	간호대	예술대	
본 교 에 대 한	교사	44 19.5%	22 16.2%	42 14.0%	40 30.5%	20 17.7%	41 21.4%	42 15.6%	49 15.9%	17 19.5%	4 13.8%	6 11.1%	16 23.9%	343 17.9%
	가족, 친척, 선배, 친구	123 54.4%	76 55.9%	186 62.0%	60 45.8%	67 59.3%	83 43.2%	154 57.0%	171 55.5%	42 48.3%	10 34.5%	36 66.7%	31 46.3%	1039 54.3%
정 보 수 집	신입생 홍보물(모집요강)	12 5.3%	12 8.8%	19 6.3%	4 3.1%	9 8.0%	20 10.4%	22 8.1%	28 9.1%	6 6.9%	3 10.3%	1 1.9%	7 10.4%	143 7.5%
	제주대 입학안내 홈페이지	17 7.5%	9 6.6%	10 3.3%	8 6.1%	4 3.5%	14 7.3%	17 6.3%	8 2.6%	4 4.6%	4 13.8%	4 7.4%	4 6.0%	103 5.4%
도 움	신문, TV 등	1 .4%	0 .0%	3 1.0%	2 1.5%	0 .0%	2 1.0%	1 .4%	6 1.9%	0 .0%	0 .0%	1 1.9%	0 .0%	16 .8%
매 체	기타	29 12.8%	17 12.5%	40 13.3%	17 13.0%	13 11.5%	32 16.7%	34 12.6%	46 14.9%	18 20.7%	8 27.6%	6 11.1%	9 13.4%	269 14.1%
	전체	226 100.0%	136 100.0%	300 100.0%	131 100.0%	113 100.0%	192 100.0%	270 100.0%	308 100.0%	87 100.0%	29 100.0%	54 100.0%	67 100.0%	1913 100.0%

본교에 대한 정보 수집에 도움이 된 매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가족, 친척, 선배, 친구라고 응답한 비율이 5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교사(17.9%)로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모든 단과대학이 가족, 친척, 선배, 친구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성별

성별에 따른 본교에 대한 정보 수집에 도움이 된 매체(대상)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02와 같다.

표 102. 성별 본교에 대한 정보 수집에 도움이 된 매체

		본교에 대한 정보 수집에 도움이 된 매체					전체	
		교사	가족, 친척, 선배, 친구	신입생 홍보물 (모집요강)	제주대 입학안내 홈페이지	신문, TV		기타
성별 구분	남자	163 17.6%	490 52.8%	67 7.2%	45 4.8%	12 1.3%	151 16.3%	928 100.0%
	여자	180 18.3%	549 55.7%	76 7.7%	58 5.9%	4 0.4%	118 12.0%	985 100.0%
전체		343 17.9%	1039 54.3%	143 7.5%	103 5.4%	16 0.8%	269 14.1%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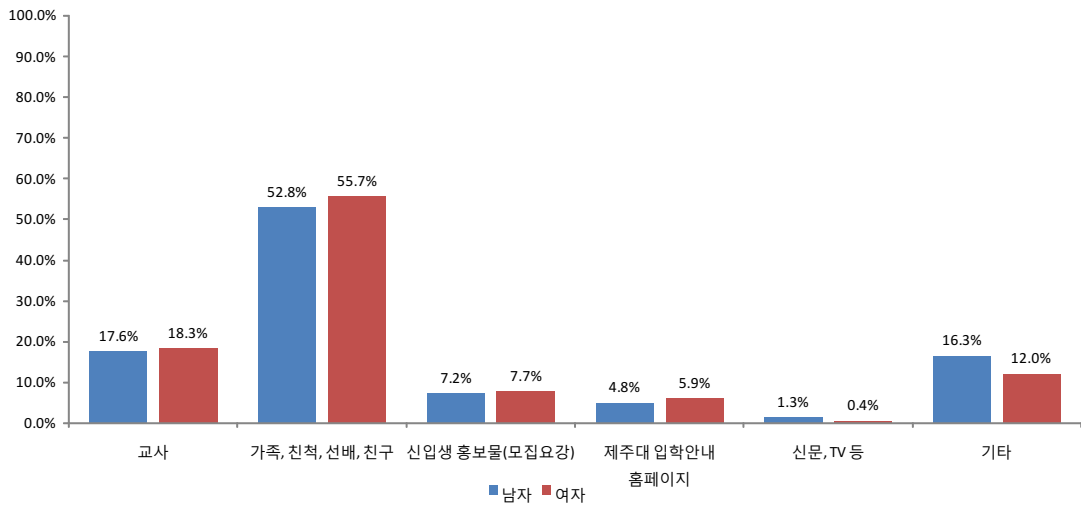


그림 67. 성별 본교에 대한 정보 수집에 도움이 된 매체

성별에 따른 본교에 대한 정보 수집에 도움이 된 매체를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 52.8%, 55.7%로 가족, 친척, 선배, 친구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출신지역별

출신지역에 따른 본교에 대한 정보 수집에 도움이 된 매체(대상)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03과 같다.

표 103. 출신지역별 본교에 대한 정보 수집에 도움이 된 매체

		본교에 대한 정보 수집에 도움이 된 매체						전체
		교사	가족, 친척, 선배, 친구	신입생 홍보물 (모집요강)	제주대 입학안내 홈페이지	신문, TV	기타	
지역	도내	290 18.8%	893 57.9%	108 7.0%	61 4.0%	11 0.7%	179 11.6%	1542 100.0%
구분	도외	53 14.3%	146 39.4%	35 9.4%	42 11.3%	5 1.3%	90 24.3%	371 100.0%
전체		343 17.9%	1039 54.3%	143 7.5%	103 5.4%	16 0.8%	269 14.1%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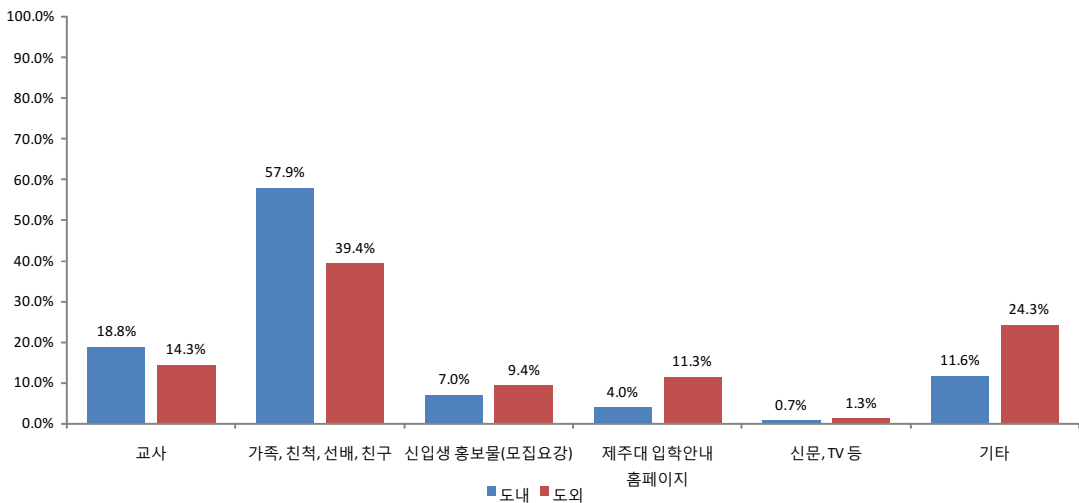


그림 68. 출신지역별 본교에 대한 정보 수집에 도움이 된 매체

출신 지역에 따른 본교에 대한 정보 수집에 도움이 된 매체를 살펴보면 도내 출신 학생들과 도외 출신 학생들 각각 57.9%, 39.4%로 가족, 친척, 선배, 친구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8) 본교에 대한 정보 수집에 가장 큰 도움이 된 것

- 단과대학별

단과대학에 따른 본교에 대한 정보 수집에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04와 같다.

표 104. 단과대학별 본교에 대한 정보 원천

	대학구분												전체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교육대	수의대	간호대	예술대		
본 교 에 대 한 정 보 원 천	입시전문 포털사이트	38 16.8%	19 14.0%	31 10.3%	16 12.2%	13 11.5%	37 19.3%	36 13.3%	42 13.6%	31 35.6%	8 27.6%	4 7.4%	10 14.9%	285 14.9%
	본교발행 입시용 안내책자	30 13.3%	18 13.2%	46 15.3%	17 13.0%	18 15.9%	32 16.7%	38 14.1%	61 19.8%	3 3.4%	1 3.4%	8 14.8%	6 9.0%	278 14.5%
	신문광고	2 .9%	5 3.7%	3 1.0%	0 .0%	0 .0%	0 .0%	3 1.1%	1 .3%	0 .0%	1 3.4%	0 .0%	0 .0%	15 .8%
	상업용 대학정보 책자	0 .0%	1 .7%	2 .7%	5 3.8%	4 3.5%	4 2.1%	5 1.9%	7 2.3%	3 3.4%	0 .0%	1 1.9%	8 11.9%	40 2.1%
	입시지도교사의 정보제공	40 17.7%	32 23.5%	55 18.3%	31 23.7%	21 18.6%	32 16.7%	51 18.9%	43 14.0%	15 17.2%	2 6.9%	10 18.5%	16 23.9%	348 18.2%
	본교 홈페이지 정보	66 29.2%	31 22.8%	94 31.3%	37 28.2%	30 26.5%	46 24.0%	77 28.5%	74 24.0%	17 19.5%	8 27.6%	16 29.6%	15 22.4%	511 26.7%
	제주대 구성원의 정보제공	19 8.4%	11 8.1%	25 8.3%	7 5.3%	14 12.4%	11 5.7%	13 4.8%	32 10.4%	10 11.5%	1 3.4%	4 7.4%	4 6.0%	151 7.9%
	입시박람회	6 2.7%	2 1.5%	17 5.7%	4 3.1%	3 2.7%	6 3.1%	12 4.4%	8 2.6%	0 .0%	0 .0%	2 3.7%	1 1.5%	61 3.2%
	기타	25 11.1%	17 12.5%	27 9.0%	14 10.7%	10 8.8%	24 12.5%	35 13.0%	40 13.0%	8 9.2%	8 27.6%	9 16.7%	7 10.4%	224 11.7%
	전체	226 100.0%	136 100.0%	300 100.0%	131 100.0%	113 100.0%	192 100.0%	270 100.0%	308 100.0%	87 100.0%	29 100.0%	54 100.0%	67 100.0%	1913 100.0%

본교에 대한 정보 수집에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본교 홈페이지 정보 2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입시전문 포털사이트가 14.9%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본교 발행 입시용 안내책자도 14.5%로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단과대학 별로 살펴보면 교육대(35.6%), 수의대(27.6%)는 입시전문 포털사이트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대학들은 본교 홈페이지 정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성별

성별에 따른 본교에 대한 정보 수집에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05와 같다.

표 105. 성별 본교에 대한 정보 원천

		본교에 대한 정보 원천									
		입시전문 포털 사이트	본교발행 입시용 안내책자	신문광고	상업용 대학정보 책자	입시지도 교사의 정보제공	본교 홈페이지 정보	제주대 구성원의 정보제공	입시 박람회	기타	전체
성별	남자	156 16.8%	126 13.6%	9 1.0%	24 2.6%	164 17.7%	210 22.6%	80 8.6%	37 4.0%	122 13.1%	928 100.0%
	여자	129 13.1%	152 15.4%	6 0.6%	16 1.6%	184 18.7%	301 30.6%	71 7.2%	24 2.4%	102 10.4%	985 100.0%
전체		285 14.9%	278 14.5%	15 0.8%	40 2.1%	348 18.2%	511 26.7%	151 7.9%	61 3.2%	224 11.7%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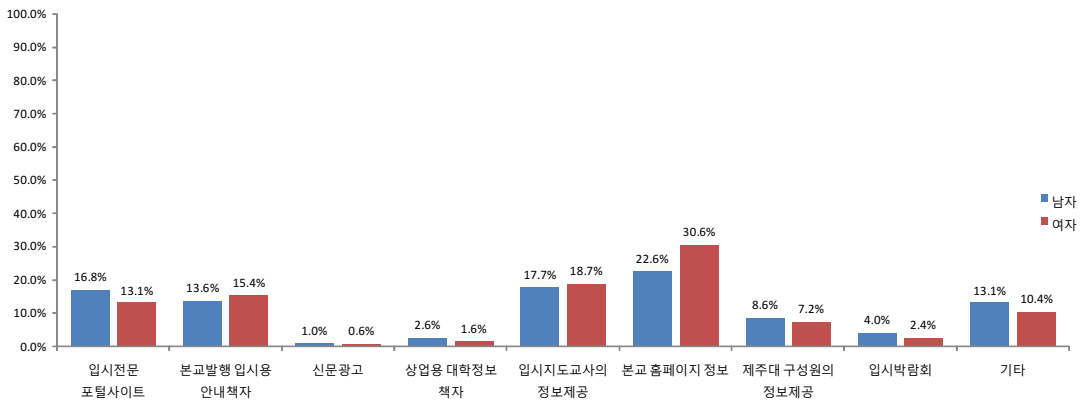


그림 69. 성별 본교에 대한 정보 원천

성별에 따른 본교에 대한 정보 수집에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을 살펴보면 남학생, 여학생 각각 22.6%, 30.6%로 본교 홈페이지 정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두 번째로는 입시지도교사의 정보제공이 남학생, 여학생 각각 17.7%, 18.7%로 높게 나타났다.

- 출신지역별

출신지역에 따른 본교에 대한 정보 수집에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06과 같다.

표 106. 출신지역별 본교에 대한 정보 원천

		본교에 대한 정보 원천									
		입시전문 포털 사이트	본교발행 입시용 안내책자	신문광고	상업용 대학정보 책자	입시지도 교사의 정보제공	본교 홈페이지 정보	제주대 구성원의 정보제공	입시 박람회	기타	전체
지역	도내	191 12.4%	254 16.5%	12 0.8%	31 2.0%	311 20.2%	388 25.2%	132 8.6%	52 3.4%	171 11.1%	1542 100.0%
	도외	94 25.3%	24 6.5%	3 0.8%	9 2.4%	37 10.0%	123 33.2%	19 5.1%	9 2.4%	53 14.3%	371 100.0%
전체		285 14.9%	278 14.5%	15 0.8%	40 2.1%	348 18.2%	511 26.7%	151 7.9%	61 3.2%	224 11.7%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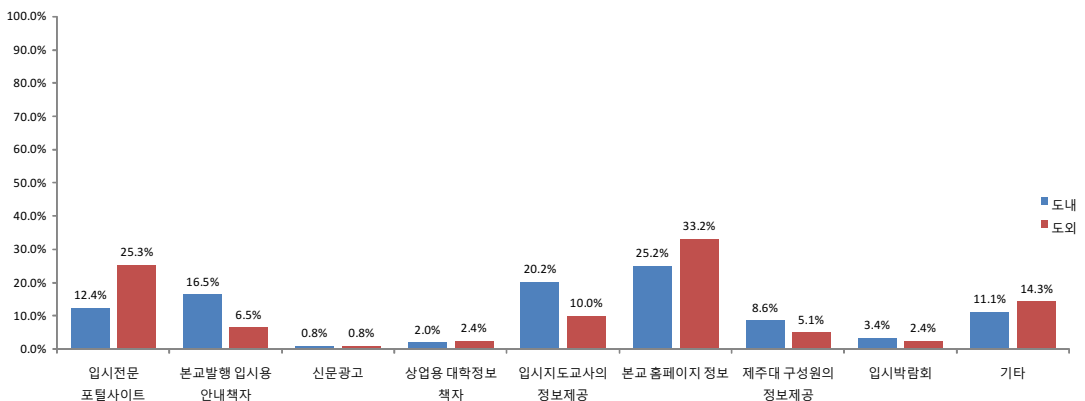


그림 70. 출신지역별 본교에 대한 정보 원천

출신 지역에 따른 본교에 대한 정보 수집에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을 살펴보면 도내 출신 학생, 도외 지역 출신 학생 각각 25.2%, 33.2%로 본교 홈페이지 정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은 도내 출신 학생들은 입시지도교사의 정보제공이 20.2%로 나타났으며 도외 출신 학생들은 입시전문 포털사이트가 25.3%로 나타났다.

9) 입학한 모집단위에 대한 만족도

- 단과대학별

단과대학에 따른 입학한 모집단위에 대한 만족도에 대하여 교차분석 결과는 표 107과 같다.

표 107. 단과대학별 입학한 모집단위에 대한 만족도

		대학구분											전체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교육대	수의대	간호대		예술대
입학한	적성과 취향에 잘 맞음	43	23	68	25	25	34	46	40	32	11	6	29	382
		19.0%	16.9%	22.7%	19.1%	22.1%	17.7%	17.0%	13.0%	36.8%	37.9%	11.1%	43.3%	20.0%
모집단위에	적성과 취향에 맞는 편	110	60	142	60	53	63	126	148	35	13	24	21	855
		48.7%	44.1%	47.3%	45.8%	46.9%	32.8%	46.7%	48.1%	40.2%	44.8%	44.4%	31.3%	44.7%
대한	그저 그러함	63	38	86	39	30	80	84	102	18	3	22	10	575
		27.9%	27.9%	28.7%	29.8%	26.5%	41.7%	31.1%	33.1%	20.7%	10.3%	40.7%	14.9%	30.1%
만족도	적성과 취향에 맞지 않음	8	12	4	4	5	10	9	11	2	1	1	6	73
		3.5%	8.8%	1.3%	3.1%	4.4%	5.2%	3.3%	3.6%	2.3%	3.4%	1.9%	9.0%	3.8%
	적성과 취향에 전혀 맞지 않음	2	3	0	3	0	5	5	7	0	1	1	1	28
		.9%	2.2%	.0%	2.3%	.0%	2.6%	1.9%	2.3%	.0%	3.4%	1.9%	1.5%	1.5%
전체		226	136	300	131	113	192	270	308	87	29	54	67	191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입학한 모집단위(학부, 학과)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 적성과 취향에 맞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저 그러함(30.1%), 적성과 취향에 잘 맞음(20.0%), 맞지 않음(3.8%), 전혀 맞지 않음(1.5%) 순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해양대는 그저 그러함이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예술대는 적성과 취향에 잘 맞음이 4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대학은 모두 적성과 취향에 맞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성별

성별에 따른 입학한 모집단위에 대한 만족도에 대하여 교차분석 결과는 표 108과 같다.

표 108. 성별 입학한 모집단위에 대한 만족도

		성별구분		전체
		남자	여자	
모집단위에 대한 만족도	적성과 취향에 잘 맞춤	186 20.0%	196 19.9%	382 20.0%
	적성과 취향에 맞는 편	415 44.7%	440 44.7%	855 44.7%
	그저 그러함	278 30.0%	297 30.2%	575 30.1%
	적성과 취향에 맞지 않음	33 3.6%	40 4.1%	73 3.8%
	적성과 취향에 전혀 맞지 않음	16 1.7%	12 1.2%	28 1.5%
전체		928 100.0%	985 100.0%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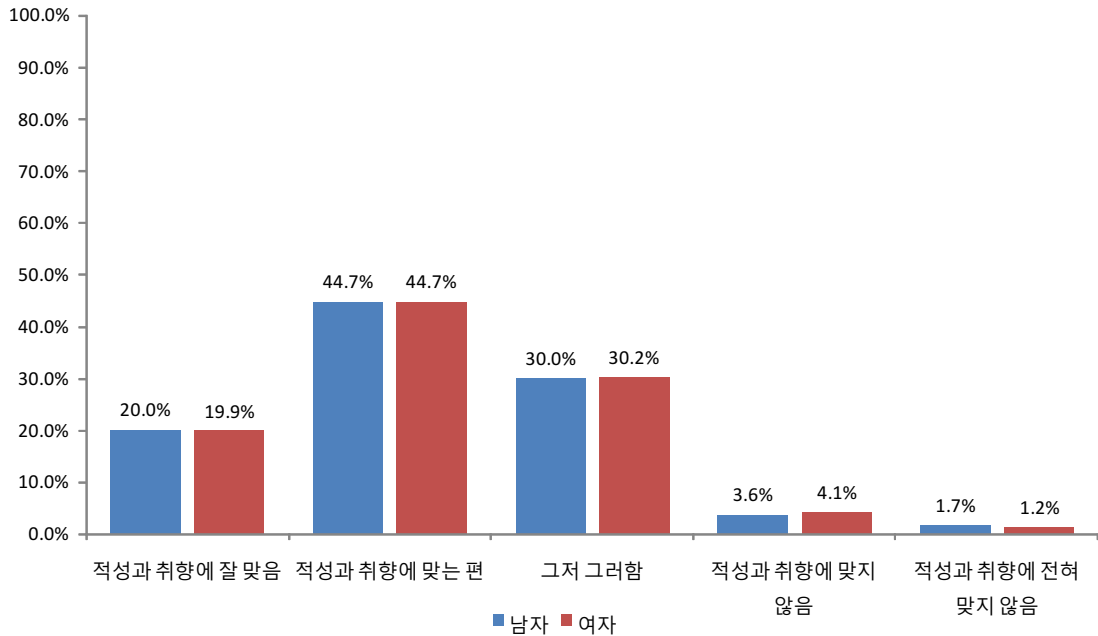


그림 71. 성별 입학한 모집단위에 대한 만족도

성별에 따른 입학한 모집단위(학부, 학과)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남학생, 여학생 모두 44.7%로 적성과 취향에 맞는 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출신지역별

출신지역에 따른 입학한 모집단위에 대한 만족도에 대하여 교차분석 결과는 표 109와 같다.

표 109. 출신지역별 입학한 모집단위에 대한 만족도

		지역구분		전체
		도내	도외	
모집단위에 대한	적성과 취향에 잘 맞춤	268 17.4%	114 30.7%	382 20.0%
	적성과 취향에 맞는 편	698 45.3%	157 42.3%	855 44.7%
	그저 그러함	485 31.5%	90 24.3%	575 30.1%
만족도	적성과 취향에 맞지 않음	65 4.2%	8 2.2%	73 3.8%
	적성과 취향에 전혀 맞지 않음	26 1.7%	2 .5%	28 1.5%
전체		1542 100.0%	371 100.0%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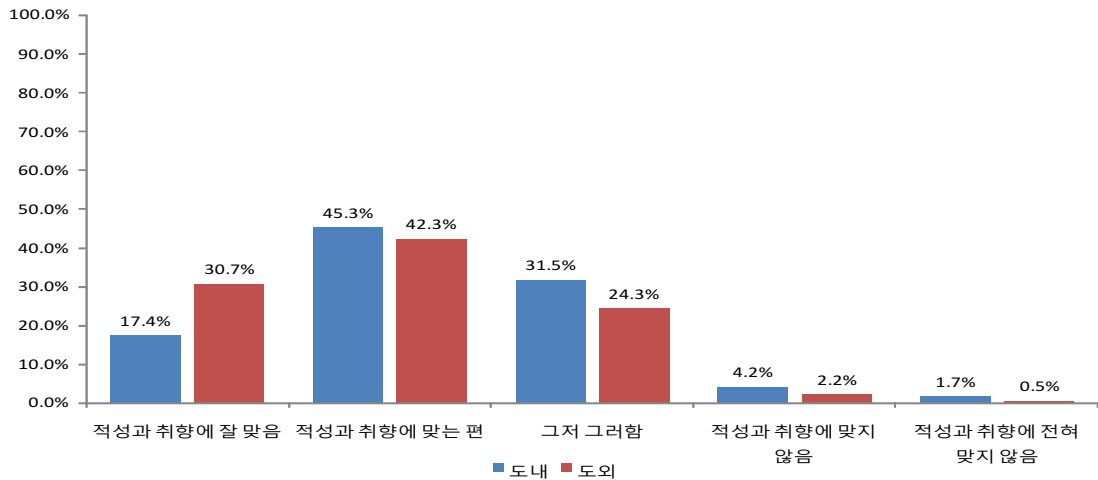


그림 72. 출신지역별 입학한 모집단위에 대한 만족도

출신지역에 따른 입학한 모집단위(학부, 학과)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도내 출신 학생, 도외 출신 학생 각각 45.3%, 42.3%로 적성과 취향에 맞는 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0) 대학생활과 관련하여 현재 가장 알고 싶은 것

- 단과대학별

단과대학에 따른 대학생활과 관련하여 현재 가장 알고 싶은 것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10과 같다.

표 110. 단과대학별 대학생활 관련 가장 알고 싶은 것

	대학구분													전체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교육대	수의대	간호대	예술대		
대 학 생 활	전공학과 학문내용과 전망	47 20.8%	28 20.6%	91 30.3%	31 23.7%	35 31.0%	58 30.2%	85 31.5%	87 28.2%	4 4.6%	9 31.0%	7 13.0%	21 31.3%	503 26.3%
관 련	졸업, 휴학 등 학사관리	57 25.2%	29 21.3%	53 17.7%	31 23.7%	20 17.7%	47 24.5%	51 18.9%	59 19.2%	24 27.6%	5 17.2%	6 11.1%	12 17.9%	394 20.6%
가 장	대학 내 각종 기관 활용정보	11 4.9%	9 6.6%	15 5.0%	4 3.1%	7 6.2%	8 4.2%	12 4.4%	19 6.2%	10 11.5%	2 6.9%	7 13.0%	7 10.4%	111 5.8%
알 고	효과적인 학습 방법	45 19.9%	27 19.9%	40 13.3%	26 19.8%	21 18.6%	16 8.3%	46 17.0%	36 11.7%	7 8.0%	3 10.3%	17 31.5%	9 13.4%	293 15.3%
싶 은	동아리 종류와 주요활동	9 4.0%	11 8.1%	13 4.3%	7 5.3%	6 5.3%	11 5.7%	17 6.3%	26 8.4%	13 14.9%	2 6.9%	2 3.7%	5 7.5%	122 6.4%
것	취업정보	12 5.3%	9 6.6%	34 11.3%	8 6.1%	11 9.7%	16 8.3%	15 5.6%	27 8.8%	2 2.3%	1 3.4%	8 14.8%	3 4.5%	146 7.6%
	대학원 진학 및 해외유학 정보	28 12.4%	10 7.4%	32 10.7%	9 6.9%	8 7.1%	17 8.9%	22 8.1%	25 8.1%	13 14.9%	5 17.2%	2 3.7%	9 13.4%	180 9.4%
	이성교제 방법 올바른 성지식	2 .9%	2 1.5%	2 .7%	1 .8%	1 .9%	2 1.0%	2 .7%	5 1.6%	1 1.1%	0 .0%	0 .0%	0 .0%	18 .9%
	원만한 대인관계 방법	10 4.4%	7 5.1%	16 5.3%	13 9.9%	4 3.5%	13 6.8%	15 5.6%	16 5.2%	11 12.6%	2 6.9%	5 9.3%	1 1.5%	113 5.9%
	기타	5 2.2%	4 2.9%	4 1.3%	1 .8%	0 .0%	4 2.1%	5 1.9%	8 2.6%	2 2.3%	0 .0%	0 .0%	0 .0%	33 1.7%
	전체	226 100.0%	136 100.0%	300 100.0%	131 100.0%	113 100.0%	192 100.0%	270 100.0%	308 100.0%	87 100.0%	29 100.0%	54 100.0%	67 100.0%	1913 100.0%

대학생활 관련 가장 알고 싶은 것에 대한 질문에 전공학과 학문내용과 전망이 2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졸업·휴학 등 학사관리(20.6%), 효과적인 학습 방법(15.3%), 대학원 진학 및 해외유학 정보(9.4%) 순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인문대, 사회대, 교육대는 졸업·휴학 등의 학사관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상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수의대, 예술대는 전공학과 학문내용과 전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간호대의 경우에는 효과적인 학습방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범대의 경우에는 전공학과 학문내용과 전망, 졸업·휴학 등 학사관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성별

성별에 따른 대학생활과 관련하여 현재 가장 알고 싶은 것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11과 같다.

표 111. 성별 대학생활 관련 가장 알고 싶은 것

	성별구분		전체	
	남자	여자		
대학생활 관련 가장 알고 싶은 것	전공학과의 학문내용과 전망	245 26.4%	258 26.2%	503 26.3%
	졸업, 휴학 등 학사관리	194 20.9%	200 20.3%	394 20.6%
	대학 내 각종 기관 활용정보	59 6.4%	52 5.3%	111 5.8%
	효과적인 학습 방법	113 12.2%	180 18.3%	293 15.3%
	동아리 종류와 주요활동	74 8.0%	48 4.9%	122 6.4%
	취업정보	82 8.8%	64 6.5%	146 7.6%
	대학원 진학 및 해외유학 정보	60 6.5%	120 12.2%	180 9.4%
	이성교제 방법 올바른 성지식	16 1.7%	2 .2%	18 .9%
	원만한 대인관계 방법	67 7.2%	46 4.7%	113 5.9%
	기타	18 1.9%	15 1.5%	33 1.7%
전체	928 100.0%	985 100.0%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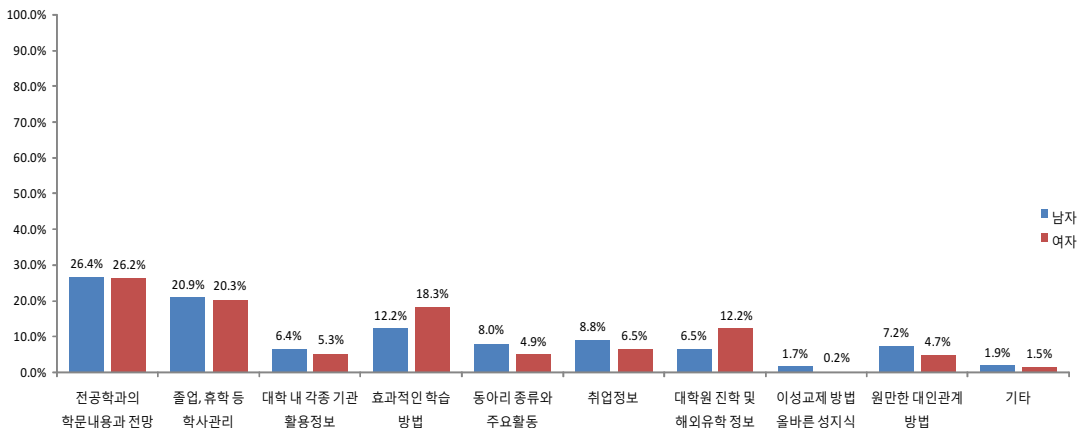


그림 73. 성별 대학생활 관련 가장 알고 싶은 것

성별에 따른 대학생활 관련 가장 알고 싶은 것을 살펴보면 남학생, 여학생 각각 26.4%, 26.2%로 전공학과의 학문내용과 전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졸업·휴학 등 학사관리(20.9%, 20.3%)가 높게 나타났다.

- 출신지역별

출신지역에 따른 대학생활과 관련하여 현재 가장 알고 싶은 것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12와 같다.

표 112. 출신지역별 대학생활 관련 가장 알고 싶은 것

	지역구분		전체	
	도내	도외		
대학생활 관련 가장 알고 싶은 것	전공학과의 학문내용과 전망	406 26.3%	97 26.1%	503 26.3%
	졸업, 휴학 등 학사관리	328 21.3%	66 17.8%	394 20.6%
	대학 내 각종 기관 활용정보	82 5.3%	29 7.8%	111 5.8%
	효과적인 학습 방법	239 15.5%	54 14.6%	293 15.3%
	동아리 종류와 주요활동	101 6.5%	21 5.7%	122 6.4%
	취업정보	121 7.8%	25 6.7%	146 7.6%
	대학원 진학 및 해외유학 정보	135 8.8%	45 12.1%	180 9.4%
	이성교제 방법 올바른 성지식	13 .8%	5 1.3%	18 .9%
	원만한 대인관계 방법	96 6.2%	17 4.6%	113 5.9%
	기타	21 1.4%	12 3.2%	33 1.7%
전체	1542 100.0%	371 100.0%	1913 100.0%	

출신 지역에 따른 대학생활 관련 가장 알고 싶은 것을 살펴보면 도·내외 출신 학생 각각 26.3%, 26.1%로 전공학과의 학문내용과 전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졸업·휴학 등 학사관리(21.3%, 17.8%)가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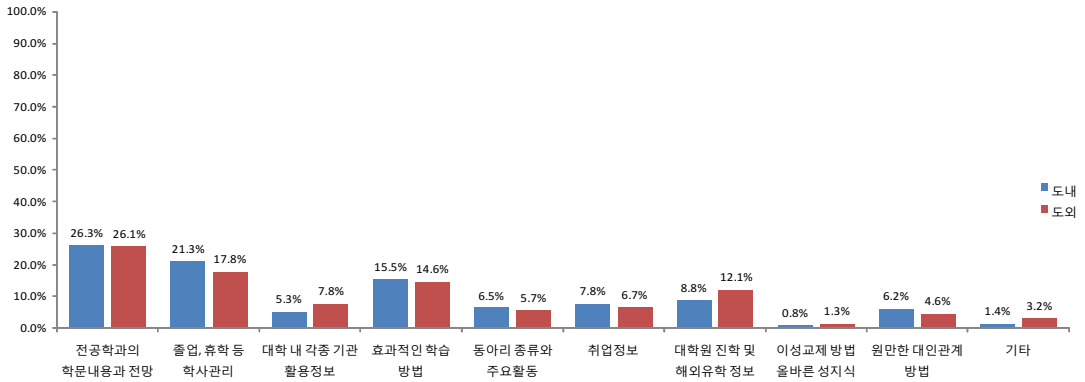


그림 74. 출신지역별 대학생활 관련 가장 알고 싶은 것

11) 대학생활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싶은 활동

- 단과대학별

단과대학에 따른 대학생활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싶은 활동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13과 같다.

표 113. 단과대학별 대학생활에서 시간투자를 많이 하고자 하는 것

대학생활에서 시간투자를 많이 하고자 하는 것		대학구분													전체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교육대	수의대	간호대	예술대		
전공공부	68 30.1%	32 23.5%	90 30.0%	59 45.0%	39 34.5%	53 27.6%	80 29.6%	106 34.4%	11 12.6%	20 69.0%	31 57.4%	38 56.7%	627 32.8%		
이성 및 대인관계	51 22.6%	22 16.2%	52 17.3%	26 19.8%	24 21.2%	36 18.8%	47 17.4%	57 18.5%	13 14.9%	3 10.3%	6 11.1%	4 6.0%	341 17.8%		
자격증 취득	20 8.8%	11 8.1%	24 8.0%	5 3.8%	8 7.1%	27 14.1%	31 11.5%	34 11.0%	0 .0%	1 3.4%	0 .0%	2 3.0%	163 8.5%		
취직 준비	20 8.8%	26 19.1%	42 14.0%	8 6.1%	12 10.6%	18 9.4%	23 8.5%	28 9.1%	2 2.3%	1 3.4%	5 9.3%	1 1.5%	186 9.7%		
대학 내 활동	13 5.8%	7 5.1%	14 4.7%	0 .0%	5 4.4%	9 4.7%	15 5.6%	11 3.6%	13 14.9%	1 3.4%	3 5.6%	6 9.0%	97 5.1%		
영어공부	11 4.9%	9 6.6%	24 8.0%	10 7.6%	8 7.1%	16 8.3%	16 5.9%	18 5.8%	4 4.6%	0 .0%	5 9.3%	3 4.5%	124 6.5%		
취미 등 다양한 활동	25 11.1%	22 16.2%	30 10.0%	16 12.2%	11 9.7%	20 10.4%	35 13.0%	36 11.7%	29 33.3%	3 10.3%	3 5.6%	9 13.4%	239 12.5%		
등록금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한 경제 활동	2 .9%	2 1.5%	5 1.7%	1 .8%	1 .9%	3 1.6%	6 2.2%	4 1.3%	3 3.4%	0 .0%	1 1.9%	1 1.5%	29 1.5%		
인격 성장을 위한 활동이나 공부	9 4.0%	4 2.9%	13 4.3%	3 2.3%	4 3.5%	6 3.1%	8 3.0%	6 1.9%	10 11.5%	0 .0%	0 .0%	2 3.0%	65 3.4%		
기타	7 3.1%	1 .7%	6 2.0%	3 2.3%	1 .9%	4 2.1%	9 3.3%	8 2.6%	2 2.3%	0 .0%	0 .0%	1 1.5%	42 2.2%		
전체	226 100.0%	136 100.0%	300 100.0%	131 100.0%	113 100.0%	192 100.0%	270 100.0%	308 100.0%	87 100.0%	29 100.0%	54 100.0%	67 100.0%	1913 100.0%		

대학생활에서 시간투자를 많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전공공부가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성 및 대인관계(17.8%), 취미 등 다양한 활동(12.5%), 취직 준비(9.7%), 자격증 취득(8.5%) 순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교육대는 취미 등 다양한 활동이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대를 제외한 대학에서는 전공공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성별

성별에 따른 대학생활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싶은 활동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14와 같다.

표 114. 성별 대학생활에서 시간투자를 많이 하고자 하는 것

		성별구분		전체
		남자	여자	
대학생활에서	전공공부	266 28.7%	361 36.6%	627 32.8%
	이성 및 대인관계	234 25.2%	107 10.9%	341 17.8%
	자격증 취득	86 9.3%	77 7.8%	163 8.5%
시간투자자를	취직 준비	85 9.2%	101 10.3%	186 9.7%
	대학 내 활동	47 5.1%	50 5.1%	97 5.1%
많이	영어공부	38 4.1%	86 8.7%	124 6.5%
	취미 등 다양한 활동	113 12.2%	126 12.8%	239 12.5%
하고자	등록금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한 경제 활동	14 1.5%	15 1.5%	29 1.5%
하는	인격 성장을 위한 활동이나 공부	22 2.4%	43 4.4%	65 3.4%
	기타	23 2.5%	19 1.9%	42 2.2%
것	전체	928 100.0%	985 100.0%	1913 100.0%

성별에 따른 대학생활에서 시간투자를 많이 하고자 하는 것을 살펴보면 남학생 여학생 각각 28.7%, 36.6%로 전공공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두 번째로 높은 것에서는 남학생들은 이성 및 대인관계(25.2%)로 나타났고 여학생들은 취미 등 다양한 활동(12.8%)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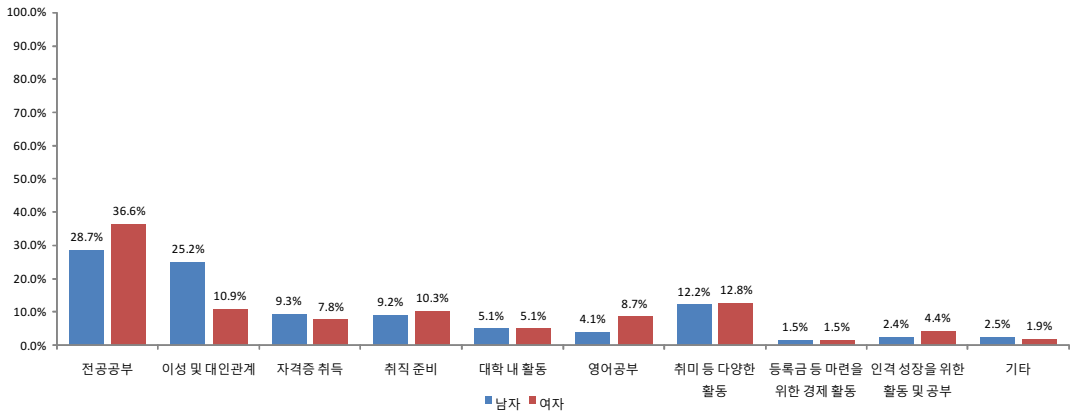


그림 75. 성별 대학생활에서 시간투자를 많이 하고자 하는 것

-. 출신지역별

출신지역에 따른 대학생활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싶은 활동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15와 같다.

표 115. 출신지역별 대학생활에서 시간투자를 많이 하고자 하는 것

		지역구분		전체
		도내	도외	
대학생활에서 시간투자를 많이 하고자 하는 것	전공공부	483 31.3%	144 38.8%	627 32.8%
	이성 및 대인관계	296 19.2%	45 12.1%	341 17.8%
	자격증 취득	131 8.5%	32 8.6%	163 8.5%
	취직 준비	162 10.5%	24 6.5%	186 9.7%
	대학 내 활동	69 4.5%	28 7.5%	97 5.1%
	영어공부	105 6.8%	19 5.1%	124 6.5%
	취미 등 다양한 활동	189 12.3%	50 13.5%	239 12.5%
	등록금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한 경제 활동	27 1.8%	2 .5%	29 1.5%
	인격 성장을 위한 활동이나 공부	48 3.1%	17 4.6%	65 3.4%
기타	32 2.1%	10 2.7%	42 2.2%	
전체		1542 100.0%	371 100.0%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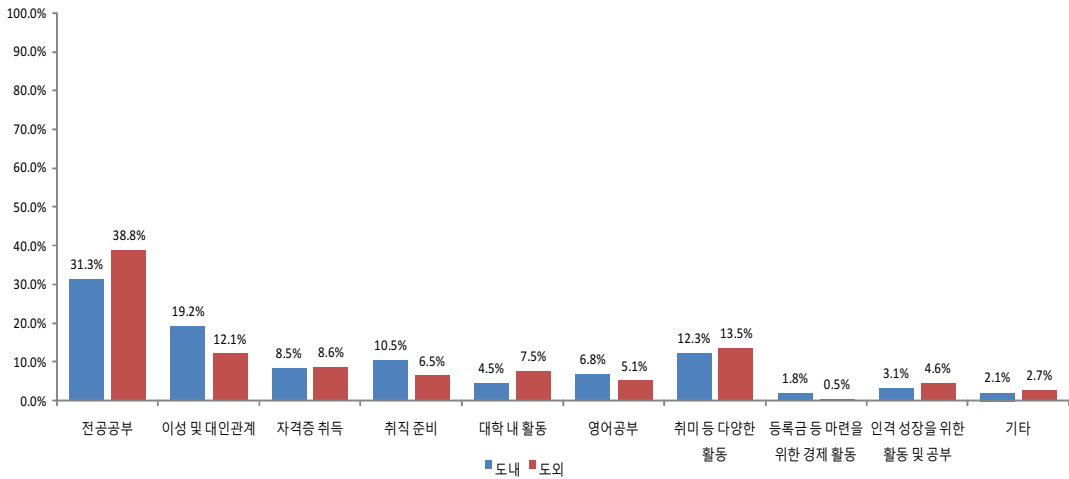


그림 76. 출신지역별 대학생활에서 시간투자를 많이 하고자 하는 것

출신 지역에 따른 대학생활에서 시간투자를 많이 하고자 하는 것을 살펴보면 도내·외 출신 학생 각각 31.3%, 38.8%로 전공공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두 번째로 높은 것에서는 도내 출신 학생들은 이성 및 대인관계(19.2%)로 나타났고 도외 출신 학생들은 취미 등 다양한 활동(13.5%)으로 나타났다.

4. 교수 관련

1) 교수에게 기대하는 점

- 단과대학별

단과대학에 따른 교수에게 기대하는 점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16과 같다.

표 116. 단과대학별 교수에게 기대하는 점

		대학구분												전체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교육대	수의대	간호대	예술대	
교수에게 기대하는 점	해박한 지식 전달	58 25.7%	21 15.4%	64 21.3%	31 23.7%	21 18.6%	38 19.8%	63 23.3%	68 22.1%	11 12.6%	9 31.0%	8 14.8%	20 29.9%	412 21.5%
	인생관에 대한 조언	44 19.5%	26 19.1%	51 17.0%	19 14.5%	21 18.6%	27 14.1%	34 12.6%	39 12.7%	15 17.2%	1 3.4%	13 24.1%	4 6.0%	294 15.4%
	인간적인 유대관계	17 7.5%	12 8.8%	23 7.7%	7 5.3%	8 7.1%	16 8.3%	27 10.0%	34 11.0%	14 16.1%	1 3.4%	3 5.6%	6 9.0%	168 8.8%
	연구하는 교수	4 1.8%	2 1.5%	3 1.0%	1 .8%	7 6.2%	2 1.0%	7 2.6%	9 2.9%	1 1.1%	2 6.9%	0 .0%	5 7.5%	43 2.2%
	높은 학점	56 24.8%	33 24.3%	53 17.7%	38 29.0%	19 16.8%	43 22.4%	60 22.2%	67 21.8%	19 21.8%	6 20.7%	12 22.2%	7 10.4%	413 21.6%
	진로지도	17 7.5%	19 14.0%	55 18.3%	10 7.6%	17 15.0%	40 20.8%	34 12.6%	41 13.3%	4 4.6%	2 6.9%	10 18.5%	11 16.4%	260 13.6%
	활발한 사회활동	5 2.2%	5 3.7%	11 3.7%	2 1.5%	1 .9%	4 2.1%	3 1.1%	3 1.0%	1 1.1%	1 3.4%	0 .0%	5 7.5%	41 2.1%
	학생에 대한 이해	22 9.7%	17 12.5%	34 11.3%	19 14.5%	18 15.9%	18 9.4%	38 14.1%	39 12.7%	22 25.3%	6 20.7%	8 14.8%	8 11.9%	249 13.0%
	기타	3 1.3%	1 .7%	6 2.0%	4 3.1%	1 .9%	4 2.1%	4 1.5%	8 2.6%	0 .0%	1 3.4%	0 .0%	1 1.5%	33 1.7%
	전체	226 100.0%	136 100.0%	300 100.0%	131 100.0%	113 100.0%	192 100.0%	270 100.0%	308 100.0%	87 100.0%	29 100.0%	54 100.0%	67 100.0%	1913 100.0%

교수에게 기대하는 점에 대한 질문에 높은 학점이 2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해박한 지식 전달(21.5%), 인생관에 대한 조언(15.4%), 진로지도(13.6%), 학생에 대한 이해(13.0%) 순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인문대, 경상대, 자연대, 공과대, 수의대, 예술대는 해박한 지식 전달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대, 사범대, 해양대, 교육대는 높은 학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간호대는 인생관에 대한 조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명대는 해박한 지식 전달과 인생관에 대한 조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성별

성별에 따른 교수에게 기대하는 점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17과 같다.

표 117. 성별 교수에게 기대하는 점

	성별구분		전체	
	남자	여자		
교수에게 기대하는 점	해박한 지식 전달	188 20.3%	224 22.7%	412 21.5%
	인생관에 대한 조언	158 17.0%	136 13.8%	294 15.4%
	인간적인 유대관계	94 10.1%	74 7.5%	168 8.8%
	연구하는 교수	19 2.0%	24 2.4%	43 2.2%
	높은 학점	206 22.2%	207 21.0%	413 21.6%
	진로지도	118 12.7%	142 14.4%	260 13.6%
	활발한 사회활동	17 1.8%	24 2.4%	41 2.1%
	학생에 대한 이해	109 11.7%	140 14.2%	249 13.0%
	기타	19 2.0%	14 1.4%	33 1.7%
	전체	928 100.0%	985 100.0%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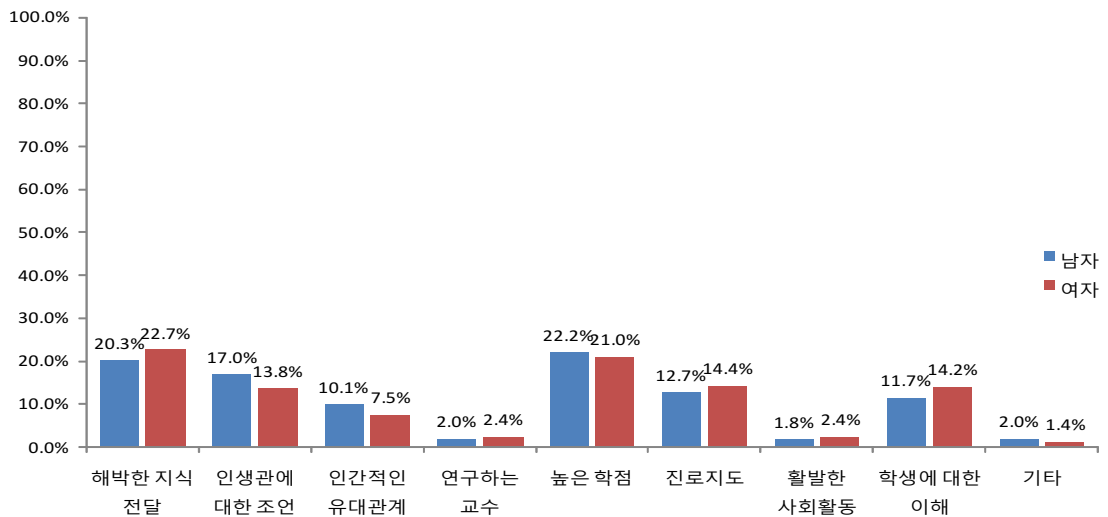


그림 77. 성별 교수에게 기대하는 점

성별에 따른 교수에게 기대하는 점을 살펴보면 남학생들은 높은 학점이 2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들은 해박한 지식 전달이 2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출신지역별

출신지역에 따른 교수에게 기대하는 점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18과 같다.

표 118. 출신지역별 교수에게 기대하는 점

	지역구분		전체	
	도내	도외		
교수에게 기대하는 점	해박한 지식 전달	323 20.9%	89 24.0%	412 21.5%
	인생관에 대한 조언	236 15.3%	58 15.6%	294 15.4%
	인간적인 유대관계	129 8.4%	39 10.5%	168 8.8%
	연구하는 교수	31 2.0%	12 3.2%	43 2.2%
	높은 학점	337 21.9%	76 20.5%	413 21.6%
	진로지도	225 14.6%	35 9.4%	260 13.6%
	활발한 사회활동	35 2.3%	6 1.6%	41 2.1%
	학생에 대한 이해	199 12.9%	50 13.5%	249 13.0%
	기타	27 1.8%	6 1.6%	33 1.7%
전체	1542 100.0%	371 100.0%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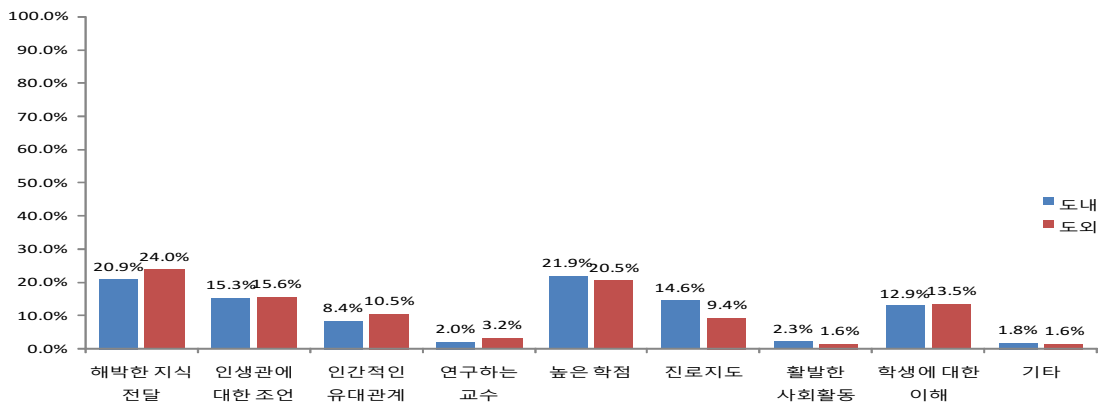


그림 78. 출신지역별 교수에게 기대하는 점

출신 지역에 따른 교수에게 기대하는 점을 살펴보면 도내 출신 학생들은 높은 학점이 2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도외 출신 학생들은 해박한 지식 전달이 2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교수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은 문제

- 단과대학별

단과대학에 따른 교수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은 문제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19와 같다.

표 119. 단과대학별 교수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은 문제

		대학구분											전체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교육대	수의대	간호대		예술대
교수에게	학교적응문제	15 6.6%	4 2.9%	11 3.7%	6 4.6%	3 2.7%	18 9.4%	13 4.8%	19 6.2%	5 5.7%	1 3.4%	4 7.4%	7 10.4%	106 5.5%
	개인적 문제	10 4.4%	9 6.6%	10 3.3%	2 1.5%	5 4.4%	5 2.6%	13 4.8%	14 4.5%	3 3.4%	0 .0%	2 3.7%	2 3.0%	75 3.9%
조언을	학습방법, 학업문제	89 39.4%	51 37.5%	104 34.7%	64 48.9%	44 38.9%	58 30.2%	100 37.0%	117 38.0%	29 33.3%	6 20.7%	25 46.3%	14 20.9%	701 36.6%
	취업문제	73 32.3%	53 39.0%	138 46.0%	42 32.1%	50 44.2%	87 45.3%	104 38.5%	116 37.7%	16 18.4%	14 48.3%	15 27.8%	31 46.3%	739 38.6%
구하고	경제문제	5 2.2%	2 1.5%	4 1.3%	2 1.5%	2 1.8%	3 1.6%	7 2.6%	10 3.2%	5 5.7%	0 .0%	1 1.9%	3 4.5%	44 2.3%
	삶의 전반적인 계획, 인생관	18 8.0%	12 8.8%	21 7.0%	12 9.2%	6 5.3%	9 4.7%	17 6.3%	14 4.5%	23 26.4%	5 17.2%	4 7.4%	2 3.0%	143 7.5%
싶은	해외유학	10 4.4%	3 2.2%	9 3.0%	2 1.5%	2 1.8%	8 4.2%	11 4.1%	11 3.6%	4 4.6%	3 10.3%	1 1.9%	8 11.9%	72 3.8%
	기타	6 2.7%	2 1.5%	3 1.0%	1 .8%	1 .9%	4 2.1%	5 1.9%	7 2.3%	2 2.3%	0 .0%	2 3.7%	0 .0%	33 1.7%
문제														
전체		226 100.0%	136 100.0%	300 100.0%	131 100.0%	113 100.0%	192 100.0%	270 100.0%	308 100.0%	87 100.0%	29 100.0%	54 100.0%	67 100.0%	1913 100.0%

교수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은 문제에 대한 질문에 취업문제가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습방법·학업문제(36.6%)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인문대, 사범대, 공과대, 교육대, 간호대는 학습방법·학업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대, 경상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수의대, 예술대는 취업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성별

성별에 따른 교수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은 문제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20과 같다.

표 120. 성별 교수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은 문제

	성별구분		전체	
	남자	여자		
교수에게	학교적응문제	51 5.5%	55 5.6%	106 5.5%
	개인적 문제	49 5.3%	26 2.6%	75 3.9%
조언을	학습방법, 학업문제	328 35.3%	373 37.9%	701 36.6%
	취업문제	351 37.8%	388 39.4%	739 38.6%
구하고	경제문제	34 3.7%	10 1.0%	44 2.3%
	삶의 전반적인 계획, 인생관	67 7.2%	76 7.7%	143 7.5%
싶은	해외유학	32 3.4%	40 4.1%	72 3.8%
	기타	16 1.7%	17 1.7%	33 1.7%
문제	전체	928 100.0%	985 100.0%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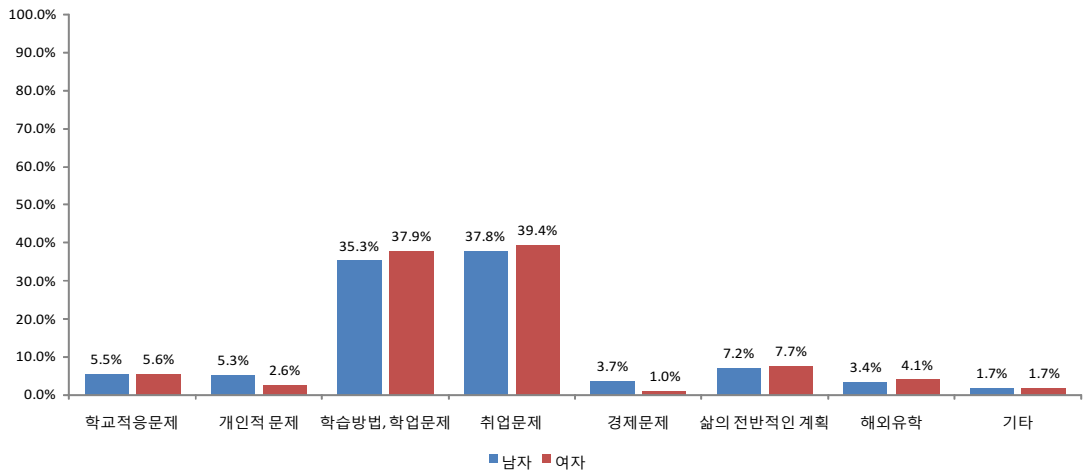


그림 79. 성별 교수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은 문제

성별에 따른 교수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은 문제를 살펴보면 남학생, 여학생 각각 37.8%, 39.4%로 취업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습방법·학업문제(35.3%, 37.9%)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 출신지역별

출신지역에 따른 교수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은 문제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21과 같다.

표 121. 출신지역별 교수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은 문제

		지역구분		전체
		도내	도외	
교수에게	학교적응문제	85 5.5%	21 5.7%	106 5.5%
	개인적 문제	63 4.1%	12 3.2%	75 3.9%
조언을	학습방법, 학업문제	563 36.5%	138 37.2%	701 36.6%
	취업문제	616 39.9%	123 33.2%	739 38.6%
구하고	경제문제	32 2.1%	12 3.2%	44 2.3%
	삶의 전반적인 계획, 인생관	101 6.5%	42 11.3%	143 7.5%
싶은	해외유학	56 3.6%	16 4.3%	72 3.8%
	기타	26 1.7%	7 1.9%	33 1.7%
문제	전체	1542 100.0%	371 100.0%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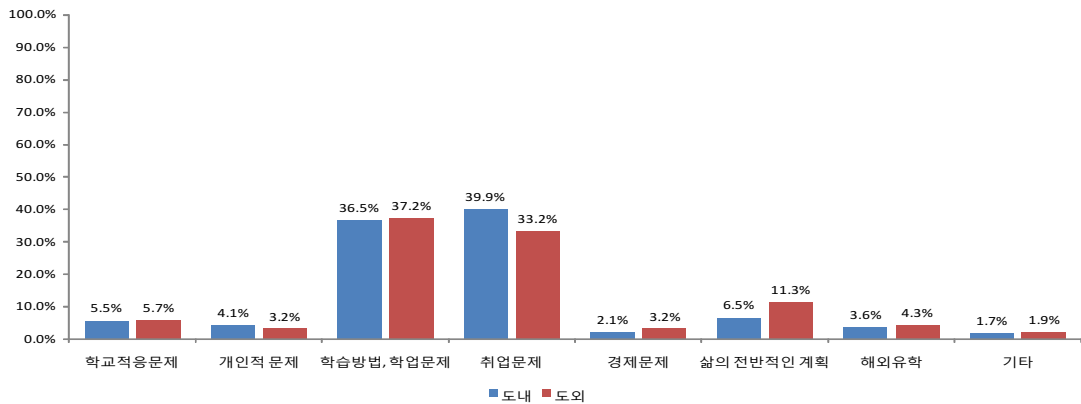


그림 80. 출신지역별 교수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은 문제

출신 지역에 따른 교수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은 문제를 살펴보면 도내 출신 학생들은 취업 문제가 39.9%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도외 출신 학생들은 학습방법·학업문제가 3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5. 가치관 및 사회관 관련

1) 대인관계에 대한 생각

- 단과대학별

단과대학에 따른 대인관계에 대한 생각에 대하여 교차분석 결과는 표 122와 같다.

표 122. 단과대학별 대인관계에 대한 생각

		대학구분											전체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교육대	수의대	간호대		예술대
대인관계에 대한 생각	매우 원만한 편	34 15.0%	12 8.8%	48 16.0%	18 13.7%	26 23.0%	33 17.2%	36 13.3%	42 13.6%	15 17.2%	5 17.2%	5 9.3%	17 25.4%	291 15.2%
	원만한 편	128 56.6%	89 65.4%	193 64.3%	84 64.1%	61 54.0%	115 59.9%	161 59.6%	171 55.5%	58 66.7%	13 44.8%	36 66.7%	39 58.2%	1148 60.0%
	그저 그러함	47 20.8%	25 18.4%	53 17.7%	27 20.6%	22 19.5%	34 17.7%	64 23.7%	76 24.7%	14 16.1%	10 34.5%	11 20.4%	10 14.9%	393 20.5%
	원만치 않은 편	13 5.8%	9 6.6%	6 2.0%	1 .8%	4 3.5%	9 4.7%	8 3.0%	17 5.5%	0 .0%	1 3.4%	1 1.9%	1 1.5%	70 3.7%
	매우 원만하지 않은 편	4 1.8%	1 .7%	0 .0%	1 .8%	0 .0%	1 .5%	1 .4%	2 .6%	0 .0%	0 .0%	1 1.9%	0 .0%	11 .6%
	전체	226 100.0%	136 100.0%	300 100.0%	131 100.0%	113 100.0%	192 100.0%	270 100.0%	308 100.0%	87 100.0%	29 100.0%	54 100.0%	67 100.0%	1913 100.0%

자신의 대인관계에 대한 질문에 원만한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60.0%로 가장 많았으며 그저 그러함(20.5%), 매우 원만한 편(15.2%) 원만치 않은 편(3.7%), 매우 원만하지 않은 편(0.6%) 순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볼 때 특징적으로 비율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 성별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에 대한 생각에 대하여 교차분석 결과는 표 123과 같다.

표 123. 성별 대인관계에 대한 생각

		성별구분		전체
		남자	여자	
대인관계에 대한 생각	매우 원만한 편	154 16.6%	137 13.9%	291 15.2%
	원만한 편	514 55.4%	634 64.4%	1148 60.0%
	그저 그러함	206 22.2%	187 19.0%	393 20.5%
대인관계에 대한 생각	원만치 않은 편	47 5.1%	23 2.3%	70 3.7%
	매우 원만하지 않은 편	7 .8%	4 .4%	11 .6%
전체		928 100.0%	985 100.0%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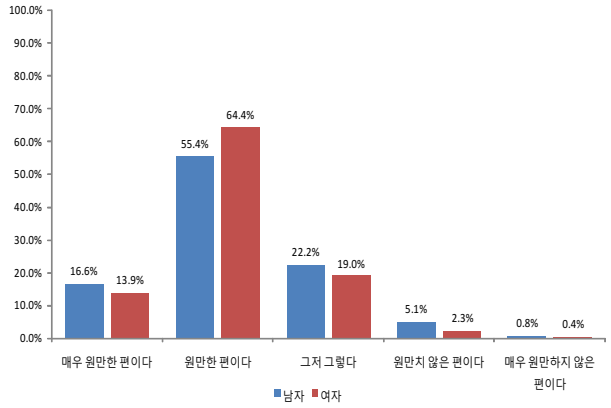


그림 81. 성별 대인관계에 대한 생각

성별에 따른 자신의 대인관계를 살펴보면 남·여 학생 각각 55.4%, 64.4%로 원만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출신지역별

출신지역에 따른 대인관계에 대한 생각에 대하여 교차분석 결과는 표 124와 같다.

표 124. 출신지역별 대인관계에 대한 생각

		지역구분		전체
		도내	도외	
대인관계에 대한 생각	매우 원만한 편	225 14.6%	66 17.8%	291 15.2%
	원만한 편	928 60.2%	220 59.3%	1148 60.0%
	그저 그러함	314 20.4%	79 21.3%	393 20.5%
대인관계에 대한 생각	원만치 않은 편	64 4.2%	6 1.6%	70 3.7%
	매우 원만하지 않은 편	11 .7%	0 .0%	11 .6%
전체		1542 100.0%	371 100.0%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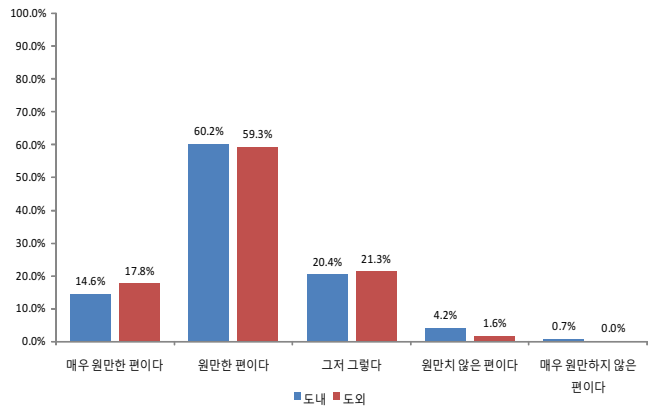


그림 82. 출신지역별 대인관계에 대한 생각

출신 지역에 따른 자신의 대인관계를 살펴보면 도·내외 출신 학생들 각각 60.2%, 59.3%로 원만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 단과대학별

단과대학에 따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25와 같다.

표 125. 단과대학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대학구분												전체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교육대	수의대	간호대	예술대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	51 22.6%	38 27.9%	65 21.7%	27 20.6%	29 25.7%	64 33.3%	51 18.9%	70 22.7%	11 12.6%	3 10.3%	9 16.7%	13 19.4%	431 22.5%
취미와 여가를 즐기는 생활	54 23.9%	40 29.4%	83 27.7%	26 19.8%	28 24.8%	42 21.9%	85 31.5%	97 31.5%	31 35.6%	10 34.5%	14 25.9%	22 32.8%	532 27.8%
타인에게 봉사하는 생활	6 2.7%	3 2.2%	5 1.7%	5 3.8%	4 3.5%	4 2.1%	5 1.9%	7 2.3%	1 1.1%	3 10.3%	3 5.6%	4 6.0%	50 2.6%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생활	7 3.1%	7 5.1%	9 3.0%	6 4.6%	4 3.5%	9 4.7%	10 3.7%	5 1.6%	0 .0%	1 3.4%	1 1.9%	1 1.5%	60 3.1%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생활	37 16.4%	9 6.6%	52 17.3%	29 22.1%	22 19.5%	23 12.0%	44 16.3%	42 13.6%	12 13.8%	5 17.2%	10 18.5%	18 26.9%	303 15.8%
화목한 가정 생활	15 6.6%	14 10.3%	24 8.0%	11 8.4%	6 5.3%	20 10.4%	24 8.9%	24 7.8%	12 13.8%	4 13.8%	9 16.7%	4 6.0%	167 8.7%
건강한 삶	16 7.1%	10 7.4%	14 4.7%	6 4.6%	5 4.4%	8 4.2%	19 7.0%	11 3.6%	6 6.9%	1 3.4%	1 1.9%	1 1.5%	98 5.1%
종교적인 삶	1 .4%	1 .7%	3 1.0%	0 .0%	2 1.8%	0 .0%	2 .7%	1 .3%	4 4.6%	0 .0%	1 1.9%	0 .0%	15 .8%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삶	3 1.3%	2 1.5%	3 1.0%	2 1.5%	0 .0%	2 1.0%	0 .0%	1 .3%	0 .0%	1 3.4%	1 1.9%	0 .0%	15 .8%
좋은 인간관계 형성	36 15.9%	12 8.8%	42 14.0%	19 14.5%	13 11.5%	20 10.4%	30 11.1%	50 16.2%	10 11.5%	1 3.4%	5 9.3%	4 6.0%	242 12.7%
전체	226 100.0%	136 100.0%	300 100.0%	131 100.0%	113 100.0%	192 100.0%	270 100.0%	308 100.0%	87 100.0%	29 100.0%	54 100.0%	67 100.0%	1913 100.0%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질문에 취미와 여가를 즐기는 생활이 2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22.5%),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생활(15.8%), 좋은 인간관계 형성(12.7%) 순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자연대, 공과대, 교육대, 수의대, 간호대, 예술대는 취미와 여가를 즐기는 생활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범대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생활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생명대와 해양대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성별

성별에 따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26과 같다.

표 126. 성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성별구분		전체
	남자	여자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	211 22.7%	220 22.3%	431 22.5%
취미와 여가를 즐기는 생활	281 30.3%	251 25.5%	532 27.8%
타인에게 봉사하는 생활	30 3.2%	20 2.0%	50 2.6%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생활	39 4.2%	21 2.1%	60 3.1%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생활	111 12.0%	192 19.5%	303 15.8%
화목한 가정생활	74 8.0%	93 9.4%	167 8.7%
건강한 삶	41 4.4%	57 5.8%	98 5.1%
종교적인 삶	7 .8%	8 .8%	15 .8%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삶	6 .6%	9 .9%	15 .8%
좋은 인간관계 형성	128 13.8%	114 11.6%	242 12.7%
전체	928 100.0%	985 100.0%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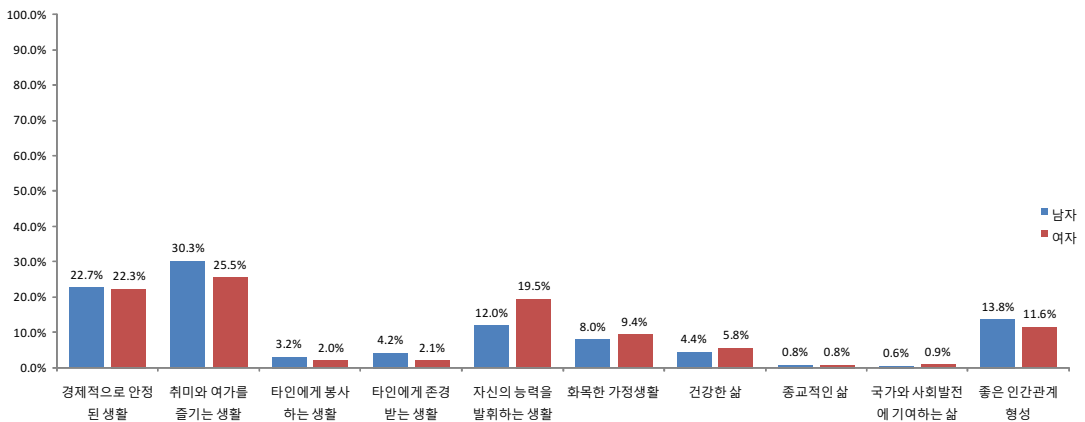


그림 83. 성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성별에 따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살펴보면 남·여학생 각각 30.3%, 25.0%로 취미와 여가를 즐기는 생활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출신지역별

출신지역에 따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27과 같다.

표 127. 출신지역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지역구분		전체
	도내	도외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	360 23.3%	71 19.1%	431 22.5%
취미와 여가를 즐기는 생활	421 27.3%	111 29.9%	532 27.8%
타인에게 봉사하는 생활	41 2.7%	9 2.4%	50 2.6%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생활	45 2.9%	15 4.0%	60 3.1%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생활	239 15.5%	64 17.3%	303 15.8%
화목한 가정생활	130 8.4%	37 10.0%	167 8.7%
건강한 삶	79 5.1%	19 5.1%	98 5.1%
종교적인 삶	7 .5%	8 2.2%	15 .8%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삶	9 .6%	6 1.6%	15 .8%
좋은 인간관계 형성	211 13.7%	31 8.4%	242 12.7%
전체	1542 100.0%	371 100.0%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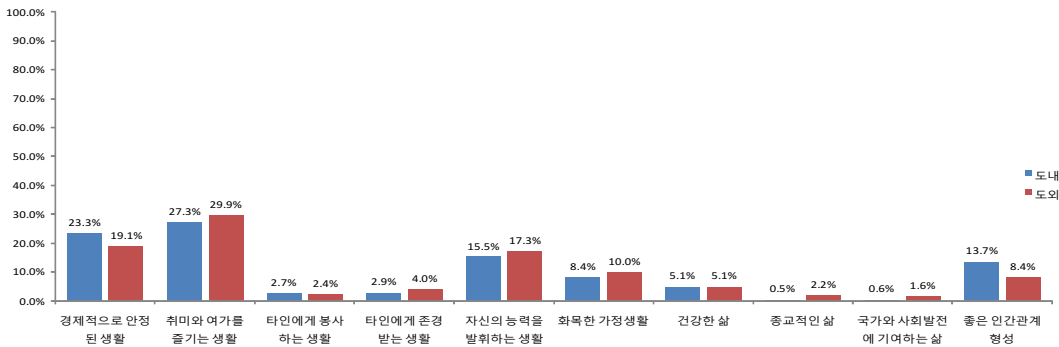


그림 84. 출신지역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출신 지역에 따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살펴보면 도내·외 학생 각각 27.3%, 29.9%로 취미와 여가를 즐기는 생활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대학생으로서 갖춰야 할 것

- 단과대학별

단과대학에 따른 대학생으로서 갖춰야 할 것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28과 같다.

표 128. 단과대학별 대학생으로서 갖춰야 할 것

	대학구분												전체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교육대	수의대	간호대	예술대		
대학생으로서 갖춰야 할 것	교양을 갖춘 지성인이 되는 것	89 39.4%	39 28.7%	72 24.0%	35 26.7%	33 29.2%	50 26.0%	77 28.5%	80 26.0%	39 44.8%	7 24.1%	19 35.2%	21 31.3%	561 29.3%
	유능한 사회인으로서 기초를 다지는 것	74 32.7%	62 45.6%	172 57.3%	48 36.6%	51 45.1%	83 43.2%	120 44.4%	125 40.6%	24 27.6%	11 37.9%	23 42.6%	20 29.9%	813 42.5%
	첨단지식을 습득하여 사회를 선도하는 것	5 2.2%	5 3.7%	9 3.0%	5 3.8%	10 8.8%	12 6.3%	15 5.6%	42 13.6%	1 1.1%	2 6.9%	2 3.7%	10 14.9%	118 6.2%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개선하려 하는 것	42 18.6%	23 16.9%	37 12.3%	17 13.0%	12 10.6%	28 14.6%	30 11.1%	34 11.0%	12 13.8%	4 13.8%	8 14.8%	5 7.5%	252 13.2%
	많은 지식으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것	7 3.1%	3 2.2%	6 2.0%	20 15.3%	6 5.3%	9 4.7%	15 5.6%	7 2.3%	9 10.3%	1 3.4%	1 1.9%	2 3.0%	86 4.5%
	기타	9 4.0%	4 2.9%	4 1.3%	6 4.6%	1 .9%	10 5.2%	13 4.8%	20 6.5%	2 2.3%	4 13.8%	1 1.9%	9 13.4%	83 4.3%
	전체	226 100.0%	136 100.0%	300 100.0%	131 100.0%	113 100.0%	192 100.0%	270 100.0%	308 100.0%	87 100.0%	29 100.0%	54 100.0%	67 100.0%	1913 100.0%

대학생으로 갖춰야 할 것에 대한 질문에 유능한 사회인으로서 기초를 다지는 것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양을 갖춘 지성인이 되는 것(29.3%),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개선하려 하는 것(13.2%) 순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인문대, 교육대, 예술대는 교양을 갖춘 지성인이 되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수의대, 간호대는 유능한 사회인으로서 기초를 다지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성별

성별에 따른 대학생으로서 갖춰야 할 것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29와 같다.

표 129. 성별 대학생으로서 갖춰야 할 것

	성별구분		전체
	남자	여자	
교양을 갖춘 지성인이 되는 것	258 27.8%	303 30.8%	561 29.3%
유능한 사회인으로서 기초를 다지는 것	381 41.1%	432 43.9%	813 42.5%
첨단지식을 습득하여 사회를 선도하는 것	79 8.5%	39 4.0%	118 6.2%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개선하려 하는 것	111 12.0%	141 14.3%	252 13.2%
많은 지식으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것	48 5.2%	38 3.9%	86 4.5%
기타	51 5.5%	32 3.2%	83 4.3%
전체	928 100.0%	985 100.0%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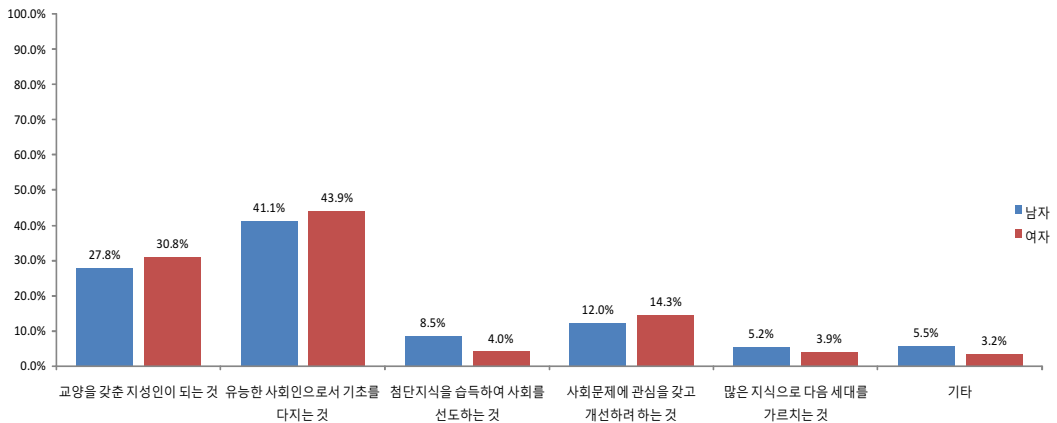


그림 85. 성별 대학생으로서 갖춰야 할 것

성별에 따른 대학생으로 갖춰야 할 것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남·여 학생 각각 41.1%, 43.9%로 유능한 사회인으로서 기초를 다지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출신지역별

출신지역에 따른 대학생으로서 갖춰야 할 것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30과 같다.

표 130. 출신지역별 대학생으로서 갖춰야 할 것

	지역구분		전체	
	도내	도외		
대학생으로서 갖춰야 할 것	교양을 갖춘 지성인이 되는 것	447 29.0%	114 30.7%	561 29.3%
	유능한 사회인으로서 기초를 다지는 것	680 44.1%	133 35.8%	813 42.5%
	첨단지식을 습득하여 사회를 선도하는 것	93 6.0%	25 6.7%	118 6.2%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개선하려 하는 것	188 12.2%	64 17.3%	252 13.2%
	많은 지식으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것	66 4.3%	20 5.4%	86 4.5%
	기타	68 4.4%	15 4.0%	83 4.3%
전체	1542 100.0%	371 100.0%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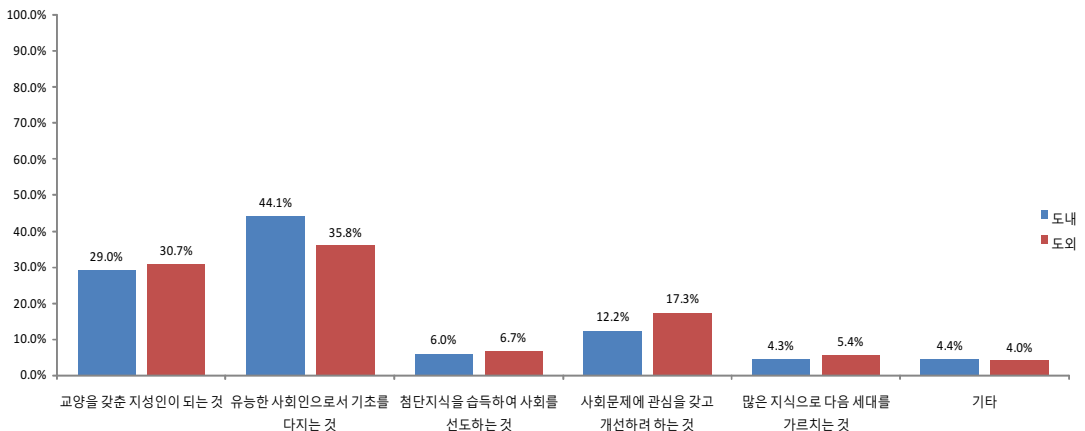


그림 86. 출신지역별 대학생으로서 갖춰야 할 것

출신 지역에 따른 대학생으로 갖춰야 할 것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도내·외 출신 학생 각각 44.1%, 35.8%로 유능한 사회인으로서 기초를 다지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사회에서의 성공요인

- 단과대학별

단과대학에 따른 사회에서의 성공요인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31과 같다.

표 131. 단과대학별 사회에서의 성공요인

	대학구분												전체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교육대	수의대	간호대	예술대	
학별	25 11.1%	17 12.5%	23 7.7%	9 6.9%	4 3.5%	23 12.0%	21 7.8%	30 9.7%	5 5.7%	2 6.9%	4 7.4%	10 14.9%	173 9.0%
가문 배경	15 6.6%	8 5.9%	13 4.3%	6 4.6%	5 4.4%	6 3.1%	9 3.3%	14 4.5%	6 6.9%	2 6.9%	2 3.7%	0 .0%	86 4.5%
실력 및 능력	92 40.7%	63 46.3%	137 45.7%	60 45.8%	50 44.2%	80 41.7%	116 43.0%	144 46.8%	31 35.6%	11 37.9%	28 51.9%	24 35.8%	836 43.7%
인격	28 12.4%	10 7.4%	35 11.7%	12 9.2%	16 14.2%	16 8.3%	31 11.5%	25 8.1%	14 16.1%	2 6.9%	4 7.4%	8 11.9%	201 10.5%
인간관계	13 5.8%	16 11.8%	37 12.3%	11 8.4%	9 8.0%	23 12.0%	31 11.5%	28 9.1%	7 8.0%	2 6.9%	5 9.3%	5 7.5%	187 9.8%
운	5 2.2%	2 1.5%	4 1.3%	6 4.6%	0 .0%	4 2.1%	3 1.1%	5 1.6%	5 5.7%	0 .0%	0 .0%	1 1.5%	35 1.8%
나 자신의 노력	32 14.2%	14 10.3%	42 14.0%	18 13.7%	23 20.4%	21 10.9%	47 17.4%	44 14.3%	14 16.1%	6 20.7%	9 16.7%	14 20.9%	284 14.8%
재력	14 6.2%	6 4.4%	7 2.3%	8 6.1%	3 2.7%	14 7.3%	11 4.1%	12 3.9%	3 3.4%	3 10.3%	1 1.9%	4 6.0%	86 4.5%
기타	2 .9%	0 .0%	2 .7%	1 .8%	3 2.7%	5 2.6%	1 .4%	6 1.9%	2 2.3%	1 3.4%	1 1.9%	1 1.5%	25 1.3%
전체	226 100.0%	136 100.0%	300 100.0%	131 100.0%	113 100.0%	192 100.0%	270 100.0%	308 100.0%	87 100.0%	29 100.0%	54 100.0%	67 100.0%	1913 100.0%

사회에서의 성공요인에 대한 질문에 실력 및 능력이 4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신의 노력(14.8%), 인격(10.5%), 인간관계(9.8%), 학벌(9.0%) 순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모든 대학에서 실력 및 능력을 선택한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 성별

성별에 따른 사회에서의 성공요인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32와 같다.

표 132. 성별 사회에서의 성공요인

	성별구분		전체	
	남자	여자		
학벌	87 9.4%	86 8.7%	173 9.0%	
사회에서의	가문 배경	53 5.7%	33 4.5%	86
	실력 및 능력	363 39.1%	473 48.0%	836 43.7%
	인격	99 10.7%	102 10.4%	201 10.5%
	인간관계	104 11.2%	83 8.4%	187 9.8%
성공요인	운	25 2.7%	10 1.0%	35 1.8%
	나 자신의 노력	130 14.0%	154 15.6%	284 14.8%
	재력	52 5.6%	34 3.5%	86 4.5%
	기타	15 1.6%	10 1.0%	25 1.3%
전체	928 100.0%	985 100.0%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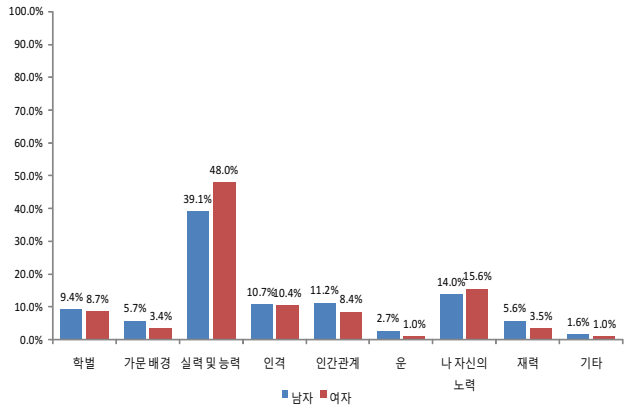


그림 87. 성별 사회에서의 성공요인

성별에 따른 사회에서의 성공요인을 살펴보면 남·여 학생 각각 39.1%, 48.0%로 실력 및 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출신지역별

출신지역에 따른 사회에서의 성공요인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33과 같다.

표 133. 출신지역별 사회에서의 성공요인

	지역구분		전체	
	도내	도외		
학벌	141 9.1%	32 8.6%	173 9.0%	
사회에서의	가문 배경	62 4.0%	24 6.5%	86 4.5%
	실력 및 능력	690 44.7%	146 39.4%	836 43.7%
	인격	157 10.2%	44 11.9%	201 10.5%
	인간관계	153 9.9%	34 9.2%	187 9.8%
성공요인	운	23 1.5%	12 3.2%	35 1.8%
	나 자신의 노력	229 14.9%	55 14.8%	284 14.8%
	재력	68 4.4%	18 4.9%	86 4.5%
	기타	19 1.2%	6 1.6%	25 1.3%
전체	1542 100.0%	371 100.0%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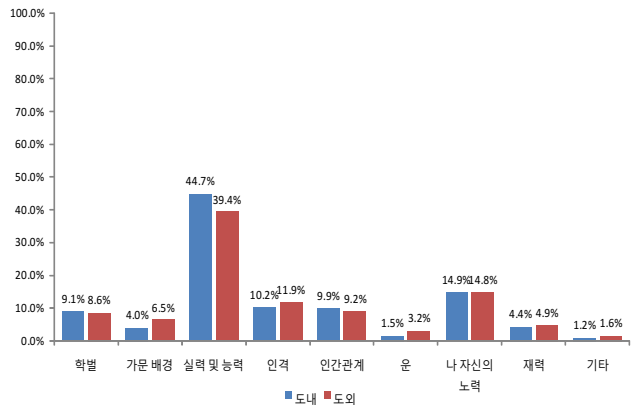


그림 88. 출신지역별 사회에서의 성공요인

출신 지역에 따른 사회에서의 성공요인을 살펴보면 도내·외 출신 학생들 각각 44.7%, 39.4%로 실력 및 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5) 사회가 당면한 문제

- 단과대학별

단과대학에 따른 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34와 같다.

표 134. 단과대학별 사회가 당면한 문제

	대학구분												전체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교육대	수의대	간호대	예술대	
경제성장	9 4.0%	12 8.8%	13 4.3%	5 3.8%	11 9.7%	10 5.2%	11 4.1%	18 5.8%	3 3.4%	1 3.4%	1 1.9%	5 7.5%	99 5.2%
실업문제	71 31.4%	38 27.9%	97 32.3%	41 31.3%	30 26.5%	58 30.2%	89 33.0%	96 31.2%	15 17.2%	9 31.0%	9 16.7%	21 31.3%	574 30.0%
빈부의 격차	46 20.4%	28 20.6%	62 20.7%	18 13.7%	19 16.8%	32 16.7%	49 18.1%	42 13.6%	26 29.9%	2 6.9%	10 18.5%	10 14.9%	344 18.0%
향락 및 사치문제	3 1.3%	0 .0%	8 2.7%	0 .0%	1 .9%	0 .0%	3 1.1%	1 .3%	1 1.1%	0 .0%	0 .0%	2 3.0%	19 1.0%
정치적 불안정	19 8.4%	20 14.7%	23 7.7%	16 12.2%	10 8.8%	14 7.3%	21 7.8%	28 9.1%	6 6.9%	0 .0%	7 13.0%	7 10.4%	171 8.9%
부정부패	46 20.4%	24 17.6%	63 21.0%	29 22.1%	28 24.8%	46 24.0%	58 21.5%	72 23.4%	25 28.7%	8 27.6%	20 37.0%	18 26.9%	437 22.8%
청소년 비행	0 .0%	1 .7%	0 .0%	1 .8%	1 .9%	6 3.1%	3 1.1%	4 1.3%	0 .0%	1 3.4%	0 .0%	0 .0%	17 .9%
환경오염	3 1.3%	1 .7%	11 3.7%	1 .8%	6 5.3%	7 3.6%	10 3.7%	4 1.3%	1 1.1%	0 .0%	0 .0%	0 .0%	44 2.3%
사회질서	10 4.4%	3 2.2%	12 4.0%	8 6.1%	3 2.7%	7 3.6%	14 5.2%	15 4.9%	2 2.3%	1 3.4%	2 3.7%	1 1.5%	78 4.1%
국가안보	4 1.8%	1 .7%	2 .7%	1 .8%	0 .0%	4 2.1%	2 .7%	8 2.6%	3 3.4%	1 3.4%	1 1.9%	1 1.5%	28 1.5%
불신풍조	7 3.1%	4 2.9%	1 .3%	3 2.3%	0 .0%	1 .5%	3 1.1%	5 1.6%	4 4.6%	2 6.9%	3 5.6%	0 .0%	33 1.7%
기타	8 3.5%	4 2.9%	8 2.7%	8 6.1%	4 3.5%	7 3.6%	7 2.6%	15 4.9%	1 1.1%	4 13.8%	1 1.9%	2 3.0%	69 3.6%
전체	226 100.0%	136 100.0%	300 100.0%	131 100.0%	113 100.0%	192 100.0%	270 100.0%	308 100.0%	87 100.0%	29 100.0%	54 100.0%	67 100.0%	1913 100.0%

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질문에 실업문제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3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부패(22.8%), 빈부의 격차(18.0%) 순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교육대와 간호대는 부정부패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단과대학들은 실업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성별

성별에 따른 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35와 같다.

표 135. 성별 사회가 당면한 문제

	성별구분		전체
	남자	여자	
경제성장	47 5.1%	52 5.3%	99 5.2%
실업문제	274 29.5%	300 30.5%	574 30.0%
빈부의 격차	176 19.0%	168 17.1%	344 18.0%
향락 및 사치문제	6 .6%	13 1.3%	19 1.0%
정치적 불안정	80 8.6%	91 9.2%	171 8.9%
부정부패	202 21.8%	235 23.9%	437 22.8%
청소년 비행	11 1.2%	6 .6%	17 .9%
환경오염	14 1.5%	30 3.0%	44 2.3%
사회질서	45 4.8%	33 3.4%	78 4.1%
국가안보	16 1.7%	12 1.2%	28 1.5%
불신풍조	16 1.7%	17 1.7%	33 1.7%
기타	41 4.4%	28 2.8%	69 3.6%
전체	928 100.0%	985 100.0%	1913 100.0%

사
회
가
당
면
한
문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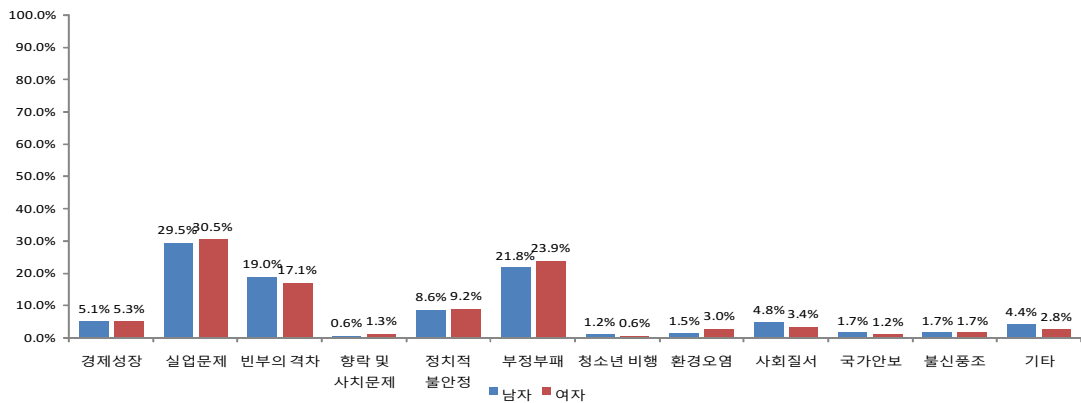


그림 89. 성별 사회가 당면한 문제

성별에 따른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살펴보면 남·여 학생들 각각 29.5%, 30.5%로 실업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출신지역별

출신지역에 따른 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36과 같다.

표 136. 출신지역별 사회가 당면한 문제

	지역구분		전체	
	도내	도외		
사 회 가 당 면 한 문 제	경제성장	85 5.5%	14 3.8%	99 5.2%
	실업문제	480 31.1%	94 25.3%	574 30.0%
	빈부의 격차	267 17.3%	77 20.8%	344 18.0%
	향락 및 사치문제	14 .9%	5 1.3%	19 1.0%
	정치적 불안정	141 9.1%	30 8.1%	171 8.9%
	부정부패	347 22.5%	90 24.3%	437 22.8%
	청소년 비행	15 1.0%	2 .5%	17 .9%
	환경오염	37 2.4%	7 1.9%	44 2.3%
	사회질서	58 3.8%	20 5.4%	78 4.1%
	국가안보	19 1.2%	9 2.4%	28 1.5%
	불신풍조	25 1.6%	8 2.2%	33 1.7%
	기타	54 3.5%	15 4.0%	69 3.6%
	전체	1542 100.0%	371 100.0%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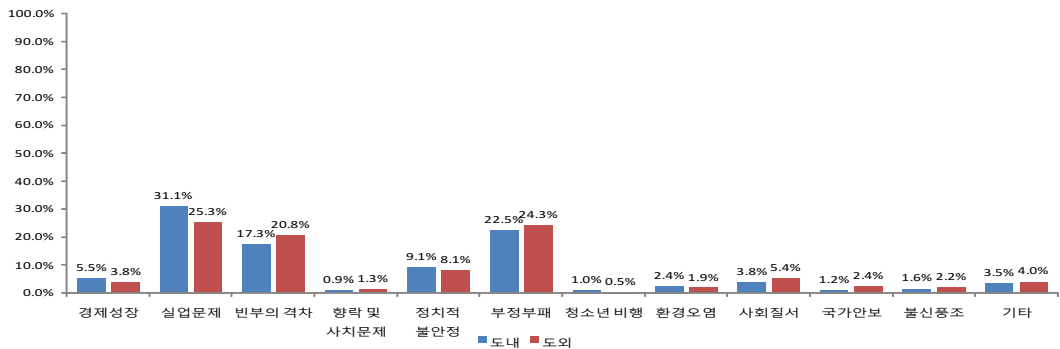


그림 90. 출신지역별 사회가 당면한 문제

출신 지역에 따른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살펴보면 도내·외 출신 학생들 각각 31.1%, 25.3%로 실업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6) 제주도민이 겪고 있는 문제점

- 단과대학별

단과대학에 따른 제주도민이 겪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37과 같다.

표 137. 단과대학별 제주도민이 겪고 있는 문제점

	대학구분												전체	
	인문 대	사회 대	경상 대	사범 대	생명 대	해양 대	자연 대	공과 대	교육 대	수의 대	간호 대	예술 대		
제주도민이 겪고 있는 문제점	지역개발문제	91 40.3%	68 50.0%	126 42.0%	46 35.1%	52 46.0%	73 38.0%	96 35.6%	96 31.2%	23 26.4%	7 24.1%	18 33.3%	37 55.2%	733 38.3%
	청소년 비행문제	7 3.1%	7 5.1%	10 3.3%	2 1.5%	4 3.5%	7 3.6%	12 4.4%	14 4.5%	0 .0%	0 .0%	1 1.9%	3 4.5%	67 3.5%
	농업문제	6 2.7%	7 5.1%	3 1.0%	3 2.3%	7 6.2%	3 1.6%	5 1.9%	10 3.2%	4 4.6%	0 .0%	0 .0%	1 1.5%	49 2.6%
	교통문제	8 3.5%	5 3.7%	12 4.0%	2 1.5%	1 .9%	12 6.3%	4 1.5%	15 4.9%	8 9.2%	5 17.2%	1 1.9%	1 1.5%	74 3.9%
	환경 보존문제	43 19.0%	9 6.6%	53 17.7%	18 13.7%	13 11.5%	27 14.1%	41 15.2%	44 14.3%	2 2.3%	1 3.4%	14 25.9%	8 11.9%	273 14.3%
	문화시설의 낙후성	25 11.1%	14 10.3%	34 11.3%	18 13.7%	13 11.5%	21 10.9%	26 9.6%	32 10.4%	11 12.6%	6 20.7%	3 5.6%	9 13.4%	212 11.1%
	교육문제	8 3.5%	3 2.2%	13 4.3%	7 5.3%	2 1.8%	6 3.1%	11 4.1%	23 7.5%	3 3.4%	1 3.4%	1 1.9%	0 .0%	78 4.1%
잘 모르겠음	38 16.8%	23 16.9%	49 16.3%	35 26.7%	21 18.6%	43 22.4%	75 27.8%	74 24.0%	36 41.4%	9 31.0%	16 29.6%	8 11.9%	427 22.3%	
전체	226 100.0%	136 100.0%	300 100.0%	131 100.0%	113 100.0%	192 100.0%	270 100.0%	308 100.0%	87 100.0%	29 100.0%	54 100.0%	67 100.0%	1913 100.0%	

제주도민이 겪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지역개발문제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의 38.3%로 가장 높았으며 잘 모르겠음(22.3%), 환경 보존문제(14.3%), 문화시설의 낙후성(11.1%)순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모든 대학에서 지역개발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성별

성별에 따른 제주도민이 겪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38과 같다.

표 138. 성별 제주도민이 겪고 있는 문제점

	성별구분		전체	
	남자	여자		
제주도민이 겪고 있는 문제점	지역개발문제	330 35.6%	403 40.9%	733 38.3%
	청소년 비행문제	46 5.0%	21 2.1%	67 3.5%
	농업문제	27 2.9%	22 2.2%	49 2.6%
	교통문제	51 5.5%	23 2.3%	74 3.9%
	환경 보존문제	105 11.3%	168 17.1%	273 14.3%
	문화시설의 낙후성	97 10.5%	115 11.7%	212 11.1%
	교육문제	46 5.0%	32 3.2%	78 4.1%
	잘 모르겠음	226 24.4%	201 20.4%	427 22.3%
전체	928 100.0%	985 100.0%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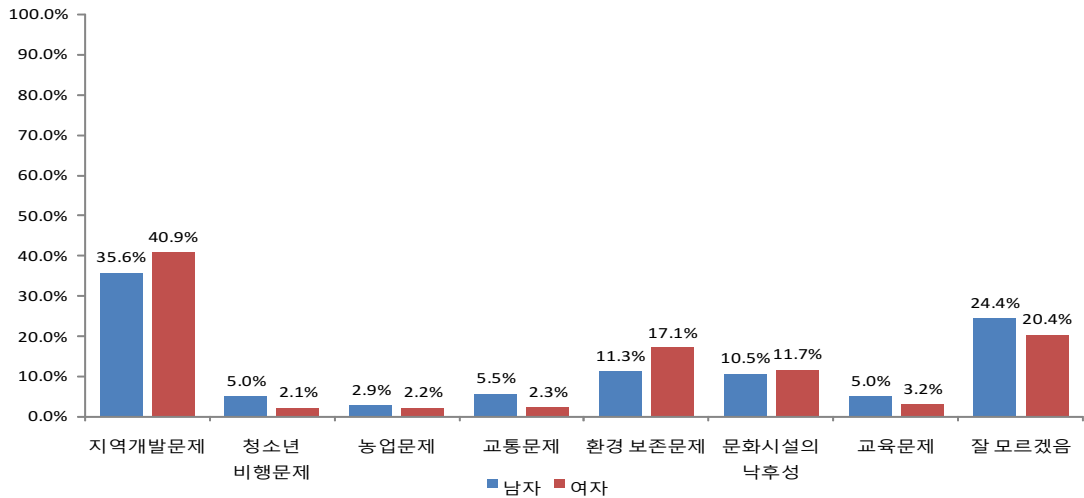


그림 91. 성별 제주도민이 겪고 있는 문제점

성별에 따른 제주도민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남·여 학생들 각각 35.6%, 40.9%로 지역개발문제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출신지역별

출신지역에 따른 제주도민이 겪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39와 같다.

표 139. 출신지역별 제주도민이 겪고 있는 문제점

		지역구분		전체
		도내	도외	
제주도민이 겪고 있는 문제점	지역개발문제	641 41.6%	92 24.8%	733 38.3%
	청소년 비행문제	60 3.9%	7 1.9%	67 3.5%
	농업문제	46 3.0%	3 .8%	49 2.6%
	교통문제	40 2.6%	34 9.2%	74 3.9%
	환경 보존문제	240 15.6%	33 8.9%	273 14.3%
	문화시설의 낙후성	182 11.8%	30 8.1%	212 11.1%
	교육문제	74 4.8%	4 1.1%	78 4.1%
	잘 모르겠음	259 16.8%	168 45.3%	427 22.3%
	전체	1542 100.0%	371 100.0%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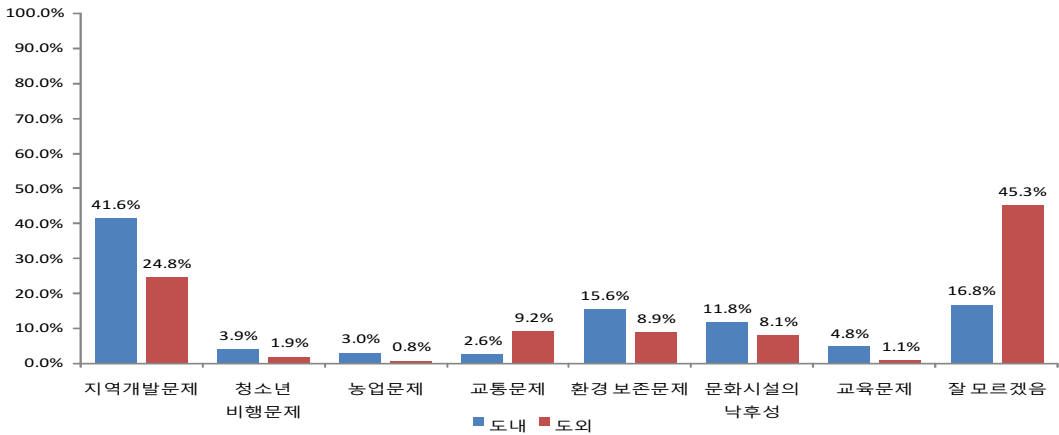


그림 92. 출신지역별 제주도민이 겪고 있는 문제점

출신 지역에 따른 제주도민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도내 출신 학생들 중 41.6%가 지역개발문제라 응답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도외 출신 학생들은 잘 모르겠음(45.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6. 취업전략본부 관련

1) 대학생활 중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주요 상담원

- 단과대학별

단과대학에 따른 대학생활 중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주요 상담원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40과 같다.

표 140. 단과대학별 대학생활의 어려움을 상담할 대상

		대학구분												
		인문 대	사회 대	경상 대	사범 대	생명 대	해양 대	자연 대	공과 대	교육 대	수의 대	간호 대	예술 대	전체
대학생활의 어려움을 상담할 대상	아버지	20 8.8%	16 11.8%	33 11.0%	14 10.7%	17 15.0%	29 15.1%	30 11.1%	34 11.0%	6 6.9%	5 17.2%	2 3.7%	14 20.9%	220 11.5%
	어머니	44 19.5%	25 18.4%	75 25.0%	30 22.9%	26 23.0%	39 20.3%	71 26.3%	64 20.8%	16 18.4%	11 37.9%	10 18.5%	14 20.9%	425 22.2%
	형제, 자매	26 11.5%	12 8.8%	34 11.3%	10 7.6%	16 14.2%	24 12.5%	28 10.4%	40 13.0%	7 8.0%	4 13.8%	11 20.4%	4 6.0%	216 11.3%
	친척	2 .9%	3 2.2%	4 1.3%	0 .0%	1 .9%	4 2.1%	3 1.1%	5 1.6%	0 .0%	0 .0%	1 1.9%	1 1.5%	24 1.3%
친구	친구	86 38.1%	46 33.8%	116 38.7%	49 37.4%	39 34.5%	65 33.9%	96 35.6%	106 34.4%	37 42.5%	3 10.3%	23 42.6%	21 31.3%	687 35.9%
	선후배	25 11.1%	15 11.0%	23 7.7%	15 11.5%	6 5.3%	12 6.3%	13 4.8%	20 6.5%	8 9.2%	2 6.9%	3 5.6%	4 6.0%	146 7.6%
교수	교수	3 1.3%	2 1.5%	1 .3%	2 1.5%	2 1.8%	3 1.6%	2 .7%	4 1.3%	6 6.9%	0 .0%	0 .0%	1 1.5%	26 1.4%
	대학내 상담실 (취업전략본부)	4 1.8%	4 2.9%	2 .7%	2 1.5%	2 1.8%	4 2.1%	5 1.9%	6 1.9%	0 .0%	0 .0%	0 .0%	0 .0%	29 1.5%
	교외 상담기관	0 .0%	1 .7%	1 .3%	0 .0%	0 .0%	1 .5%	2 .7%	2 .6%	0 .0%	0 .0%	0 .0%	0 .0%	7 .4%
혼자	16 7.1%	12 8.8%	11 3.7%	9 6.9%	4 3.5%	11 5.7%	20 7.4%	27 8.8%	7 8.0%	4 13.8%	4 7.4%	8 11.9%	133 7.0%	
전체	226 100.0%	136 100.0%	300 100.0%	131 100.0%	113 100.0%	192 100.0%	270 100.0%	308 100.0%	87 100.0%	29 100.0%	54 100.0%	67 100.0%	1913 100.0%	

대학생활 중 어려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상담할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친구라고 응답한 학생 비율이 3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어머니(22.2%), 아버지(11.5%), 형제·자매(11.3%) 순으로 나타났다. 혼자 해결한다는 학생도 7.0%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수의대는 어머니가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단과대학은 친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성별

성별에 따른 대학생활 중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주요 상담원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41과 같다.

표 141. 성별 대학생활의 어려움을 상담할 대상

	성별구분		전체	
	남자	여자		
대학생활의	아버지	144 15.5%	76 7.7%	220 11.5%
	어머니	170 18.3%	255 25.9%	425 22.2%
	형제, 자매	89 9.6%	127 12.9%	216 11.3%
	친척	10 1.1%	14 1.4%	24 1.3%
어려움을	친구	293 31.6%	394 40.0%	687 35.9%
	선후배	93 10.0%	53 5.4%	146 7.6%
상담할	교수	19 2.0%	7 .7%	26 1.4%
	대학내 상담실 (취업전략본부)	23 2.5%	6 .6%	29 1.5%
대상	교외 상담기관	1 .1%	6 .6%	7 .4%
	혼자	86 9.3%	47 4.8%	133 7.0%
전체	928 100.0%	985 100.0%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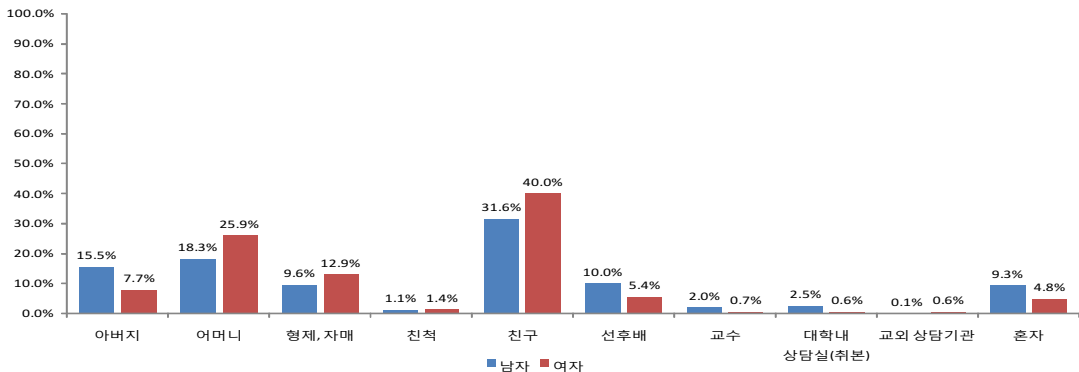


그림 93. 성별 대학생활의 어려움을 상담할 대상

성별에 따른 대학생활 중 어려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상담할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남·여 학생들 각각 31.6%, 40.0%로 친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출신지역별

출신지역에 따른 대학생활 중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주요 상담원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42와 같다.

표 142. 출신지역별 대학생활의 어려움을 상담할 대상

	지역구분		전체	
	도내	도외		
대학생활의 어려움을 상담할 대상	아버지	140 9.1%	80 21.6%	220 11.5%
	어머니	332 21.5%	93 25.1%	425 22.2%
	형제, 자매	187 12.1%	29 7.8%	216 11.3%
	친척	21 1.4%	3 .8%	24 1.3%
친구	587 38.1%	100 27.0%	687 35.9%	
	선후배	117 7.6%	29 7.8%	146 7.6%
교수	20 1.3%	6 1.6%	26 1.4%	
	대학내 상담실 (취업전략본부)	26 1.7%	3 .8%	29 1.5%
	교외 상담기관	7 .5%	0 .0%	7 .4%
혼자	105 6.8%	28 7.5%	133 7.0%	
전체	1542 100.0%	371 100.0%	1913 100.0%	

출신 지역에 따른 대학생활 중 어려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상담할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내·외 학생들 각각 38.1%, 27.0%로 친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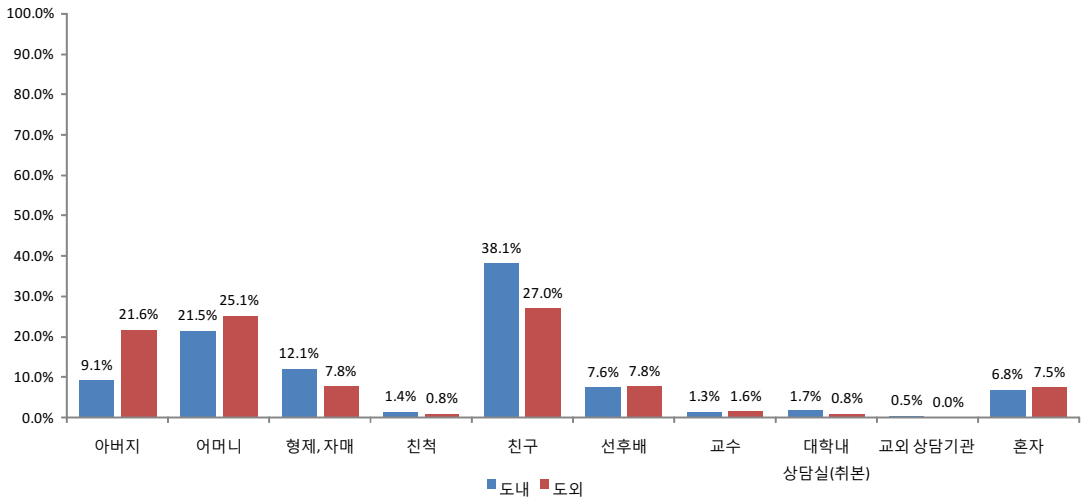


그림 94. 출신지역별 대학생들의 어려움을 상담할 대상

2) 취업전략본부에서의 상담 희망 여부

- 단과대학별

단과대학에 따른 취업전략본부에서의 상담 희망 여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43과 같다.

표 143. 단과대학별 취업전략본부에서의 상담 희망 여부

상담 희망 여부	대학구분												전체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교육대	수의대	간호대	예술대	
받고 싶음	159	95	221	88	82	117	175	195	56	19	37	35	1279
	70.4%	69.9%	73.7%	67.2%	72.6%	60.9%	64.8%	63.3%	64.4%	65.5%	68.5%	52.2%	66.9%
받고 싶지 않음	67	41	79	43	31	75	95	113	31	10	17	32	634
	29.6%	30.1%	26.3%	32.8%	27.4%	39.1%	35.2%	36.7%	35.6%	34.5%	31.5%	47.8%	33.1%
전체	226	136	300	131	113	192	270	308	87	29	54	67	191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취업전략본부에서의 상담 희망 여부에 대해 66.9%의 학생들이 받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모든 대학에서 약 65% 학생들이 상담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

- 성별

성별에 따른 취업전략본부에서의 상담 희망 여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44와 같다.

표 144. 성별 취업전략본부에서의 상담 희망 여부

		성별구분		전체
		남자	여자	
상담희망여부	받고싶음	569 61.3%	710 72.1%	1279 66.9%
	받고싶지않음	359 38.7%	275 27.9%	634 33.1%
전체		928 100.0%	985 100.0%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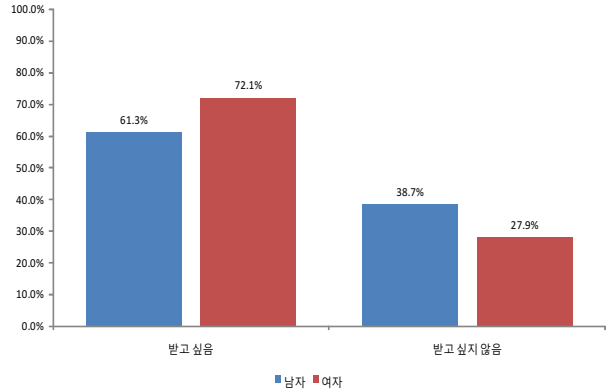


그림 95. 성별 취업전략본부에서의 상담 희망 여부

성별에 따른 상담 희망 여부에 대해 남학생은 61.3%가 희망한다고 하였으며 여학생들은 72.1%가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

- 출신지역별

출신지역에 따른 취업전략본부에서의 상담 희망 여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45와 같다.

표 145. 출신지역별 취업전략본부에서의 상담 희망 여부

		지역구분		전체
		도내	도외	
상담희망여부	받고싶음	1026 66.5%	253 68.2%	1279 66.9%
	받고싶지않음	516 33.5%	118 31.8%	634 33.1%
전체		1542 100.0%	371 100.0%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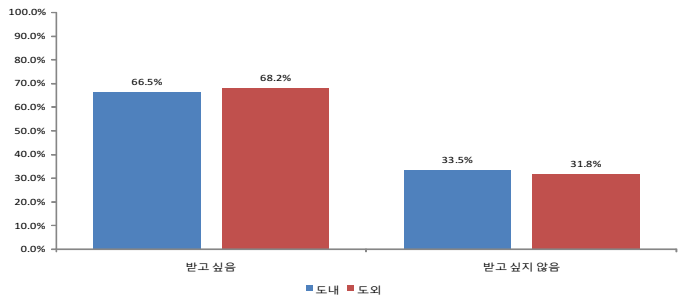


그림 96. 출신지역별 취업전략본부에서의 상담 희망 여부

출신 지역에 따른 상담 희망 여부에 대해 도내 출신 학생들은 66.5%가 희망하고 도외 출신 학생들은 68.2%가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최근 3개월간 외로움 경험정도

- 단과대학별

단과대학에 따른 최근 3개월간 외로움 경험정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46과 같다.

표 146. 단과대학별 최근 3개월간 외로움 경험정도

		대학구분											전체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교육대	수의대	간호대		예술대
외로움	전혀 없음	76 33.6%	42 30.9%	106 35.3%	39 29.8%	41 36.3%	68 35.4%	94 34.8%	132 42.9%	14 16.1%	9 31.0%	15 27.8%	28 41.8%	664 34.7%
	가끔 그러함	103 45.6%	74 54.4%	136 45.3%	70 53.4%	58 51.3%	94 49.0%	137 50.7%	131 42.5%	49 56.3%	16 55.2%	26 48.1%	34 50.7%	928 48.5%
경험정도	자주 그러함	33 14.6%	15 11.0%	49 16.3%	16 12.2%	9 8.0%	27 14.1%	31 11.5%	42 13.6%	18 20.7%	2 6.9%	11 20.4%	3 4.5%	256 13.4%
	거의 항상 그러함	14 6.2%	5 3.7%	9 3.0%	6 4.6%	5 4.4%	3 1.6%	8 3.0%	3 1.0%	6 6.9%	2 6.9%	2 3.7%	2 3.0%	65 3.4%
전체		226 100.0%	136 100.0%	300 100.0%	131 100.0%	113 100.0%	192 100.0%	270 100.0%	308 100.0%	87 100.0%	29 100.0%	54 100.0%	67 100.0%	1913 100.0%

최근 3개월간 외로움에 대한 경험 정도에 대해 가끔 그러하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4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혀없음(34.7%), 자주 그러함(13.4%), 거의 항상 그러함(3.4%) 순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인문대, 교육대, 수의대의 약 7% 학생들이 항상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 성별

성별에 따른 최근 3개월간 외로움 경험정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47과 같다.

표 147. 성별 최근 3개월간 외로움 경험정도

		성별구분		전체
		남자	여자	
외로움	전혀 없음	376 40.5%	288 29.2%	664 34.7%
	가끔 그러함	415 44.7%	513 52.1%	928 48.5%
경험정도	자주 그러함	101 10.9%	155 15.7%	256 13.4%
	거의 항상 그러함	36 3.9%	29 2.9%	65 3.4%
전체		928 100.0%	985 100.0%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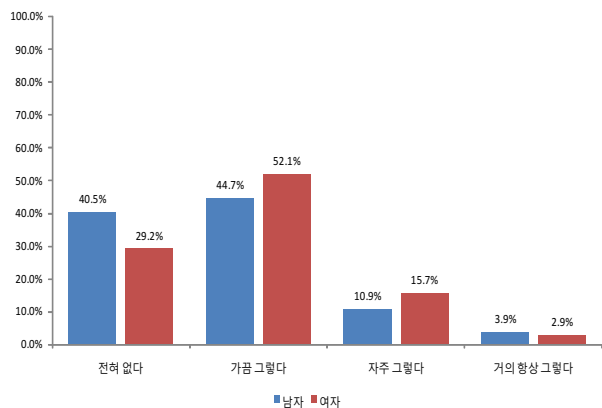


그림 97. 성별 최근 3개월간 외로움 경험정도

성별에 따른 최근 3개월간 외로움에 대한 경험 정도를 살펴보면 남학생·여학생 각각 44.7%, 52.1%로 가끔 그러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출신지역별

출신지역에 따른 최근 3개월간 외로움 경험정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48과 같다.

표 148. 출신지역별 최근 3개월간 외로움 경험정도

		지역구분		전체
		도내	도외	
외로움	전혀 없음	568 36.8%	96 25.9%	664 34.7%
	가끔 그러함	736 47.7%	192 51.8%	928 48.5%
경험정도	자주 그러함	189 12.3%	67 18.1%	256 13.4%
	거의 항상 그러함	49 3.2%	16 4.3%	65 3.4%
전체		1542 100.0%	371 100.0%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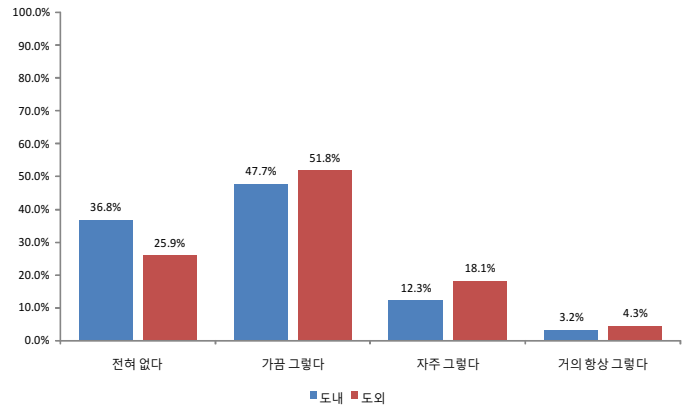


그림 98. 출신지역별 최근 3개월간 외로움 경험정도

출신 지역에 따른 최근 3개월간 외로움에 대한 경험 정도를 살펴보면 도내·외 학생 각각 47.7%, 51.8%로 가끔 그러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최근 3개월간 불안 경험정도

- 단과대학별

단과대학에 따른 최근 3개월간 불안 경험정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49와과 같다.

표 149. 단과대학별 최근 3개월간 불안 경험정도

		대학구분												전체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교육대	수의대	간호대	예술대	
불안 경험정도	전혀 없음	83 36.7%	68 50.0%	137 45.7%	43 32.8%	53 46.9%	100 52.1%	109 40.4%	134 43.5%	35 40.2%	14 48.3%	20 37.0%	27 40.3%	823 43.0%
	가끔 그러함	108 47.8%	48 35.3%	124 41.3%	67 51.1%	49 43.4%	70 36.5%	113 41.9%	136 44.2%	39 44.8%	11 37.9%	21 38.9%	32 47.8%	818 42.8%
	자주 그러함	27 11.9%	18 13.2%	35 11.7%	21 16.0%	8 7.1%	20 10.4%	41 15.2%	33 10.7%	8 9.2%	4 13.8%	8 14.8%	4 6.0%	227 11.9%
	거의 항상 그러함	8 3.5%	2 1.5%	4 1.3%	0 .0%	3 2.7%	2 1.0%	7 2.6%	5 1.6%	5 5.7%	0 .0%	5 9.3%	4 6.0%	45 2.4%
전체		226 100.0%	136 100.0%	300 100.0%	131 100.0%	113 100.0%	192 100.0%	270 100.0%	308 100.0%	87 100.0%	29 100.0%	54 100.0%	67 100.0%	1913 100.0%

최근 3개월간 불안에 대한 경험 정도에 대해 전혀 없음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4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끔 그러함(42.8%), 자주 그러함(11.9%), 거의 항상 그러함(2.4%) 순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간호대의 경우 9.3%가 항상 불안을 느낀다고 응답하였으며 예술대는 6.0%가 항상 불안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 성별

성별에 따른 최근 3개월간 불안 경험 정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50과 같다.

표 150. 성별 최근 3개월간 불안 경험정도

불안 경험정도	성별구분		전체
	남자	여자	
전혀 없음	463 49.9%	360 36.5%	823 43.0%
가끔 그러함	354 38.1%	464 47.1%	818 42.8%
자주 그러함	89 9.6%	138 14.0%	227 11.9%
거의 항상 그러함	22 2.4%	23 2.3%	45 2.4%
전체	928 100.0%	985 100.0%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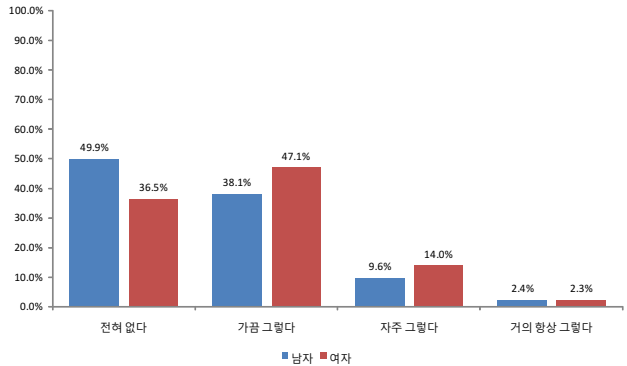


그림 99. 성별 최근 3개월간 불안 경험정도

성별에 따른 최근 3개월간 불안에 대한 경험 정도를 살펴보면 남학생은 전혀 없음이 49.9%로 가장 높았으며 여학생은 가끔 그러함이 4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출신지역별

출신지역에 따른 최근 3개월간 불안 경험 정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51과 같다.

표 151. 출신지역별 최근 3개월간 불안 경험정도

불안 경험정도	지역구분		전체
	도내	도외	
전혀 없음	656 42.5%	167 45.0%	823 43.0%
가끔 그러함	680 44.1%	138 37.2%	818 42.8%
자주 그러함	175 11.3%	52 14.0%	227 11.9%
거의 항상 그러함	31 2.0%	14 3.8%	45 2.4%
전체	1542 100.0%	371 100.0%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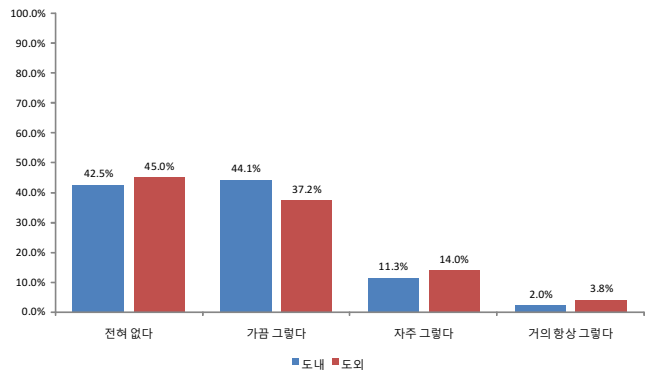


그림 100. 출신지역별 최근 3개월간 불안 경험정도

출신 지역에 따른 최근 3개월간 불안에 대한 경험 정도를 살펴보면 도내 출신 학생은 가끔 그러함이 4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도외 출신 학생들은 전혀 없음이 4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5) 최근 3개월간 분노 경험정도

- 단과대학별

단과대학에 따른 최근 3개월간 분노 경험정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52와 같다.

표 152. 단과대학별 최근 3개월간 분노 경험정도

		대학구분												전체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교육대	수의대	간호대	예술대	
분 노 경 험 정 도	전혀 없음	120 53.1%	84 61.8%	168 56.0%	73 55.7%	63 55.8%	113 58.9%	140 51.9%	184 59.7%	45 51.7%	16 55.2%	27 50.0%	33 49.3%	1066 55.7%
	가끔 그러함	89 39.4%	40 29.4%	109 36.3%	49 37.4%	43 38.1%	64 33.3%	112 41.5%	103 33.4%	36 41.4%	11 37.9%	24 44.4%	30 44.8%	710 37.1%
	자주 그러함	13 5.8%	10 7.4%	21 7.0%	9 6.9%	6 5.3%	12 6.3%	17 6.3%	18 5.8%	3 3.4%	2 6.9%	3 5.6%	2 3.0%	116 6.1%
	거의 항상 그러함	4 1.8%	2 1.5%	2 .7%	0 .0%	1 .9%	3 1.6%	1 .4%	3 1.0%	3 3.4%	0 .0%	0 .0%	2 3.0%	21 1.1%
전체		226 100.0%	136 100.0%	300 100.0%	131 100.0%	113 100.0%	192 100.0%	270 100.0%	308 100.0%	87 100.0%	29 100.0%	54 100.0%	67 100.0%	1913 100.0%

최근 3개월간 분노에 대한 경험 정도에 대해 전혀 없음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5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끔 그러함(37.1%), 자주 그러함(6.1%), 거의 항상 그러함(1.1%) 순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교육대 경우 3.4%가 항상 분노를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 성별

성별에 따른 최근 3개월간 분노 경험정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53과 같다.

표 153. 성별 최근 3개월간 분노 경험정도

	성별구분		전체	
	남자	여자		
분노 경험정도	전혀 없음	550 59.3%	516 52.4%	1066 55.7%
	가끔 그러함	313 33.7%	397 40.3%	710 37.1%
	자주 그러함	51 5.5%	65 6.6%	116 6.1%
	거의 항상 그러함	14 1.5%	7 .7%	21 1.1%
전체	928 100.0%	985 100.0%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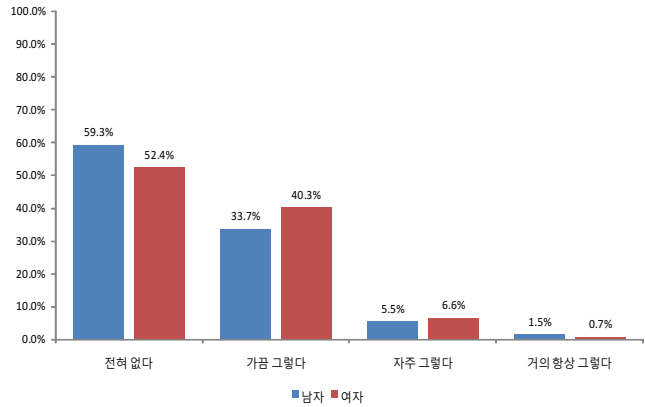


그림 101. 성별 최근 3개월간 분노 경험정도

성별에 따른 최근 3개월간 분노에 대한 경험 정도를 살펴보면 남학생·여학생 각각 59.3%, 52.4%로 전혀 없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출신지역별

출신지역에 따른 최근 3개월간 분노 경험정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54와 같다.

표 154. 출신지역별 최근 3개월간 분노 경험정도

	지역구분		전체	
	도내	도외		
분노 경험정도	전혀 없음	854 55.4%	212 57.1%	1066 55.7%
	가끔 그러함	581 37.7%	129 34.8%	710 37.1%
	자주 그러함	94 6.1%	22 5.9%	116 6.1%
	거의 항상 그러함	13 .8%	8 2.2%	21 1.1%
전체	1542 100.0%	371 100.0%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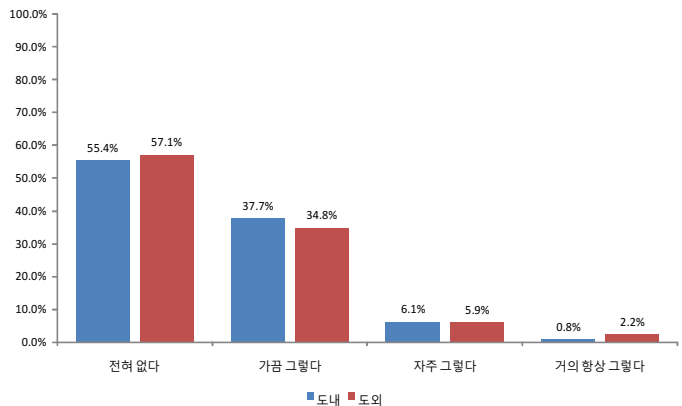


그림 102. 출신지역별 최근 3개월간 분노 경험정도

출신 지역에 따른 최근 3개월간 분노에 대한 경험 정도를 살펴보면 도내·외 출신 학생들 각각 55.4%, 57.1%로 전혀 없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6) 최근 3개월간 우울, 무기력 경험정도

- 단과대학별

단과대학에 따른 최근 3개월간 우울, 무기력 경험정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55와 같다.

표 155. 단과대학별 최근 3개월간 우울, 무기력 경험정도

		대학구분												전체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교육대	수의대	간호대	예술대	
우울 무기력	전혀 없음	100 44.2%	59 43.4%	132 44.0%	46 35.1%	56 49.6%	94 49.0%	111 41.1%	160 51.9%	31 35.6%	13 44.8%	21 38.9%	30 44.8%	853 44.6%
	가끔 그러함	87 38.5%	51 37.5%	120 40.0%	71 54.2%	42 37.2%	74 38.5%	119 44.1%	117 38.0%	42 48.3%	12 41.4%	21 38.9%	29 43.3%	785 41.0%
경험 정도	자주 그러함	26 11.5%	22 16.2%	42 14.0%	13 9.9%	12 10.6%	22 11.5%	32 11.9%	26 8.4%	10 11.5%	4 13.8%	8 14.8%	6 9.0%	223 11.7%
	거의 항상 그러함	13 5.8%	4 2.9%	6 2.0%	1 .8%	3 2.7%	2 1.0%	8 3.0%	5 1.6%	4 4.6%	0 .0%	4 7.4%	2 3.0%	52 2.7%
전체		226 100.0%	136 100.0%	300 100.0%	131 100.0%	113 100.0%	192 100.0%	270 100.0%	308 100.0%	87 100.0%	29 100.0%	54 100.0%	67 100.0%	1913 100.0%

최근 3개월간 우울·무기력에 대한 경험 정도에 대해 전혀 없음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4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끔 그러함(41.0%), 자주 그러함(11.7%), 거의 항상 그러함(2.7%) 순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인문대(5.8%), 간호대(7.4%)의 경우 타 대학과 비교하여 항상 우울·무기력을 경험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성별

성별에 따른 최근 3개월간 우울, 무기력 경험정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56과 같다.

표 156. 성별 최근 3개월간 우울, 무기력 경험정도

		성별구분		전체
		남자	여자	
우울 무기력	전혀 없음	513 55.3%	340 34.5%	853 44.6%
	가끔 그러함	320 34.5%	465 47.2%	785 41.0%
	자주 그러함	71 7.7%	152 15.4%	223 11.7%
경험 정도	거의 항상 그러함	24 2.6%	28 2.8%	52 2.7%
	전체	928 100.0%	985 100.0%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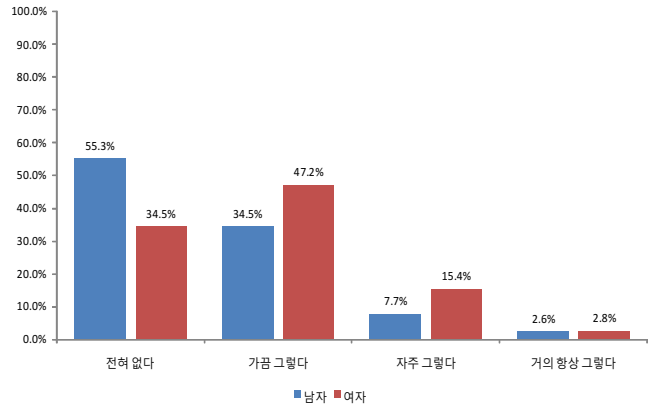


그림 103. 성별 최근 3개월간 우울, 무기력 경험정도

성별에 따른 최근 3개월간 우울·무기력에 대한 경험 정도를 살펴보면 남학생들은 전혀 없음이 5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들은 가끔 그러함이 4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출신지역별

출신지역에 따른 최근 3개월간 우울, 무기력 경험정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57과 같다.

표 157. 출신지역별 최근 3개월간 우울, 무기력 경험정도

		지역구분		전체
		도내	도외	
우울 무기력	전혀 없음	692 44.9%	161 43.4%	853 44.6%
	가끔 그러함	634 41.1%	151 40.7%	785 41.0%
	자주 그러함	175 11.3%	48 12.9%	223 11.7%
경험 정도	거의 항상 그러함	41 2.7%	11 3.0%	52 2.7%
	전체	1542 100.0%	371 100.0%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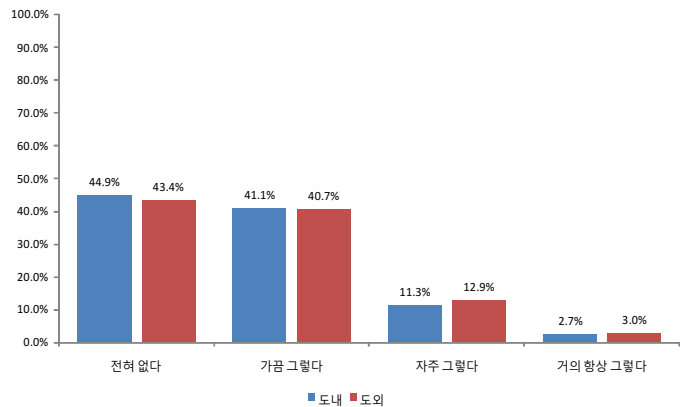


그림 104. 출신지역별 최근 3개월간 우울, 무기력 경험정도

출신 지역에 따른 최근 3개월간 우울·무기력에 대한 경험 정도를 살펴보면 도내·외 출신 학생들 각각 44.9%, 43.4%로 전혀 없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7) 최근 3개월간 자살충동 경험정도

- 단과대학별

단과대학에 따른 최근 3개월간 자살충동 경험정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58과 같다.

표 158. 단과대학별 최근 3개월간 자살충동 경험정도

		대학구분											전체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교육대	수의대	간호대		예술대
자 살 충 동	전혀 없음	207 91.6%	129 94.9%	279 93.0%	122 93.1%	108 95.6%	180 93.8%	233 86.3%	280 90.9%	82 94.3%	29 100.0%	51 94.4%	63 94.0%	1763 92.2%
	가끔 그러함	17 7.5%	6 4.4%	20 6.7%	8 6.1%	5 4.4%	9 4.7%	35 13.0%	24 7.8%	4 4.6%	0 .0%	3 5.6%	4 6.0%	135 7.1%
	자주 그러함	1 .4%	1 .7%	1 .3%	1 .8%	0 .0%	1 .5%	2 .7%	2 .6%	1 1.1%	0 .0%	0 .0%	0 .0%	10 .5%
경 험 정 도	거의 항상 그러함	1 .4%	0 .0%	0 .0%	0 .0%	0 .0%	2 1.0%	0 .0%	2 .6%	0 .0%	0 .0%	0 .0%	0 .0%	5 .3%
	전체	226 100.0%	136 100.0%	300 100.0%	131 100.0%	113 100.0%	192 100.0%	270 100.0%	308 100.0%	87 100.0%	29 100.0%	54 100.0%	67 100.0%	1913 100.0%

최근 3개월간 자살충동에 대한 경험 정도에 대해 전혀 없음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9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끔 그러함(7.1%), 자주 그러함(0.5%), 거의 항상 그러함(0.3%) 순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자살충동을 느끼는 학생의 비율이 자연대가 1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항상 자살충동을 느끼는 비율은 해양대가 1%로 높게 나타났다.

- 성별

성별에 따른 최근 3개월간 자살충동 경험정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59와 같다.

표 159. 성별 최근 3개월간 자살충동 경험정도

		성별구분		전체
		남자	여자	
자살충동	전혀 없음	862 92.9%	901 91.5%	1763 92.2%
	가끔 그러함	57 6.1%	78 7.9%	135 7.1%
경험정도	자주 그러함	5 .5%	5 .5%	10 .5%
	거의 항상 그러함	4 .4%	1 .1%	5 .3%
전체		928 100.0%	985 100.0%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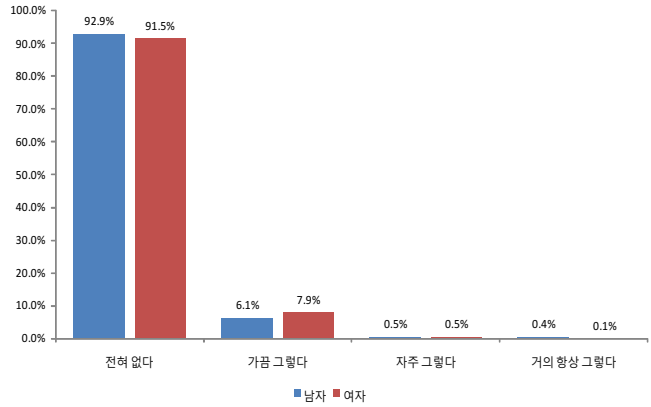


그림 105. 성별 최근 3개월간 자살충동 경험정도

성별에 따른 최근 3개월간 자살충동에 대한 경험 정도를 살펴보면 남학생들은 전혀 없음이 9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들도 전혀 없음이 9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학생의 0.4%, 여학생의 0.1%는 항상 자살충동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 출신지역별

출신지역에 따른 최근 3개월간 자살충동 경험정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60과 같다.

표 160. 출신지역별 최근 3개월간 자살충동 경험정도

		지역구분		전체
		도내	도외	
자살충동	전혀 없음	1415 91.8%	348 93.8%	1763 92.2%
	가끔 그러함	116 7.5%	19 5.1%	135 7.1%
경험정도	자주 그러함	7 .5%	3 .8%	10 .5%
	거의 항상 그러함	4 .3%	1 .3%	5 .3%
전체		1542 100.0%	371 100.0%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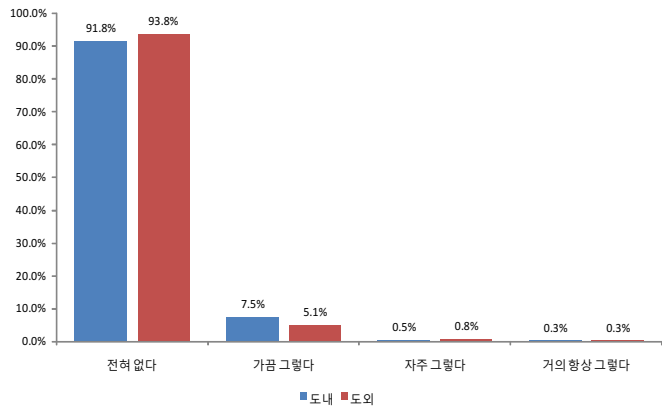


그림 106. 출신지역별 최근 3개월간 자살충동 경험정도

출신 지역에 따른 최근 3개월간 자살충동에 대한 경험 정도를 살펴보면 도내·외 출신 학생들 각각 91.8%, 93.8%로 전혀 없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도·내외 0.3%의 학생들은 항상 자살충동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8) 학내 심리상담 전문가가 있다면 상담 희망 여부

- 단과대학별

단과대학에 따른 학내 심리상담 전문가가 있다면 상담 희망 여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61과 같다.

표 161. 단과대학별 학내 심리상담 전문가와의 상담 희망 여부

		대학구분												전체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교육대	수의대	간호대	예술대	
상담 희망 여부	받고 싶음	145 64.2%	76 55.9%	172 57.3%	73 55.7%	64 56.6%	97 50.5%	155 57.4%	141 45.8%	49 56.3%	17 58.6%	29 53.7%	32 47.8%	1050 54.9%
	받고 싶지 않음	81 35.8%	60 44.1%	128 42.7%	58 44.3%	49 43.4%	95 49.5%	115 42.6%	167 54.2%	38 43.7%	12 41.4%	25 46.3%	35 52.2%	863 45.1%
전체		226 100.0%	136 100.0%	300 100.0%	131 100.0%	113 100.0%	192 100.0%	270 100.0%	308 100.0%	87 100.0%	29 100.0%	54 100.0%	67 100.0%	1913 100.0%

학내 심리상담 전문가가 있다면 상담 희망에 대한 질문에 받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54.9%로 나타났다. 자연대와 예술대의 경우에는 받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4.2%, 52.2%로 나타났다.

- 성별

성별에 따른 학내 심리상담 전문가가 있다면 상담 희망 여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62와 같다.

표 162. 성별 학내 심리상담 전문가와의 상담 희망 여부

		성별구분		전체
		남자	여자	
상담 희망 여부	받고 싶음	449 48.4%	601 61.0%	1050 54.9%
	받고 싶지 않음	479 51.6%	384 39.0%	863 45.1%
전체		928 100.0%	985 100.0%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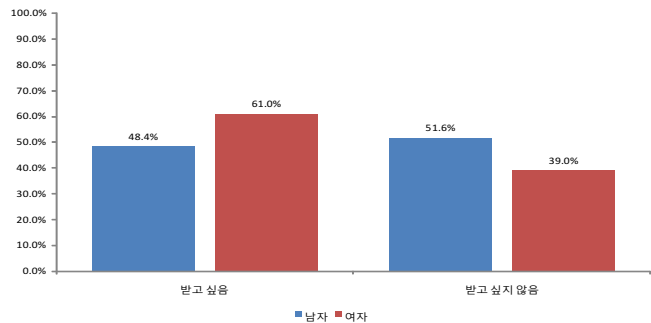


그림 107. 성별 학내 심리상담 전문가와의 상담 희망 여부

성별에 따른 심리상담 전문가가 있다면 상담 희망 여부를 살펴보면 남학생들 중 51.6%가 받고 싶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여학생들은 61.0%가 받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 출신지역별

출신지역에 따른 학내 심리상담 전문가가 있다면 상담 희망 여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63과 같다.

표 163. 출신지역별 학내 심리상담 전문가와의 상담 희망 여부

		지역구분		전체
		도내	도외	
상담 희망 여부	받고 싶음	835 54.2%	215 58.0%	1050 54.9%
	받고 싶지 않음	707 45.8%	156 42.0%	863 45.1%
전체		1542 100.0%	371 100.0%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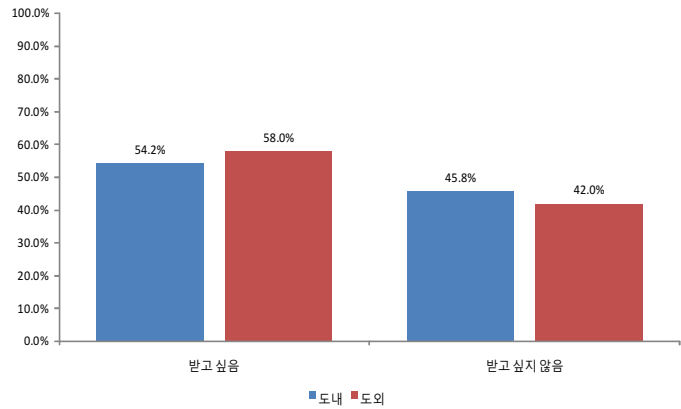


그림 108. 출신지역별 학내 심리상담 전문가와의 상담 희망 여부

출신 지역에 따른 심리상담 전문가가 있다면 상담 희망 여부를 살펴보면 도내·외 학생들 각각 54.2%, 58.0%가 상담을 받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9) 상담을 희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 단과대학별

단과대학에 따른 상담을 희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64와 같다.

표 164. 단과대학별 상담을 희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대학구분												전체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교육대	수의대	간호대	예술대	
고민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26 35.6%	17 32.1%	40 33.6%	16 31.4%	17 41.5%	26 29.9%	30 29.1%	49 33.6%	9 27.3%	4 33.3%	7 29.2%	8 22.9%	249 32.0%
내게 문제가 없어서	10 13.7%	8 15.1%	18 15.1%	6 11.8%	4 9.8%	12 13.8%	12 11.7%	26 17.8%	2 6.1%	2 16.7%	1 4.2%	5 14.3%	106 13.6%
상 담 을 희 망 하 지 않 는 가 장 큰 이 유	4 5.5%	0 .0%	1 .8%	0 .0%	0 .0%	1 1.1%	5 4.9%	3 2.1%	2 6.1%	1 8.3%	0 .0%	0 .0%	17 2.2%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서	10 13.7%	8 15.1%	20 16.8%	7 13.7%	8 19.5%	15 17.2%	16 15.5%	19 13.0%	3 9.1%	0 .0%	5 20.8%	5 14.3%	116 14.9%
상담받는게 어색해서	2 2.7%	1 1.9%	0 .0%	0 .0%	0 .0%	0 .0%	2 1.9%	0 .0%	1 3.0%	0 .0%	1 4.2%	0 .0%	7 .9%
주변에서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1 1.4%	1 1.9%	0 .0%	0 .0%	0 .0%	2 2.3%	0 .0%	1 .7%	1 3.0%	0 .0%	0 .0%	0 .0%	6 .8%
학교에 상담전문가가 없을 것 같아서	1 1.4%	0 .0%	1 .8%	2 3.9%	0 .0%	0 .0%	1 1.0%	1 .7%	1 3.0%	0 .0%	1 4.2%	2 5.7%	10 1.3%
비밀보장이 되는 것 같아서	8 11.0%	4 7.5%	14 11.8%	8 15.7%	4 9.8%	7 8.0%	15 14.6%	12 8.2%	3 9.1%	2 16.7%	5 20.8%	4 11.4%	86 11.1%
상담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6 8.2%	7 13.2%	10 8.4%	5 9.8%	4 9.8%	11 12.6%	7 6.8%	13 8.9%	4 12.1%	2 16.7%	1 4.2%	9 25.7%	79 10.2%
귀찮아서	5 6.8%	7 13.2%	15 12.6%	7 13.7%	4 9.8%	13 14.9%	15 14.6%	22 15.1%	7 21.2%	1 8.3%	3 12.5%	2 5.7%	101 13.0%
관심 없어서	73 100.0%	53 100.0%	119 100.0%	51 100.0%	41 100.0%	87 100.0%	103 100.0%	146 100.0%	33 100.0%	12 100.0%	24 100.0%	35 100.0%	777 100.0%

상담을 희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고민되는 내용이 없어서 라고 응답한 학생이 3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담 받는게 어색해서(14.9%), 내게 문제가 없어서(13.6%), 관심 없어서(13.0%), 상담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11.1%) 순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예술대의 경우에는 귀찮아서가 2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대학에서는 고민되는 내용이 없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성별

성별에 따른 상담을 희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65와 같다.

표 165. 성별 상담을 희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성별구분		전체	
	남자	여자		
상담을 희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고민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140 33.3%	109 30.5%	249 32.0%
	내게 문제가 없어서	75 17.9%	31 8.7%	106 13.6%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서	9 2.1%	8 2.2%	17 2.2%
	상담받는데 어색해서	54 12.9%	62 17.4%	116 14.9%
	주변에서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2 .5%	5 1.4%	7 .9%
	학교에 상담전문가가 없을 것 같아서	3 .7%	3 .8%	6 .8%
	비밀보장이 되는 않을 것 같아서	1 .2%	9 2.5%	10 1.3%
	상담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30 7.1%	56 15.7%	86 11.1%
	귀찮아서	46 11.0%	33 9.2%	79 10.2%
	관심 없어서	60 14.3%	41 11.5%	101 13.0%
전체	420 100.0%	357 100.0%	77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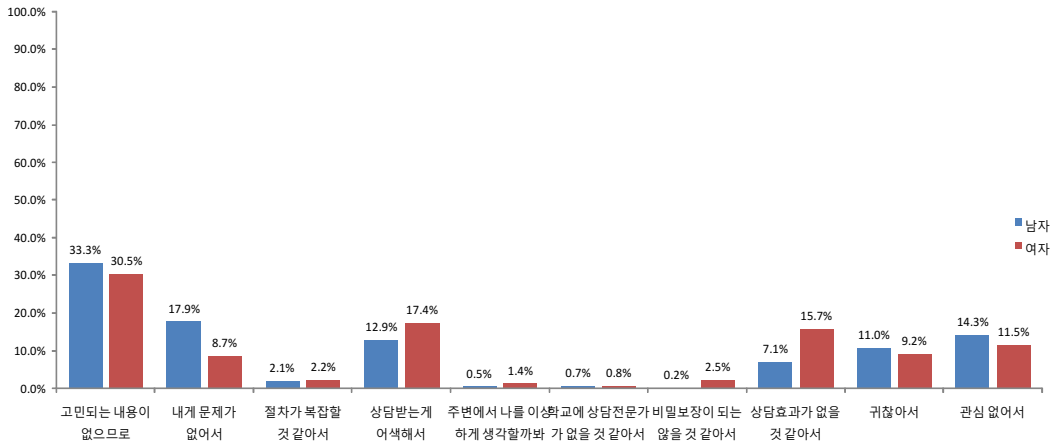


그림 109. 성별 상담을 희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성별에 따른 상담을 희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남·여 학생들 각각 33.3%, 30.5%로 고민되는 내용이 없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출신지역별

출신지역에 따른 상담을 희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66과 같다.

표 166. 출신지역별 상담을 희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지역구분		전체
		도내	도외	
상담을	고민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200 31.5%	49 34.3%	249 32.0%
	내게 문제가 없어서	83 13.1%	23 16.1%	106 13.6%
희망하지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서	15 2.4%	2 1.4%	17 2.2%
	상담받는게 어색해서	103 16.2%	13 9.1%	116 14.9%
않는	주변에서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7 1.1%	0 .0%	7 .9%
	학교에 상담전문가가 없을 것 같아서	5 .8%	1 .7%	6 .8%
가장	비밀보장이 되는 않을 것 같아서	9 1.4%	1 .7%	10 1.3%
	상담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73 11.5%	13 9.1%	86 11.1%
큰	귀찮아서	63 9.9%	16 11.2%	79 10.2%
	관심 없어서	76 12.0%	25 17.5%	101 13.0%
이유	전체	634 100.0%	143 100.0%	77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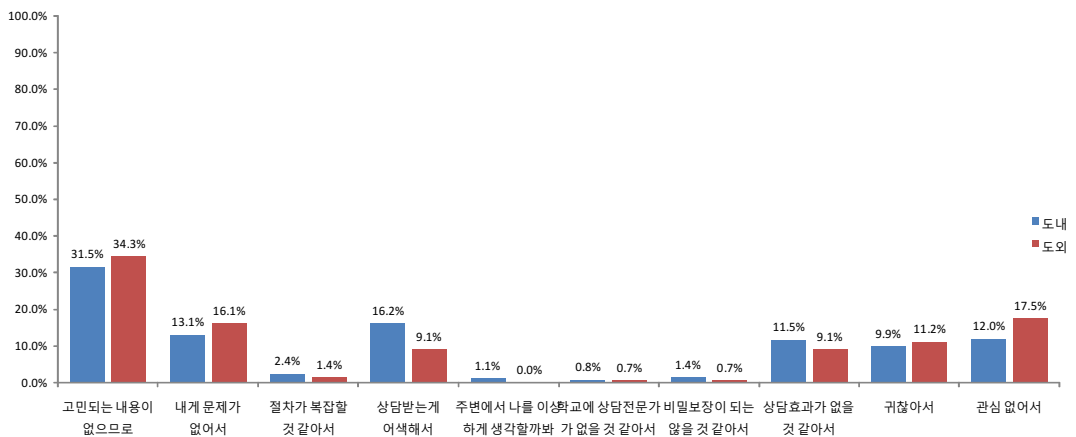


그림 110. 출신지역별 상담을 희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출신 지역에 따른 상담을 희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도내·외 학생들 각각 31.5%, 34.3%로 고민되는 내용이 없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10) 상담 희망 분야

- 단과대학별

단과대학에 따른 상담 희망 분야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67과 같다.

표 167. 단과대학별 상담 희망 분야

		대학구분												전체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교육대	수의대	간호대	예술대	
상담 희망 분야	진로 및 취업	81 55.9%	41 53.9%	110 64.0%	36 48.6%	33 51.6%	65 67.0%	98 63.2%	75 53.6%	11 22.4%	5 29.4%	10 34.5%	20 62.5%	585 55.7%
	진학	6 4.1%	5 6.6%	14 8.1%	6 8.1%	3 4.7%	7 7.2%	6 3.9%	8 5.7%	0 .0%	2 11.8%	1 3.4%	2 6.3%	60 5.7%
	대학생활 적응	13 9.0%	7 9.2%	11 6.4%	8 10.8%	6 9.4%	4 4.1%	10 6.5%	12 8.6%	7 14.3%	1 5.9%	5 17.2%	2 6.3%	86 8.2%
	학업	9 6.2%	2 2.6%	5 2.9%	9 12.2%	5 7.8%	4 4.1%	1 .6%	6 4.3%	3 6.1%	1 5.9%	4 13.8%	1 3.1%	50 4.8%
	대인관계 (이성)	7 4.8%	5 6.6%	8 4.7%	3 4.1%	3 4.7%	4 4.1%	6 3.9%	9 6.4%	4 8.2%	1 5.9%	2 6.9%	0 .0%	52 5.0%
	성격 및 정서문제	11 7.6%	6 7.9%	7 4.1%	4 5.4%	8 12.5%	7 7.2%	15 9.7%	14 10.0%	11 22.4%	3 17.6%	3 10.3%	2 6.3%	91 8.7%
	인생 및 가치관 확립문제	13 9.0%	4 5.3%	12 7.0%	3 4.1%	5 7.8%	4 4.1%	11 7.1%	10 7.1%	9 18.4%	4 23.5%	2 6.9%	3 9.4%	80 7.6%
	가정 및 가족문제	1 .7%	1 1.3%	2 1.2%	2 2.7%	1 1.6%	0 .0%	1 .6%	1 .7%	1 2.0%	0 .0%	1 3.4%	0 .0%	11 1.0%
	경제적인 문제	1 .7%	1 1.3%	0 .0%	1 1.4%	0 .0%	1 1.0%	0 .0%	2 1.4%	1 2.0%	0 .0%	0 .0%	1 3.1%	8 .8%
	시간관리	3 2.1%	3 3.9%	3 1.7%	2 2.7%	0 .0%	0 .0%	7 4.5%	3 2.1%	2 4.1%	0 .0%	1 3.4%	0 .0%	24 2.3%
	외모	0 .0%	0 .0%	0 .0%	0 .0%	0 .0%	1 1.0%	0 .0%	0 .0%	0 .0%	0 .0%	0 .0%	1 3.1%	2 .2%
	음주 및 흡연	0 .0%	1 1.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전체	145 100.0%	76 100.0%	172 100.0%	74 100.0%	64 100.0%	97 100.0%	155 100.0%	140 100.0%	49 100.0%	17 100.0%	29 100.0%	32 100.0%	1050 100.0%

상담을 희망하는 분야에 대한 질문에 진로 및 취업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5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모든 단과대학에서 진로 및 취업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교육대의 경우에는 성격 및 정서문제와 진로 및 취업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성별

성별에 따른 상담 희망 분야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68과 같다.

표 168. 성별 상담 희망 분야

	성별구분		전체
	남자	여자	
진로 및 취업	236 52.6%	349 58.1%	585 55.7%
진학	30 6.7%	30 5.0%	60 5.7%
대학생활 적응	32 7.1%	54 9.0%	86 8.2%
학업	21 4.7%	29 4.8%	50 4.8%
대인관계(이성)	32 7.1%	20 3.3%	52 5.0%
성격 및 정서문제	34 7.6%	57 9.5%	91 8.7%
인생 및 가치관 확립문제	38 8.5%	42 7.0%	80 7.6%
가정 및 가족문제	7 1.6%	4 .7%	11 1.0%
경제적인 문제	5 1.1%	3 .5%	8 .8%
시간관리	13 2.9%	11 1.8%	24 2.3%
외모	1 .2%	1 .2%	2 .2%
음주 및 흡연	0 .0%	1 .2%	1 .1%
전체	449 100.0%	601 100.0%	1050 100.0%

성별에 따른 상담을 희망하는 분야를 살펴보면 남·여 학생 각각 52.6%, 58.1%로 진로 및 취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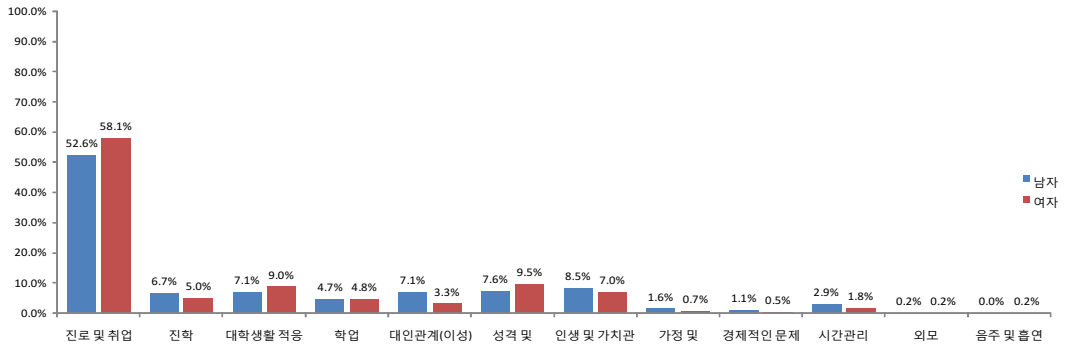


그림 111. 성별 상담 희망 분야

- 출신지역별

출신지역에 따른 상담 희망 분야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69와 같다.

표 169. 출신지역별 상담 희망 분야

상담 희망 분야	지역구분		전체
	도내	도외	
진로 및 취업	481 57.7%	104 48.1%	585 55.7%
진학	49 5.9%	11 5.1%	60 5.7%
대학생활 적응	70 8.4%	16 7.4%	86 8.2%
학업	40 4.8%	10 4.6%	50 4.8%
대인관계(이성)	38 4.6%	14 6.5%	52 5.0%
성격 및 정서문제	67 8.0%	24 11.1%	91 8.7%
인생 및 가치관 확립문제	56 6.7%	24 11.1%	80 7.6%
가정 및 가족문제	7 .8%	4 1.9%	11 1.0%
경제적인 문제	5 .6%	3 1.4%	8 .8%
시간관리	19 2.3%	5 2.3%	24 2.3%
외모	2 .2%	0 .0%	2 .2%
음주 및 흡연	0 0.0%	1 .5%	1 .1%
전체	834 100.0%	216 100.0%	105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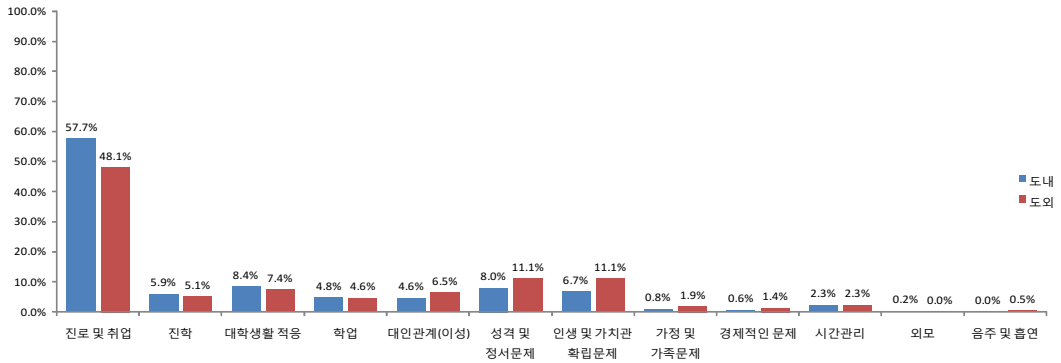


그림 112. 출신지역별 상담 희망 분야

출신 지역에 따른 상담을 희망하는 분야를 살펴보면 도내·외 출신 학생들 각각 57.7%, 48.1%로 진로 및 취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1) 참여하고 싶은 사회봉사활동

- 단과대학별

단과대학에 따른 참여하고 싶은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70과 같다.

표 170. 단과대학별 참여하고 싶은 사회봉사활동

	대학구분												전체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교육대	수의대	간호대	예술대		
참여하고 싶은 사회봉사활동	시설기관에서의 단순 노력봉사	26 11.5%	15 11.0%	27 9.0%	5 3.8%	13 11.5%	19 9.9%	28 10.4%	45 14.6%	1 .1%	0 .0%	4 7.4%	3 4.5%	186 9.7%
	업무보조	19 8.4%	22 16.2%	58 19.3%	7 5.3%	20 17.7%	30 15.6%	39 14.4%	62 20.1%	7 8.0%	2 6.9%	5 9.3%	5 7.5%	276 14.4%
	학습 또는 생활지도	78 34.5%	41 30.1%	66 22.0%	81 61.8%	21 18.6%	41 21.4%	67 24.8%	53 17.2%	57 65.5%	9 31.0%	15 27.8%	10 14.9%	539 28.2%
	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23 10.2%	8 5.9%	23 7.7%	6 4.6%	8 7.1%	16 8.3%	19 7.0%	25 8.1%	2 2.3%	2 6.9%	3 5.6%	4 6.0%	139 7.3%
	재가복지	23 10.2%	15 11.0%	35 11.7%	7 5.3%	10 8.8%	19 9.9%	26 9.6%	29 9.4%	4 4.6%	2 6.9%	2 3.7%	11 16.4%	183 9.6%
	농촌봉사활동	6 2.7%	3 2.2%	8 2.7%	4 3.1%	6 5.3%	11 5.7%	13 4.8%	11 3.6%	2 2.3%	1 3.4%	3 5.6%	2 3.0%	70 3.7%
	해외봉사활동	35 15.5%	23 16.9%	66 22.0%	15 11.5%	27 23.9%	44 22.9%	53 19.6%	53 17.2%	9 10.3%	4 13.8%	11 20.4%	10 14.9%	350 18.3%
	전문 기술봉사	8 3.5%	3 2.2%	7 2.3%	3 2.3%	3 2.7%	6 3.1%	18 6.7%	10 3.2%	4 4.6%	6 20.7%	11 20.4%	18 26.9%	97 5.1%
	기타	8 3.5%	6 4.4%	10 3.3%	3 2.3%	5 4.4%	6 3.1%	7 2.6%	20 6.5%	1 1.1%	3 10.3%	0 .0%	4 6.0%	73 3.8%
	전체	226 100.0%	136 100.0%	300 100.0%	131 100.0%	113 100.0%	192 100.0%	270 100.0%	308 100.0%	87 100.0%	29 100.0%	54 100.0%	67 100.0%	1913 100.0%

참여하고 싶은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질문에 학습 또는 생활지도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2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해외봉사활동(18.3%), 업무보조(14.4%), 시설기관에서의 단순 노력봉사(9.7%), 재가복지(9.6%) 순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인문대, 사회대, 사범대, 자연대, 교육대, 수의대, 간호대는 학습 또는 생활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명대, 해양대는 해외봉사활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예술대는 전문 기술봉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상대와 공과대는 학습 또는 생활지도와 해외봉사활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 성별

성별에 따른 참여하고 싶은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71과 같다.

표 171. 성별 참여하고 싶은 사회봉사활동

	성별구분		전체	
	남자	여자		
참여하고 싶은 사회봉사활동	시설기관에서의 단순 노력봉사	108 11.6%	78 7.9%	186 9.7%
	업무보조	148 15.9%	128 13.0%	276 14.4%
	학습 또는 생활지도	235 25.3%	304 30.9%	539 28.2%
	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79 8.5%	60 6.1%	139 7.3%
	재가복지	73 7.9%	110 11.2%	183 9.6%
	농촌봉사활동	43 4.6%	27 2.7%	70 3.7%
	해외봉사활동	158 17.0%	192 19.5%	350 18.3%
	전문 기술봉사	42 4.5%	55 5.6%	97 5.1%
	기타	42 4.5%	31 3.1%	73 3.8%
	전체	928 100.0%	985 100.0%	1913 100.0%

성별에 따른 참여하고 싶은 사회봉사활동을 살펴보면 남·여 학생 각각 25.3%, 30.9%가 학습 또는 생활지도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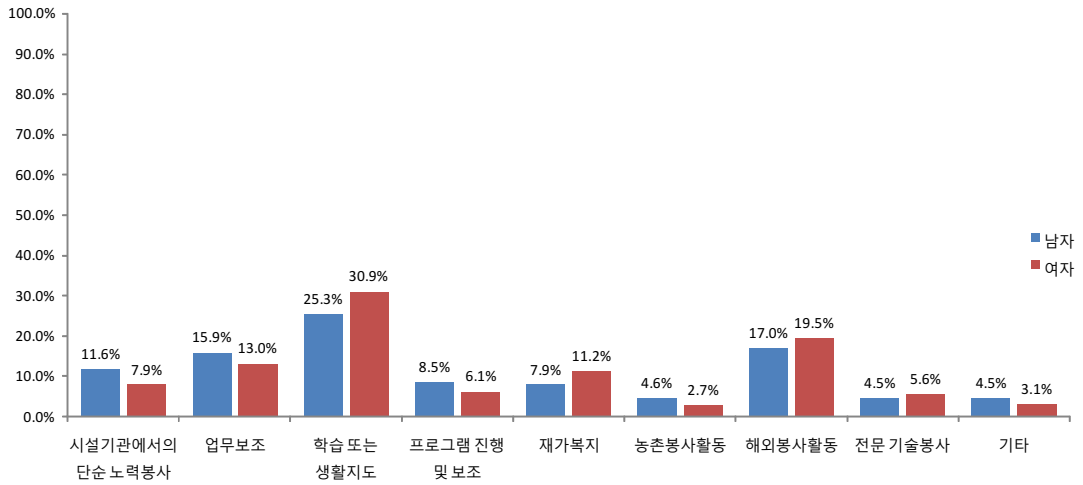


그림 113. 성별 참여하고 싶은 사회봉사활동

-. 출신지역별

출신지역에 따른 참여하고 싶은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172와 같다.

표 172. 출신지역별 참여하고 싶은 사회봉사활동

	지역구분		전체
	도내	도외	
시설기관에서의 단순 노력봉사	163 10.6%	23 6.2%	186 9.7%
업무보조	229 14.9%	47 12.7%	276 14.4%
학습 또는 생활지도	408 26.5%	131 35.3%	539 28.2%
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109 7.1%	30 8.1%	139 7.3%
재가복지	156 10.1%	27 7.3%	183 9.6%
농촌봉사활동	59 3.8%	11 3.0%	70 3.7%
해외봉사활동	296 19.2%	54 14.6%	350 18.3%
전문 기술봉사	72 4.7%	25 6.7%	97 5.1%
기타	50 3.2%	23 6.2%	73 3.8%
전체	1542 100.0%	371 100.0%	19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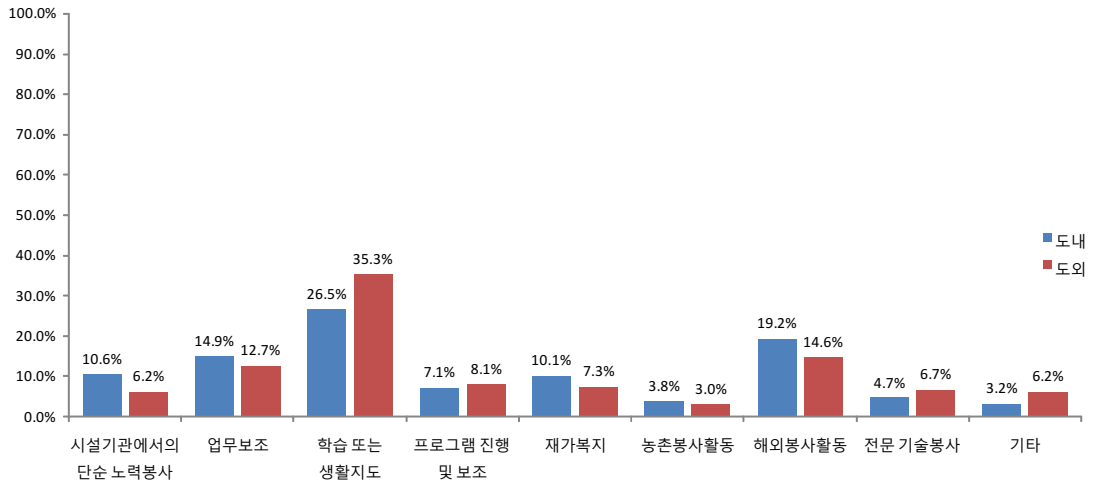


그림 114. 출신지역별 참여하고 싶은 사회봉사활동

출신 지역에 따른 참여하고 싶은 사회봉사활동을 살펴보면 도내·외 출신 학생들 각각 26.5%, 35.3%로 학습 또는 생활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7. 삶의 태도

1) 나는 인생의 목표가 있다.

표 173 단과대학별 인생의 목표 유무

		대학구분											전체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교육대	수의대	간호대	예술대	
유무	아니오	36	19	64	23	19	34	62	76	12	3	8	4	360
		15.9%	14.0%	21.3%	17.6%	16.8%	17.7%	23.0%	24.7%	13.8%	10.3%	14.8%	6.0%	18.8%
예		190	117	236	108	94	158	208	232	75	26	46	63	1553
		84.1%	86.0%	78.7%	82.4%	83.2%	82.3%	77.0%	75.3%	86.2%	89.7%	85.2%	94.0%	81.2%
전체		226	136	300	131	113	192	270	308	87	29	54	67	191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인생 목표가 있는가에 대하여 81.2%가 인생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약 20%는 아직도 인생 목표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경상대와 자연대, 공과대 학생들이 인생 목표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2) 나는 대학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

표 174 단과대학별 하고 싶은 일 유무

		대학구분											전체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교육대	수의대	간호대	예술대	
유무	아니오	31	19	45	15	16	38	48	54	5	1	5	5	282
		13.7%	14.0%	15.0%	11.5%	14.2%	19.8%	17.8%	17.5%	5.7%	3.4%	9.3%	7.5%	14.7%
예		195	117	255	116	97	154	222	254	82	28	49	62	1631
		86.3%	86.0%	85.0%	88.5%	85.8%	80.2%	82.2%	82.5%	94.3%	96.6%	90.7%	92.5%	85.3%
전체		226	136	300	131	113	192	270	308	87	29	54	67	191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대학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가에 대하여 85.3%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약 15%는 하고 싶은 것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해양대 학생들의 19.8%가 대학에서 하고 싶은 일이 없다고 응답하여 그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3) 나는 졸업 후 하고 싶은 일이 있다.

표 175 단과대학별 졸업 후 하고 싶은 일 유무

		대학구분											전체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교육대	수의대	간호대		예술대
유무	아니오	40 17.7%	22 16.2%	52 17.3%	16 12.2%	17 15.0%	38 19.8%	53 19.6%	63 20.5%	3 3.4%	0 .0%	4 7.4%	4 6.0%	312 16.3%
	예	186 82.3%	114 83.8%	248 82.7%	115 87.8%	96 85.0%	154 80.2%	217 80.4%	245 79.5%	84 96.6%	29 100.0%	50 92.6%	63 94.0%	1601 83.7%
전체		226 100.0%	136 100.0%	300 100.0%	131 100.0%	113 100.0%	192 100.0%	270 100.0%	308 100.0%	87 100.0%	29 100.0%	54 100.0%	67 100.0%	1913 100.0%

졸업 후 하고 싶은 일이 있는가에 대하여 83.7%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16.3%는 하고 싶은 것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학생들 중 하고 싶은 일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4) 나는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

표 176 단과대학별 대학에서의 공부 의욕 유무

		대학구분											전체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교육대	수의대	간호대		예술대
유무	아니오	15 6.6%	9 6.6%	22 7.3%	8 6.1%	9 8.0%	14 7.3%	16 5.9%	18 5.8%	11 12.6%	0 .0%	2 3.7%	4 6.0%	128 6.7%
	예	211 93.4%	127 93.4%	278 92.7%	123 93.9%	104 92.0%	178 92.7%	254 94.1%	290 94.2%	76 87.4%	29 100.0%	52 96.3%	63 94.0%	1785 93.3%
전체		226 100.0%	136 100.0%	300 100.0%	131 100.0%	113 100.0%	192 100.0%	270 100.0%	308 100.0%	87 100.0%	29 100.0%	54 100.0%	67 100.0%	1913 100.0%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가에 대하여 93.3%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6.7%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경상대, 생명대, 해양대 학생들 중 열심히 공부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5) 나는 모든 일에 열정적이다.

표 177 단과대학별 일에 대한 열정 유무

		대학구분											전체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교육대	수의대	간호대		예술대
유무	아니오	107	60	128	68	45	78	128	153	36	15	31	31	880
		47.3%	44.1%	42.7%	51.9%	39.8%	40.6%	47.4%	49.7%	41.4%	51.7%	57.4%	46.3%	46.0%
예		119	76	172	63	68	114	142	155	51	14	23	36	1033
		52.7%	55.9%	57.3%	48.1%	60.2%	59.4%	52.6%	50.3%	58.6%	48.3%	42.6%	53.7%	54.0%
전체		226	136	300	131	113	192	270	308	87	29	54	67	191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모든 일에 열정적인가에 대하여 54.0%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46.0%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사범대, 수의대, 간호대의 경우에는 모든 일에 열정적인가의 질문에 아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50%보다 높게 나타났다.

6) 나는 스스로 일을 계획할 수 있다.

표 178 단과대학별 스스로 일에 대한 계획 설정 유무

		대학구분											전체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교육대	수의대	간호대		예술대
유무	아니오	44	18	53	26	21	38	48	74	4	3	6	12	347
		19.5%	13.2%	17.7%	19.8%	18.6%	19.8%	17.8%	24.0%	4.6%	10.3%	11.1%	17.9%	18.1%
예		182	118	247	105	92	154	222	234	83	26	48	55	1566
		80.5%	86.8%	82.3%	80.2%	81.4%	80.2%	82.2%	76.0%	95.4%	89.7%	88.9%	82.1%	81.9%
전체		226	136	300	131	113	192	270	308	87	29	54	67	191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스스로 일데 대한 계획을 설정하는 가에 대하여 81.9%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18.1%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공과대가 부정적 응답한 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7) 나는 수업시간에 자거나 조는 편이다.

표 179 단과대학별 수업시간에 수면 유무

		대학구분											전체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교육대	수의대	간호대		예술대
유무	아니오	140	84	159	76	68	96	163	157	53	21	28	41	1086
		61.9%	61.8%	53.0%	58.0%	60.2%	50.0%	60.4%	51.0%	60.9%	72.4%	51.9%	61.2%	56.8%
예		86	52	141	55	45	96	107	151	34	8	26	26	827
		38.1%	38.2%	47.0%	42.0%	39.8%	50.0%	39.6%	49.0%	39.1%	27.6%	48.1%	38.8%	43.2%
전체		226	136	300	131	113	192	270	308	87	29	54	67	191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업시간에 자거나 조는 편인가에 대한 질문에 56.8%가 아니라고 응답하였으며 43.2%는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경상대, 해양대, 공과대, 간호대가 부정적 응답한 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8) 나는 무엇이나 열중하고 끝까지 계속하지 못한다.

표 180 단과대학별 일에 대한 열정 및 지속성 유무

		대학구분											전체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교육대	수의대	간호대		예술대
유무	아니오	120	88	178	83	75	111	157	165	66	24	32	44	1143
		53.1%	64.7%	59.3%	63.4%	66.4%	57.8%	58.1%	53.6%	75.9%	82.8%	59.3%	65.7%	59.7%
예		106	48	122	48	38	81	113	143	21	5	22	23	770
		46.9%	35.3%	40.7%	36.6%	33.6%	42.2%	41.9%	46.4%	24.1%	17.2%	40.7%	34.3%	40.3%
전체		226	136	300	131	113	192	270	308	87	29	54	67	191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무엇이나 열중하고 끝까지 계속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59.7%가 계속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40.3%는 계속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인문대, 공과대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9) 나는 일이 잘 안될 때는 금방 집어치우고 싶어진다.

표 181 단과대학별 일에 대한 지속성 유무

		대학구분											전체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교육대	수의대	간호대		예술대
유무	아니오	75	62	115	61	51	76	101	113	50	20	24	28	776
		33.2%	45.6%	38.3%	46.6%	45.1%	39.6%	37.4%	36.7%	57.5%	69.0%	44.4%	41.8%	40.6%
예		151	74	185	70	62	116	169	195	37	9	30	39	1137
		66.8%	54.4%	61.7%	53.4%	54.9%	60.4%	62.6%	63.3%	42.5%	31.0%	55.6%	58.2%	59.4%
전체		226	136	300	131	113	192	270	308	87	29	54	67	191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일이 잘 안될 때는 금방 집어치우고 싶어진다에 대한 질문에 59.4%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40.6%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교육대와 수의대는 끈기있게 끝까지 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10) 나는 누가 시키지 않으면 게으름 피울 때가 있다.

표 182 단과대학별 일에 대한 자발적 행동 유무

		대학구분											전체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교육대	수의대	간호대		예술대
유무	아니오	42	27	63	30	32	53	53	62	16	7	13	13	411
		18.6%	19.9%	21.0%	22.9%	28.3%	27.6%	19.6%	20.1%	18.4%	24.1%	24.1%	19.4%	21.5%
예		184	109	237	101	81	139	217	246	71	22	41	54	1502
		81.4%	80.1%	79.0%	77.1%	71.7%	72.4%	80.4%	79.9%	81.6%	75.9%	75.9%	80.6%	78.5%
전체		226	136	300	131	113	192	270	308	87	29	54	67	191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누가 시키지 않으면 게으름 피울 때가 있다에 대한 질문에 78.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21.5%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11) 나는 결심하여 행동하는 능력이 약하다.

표 183 단과대학별 일에 대한 결정력 유무

		대학구분											전체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교육대	수의대	간호대		예술대
유무	아니오	94	61	144	69	62	94	122	121	55	13	27	29	891
		41.6%	44.9%	48.0%	52.7%	54.9%	49.0%	45.2%	39.3%	63.2%	44.8%	50.0%	43.3%	46.6%
예		132	75	156	62	51	98	148	187	32	16	27	38	1022
		58.4%	55.1%	52.0%	47.3%	45.1%	51.0%	54.8%	60.7%	36.8%	55.2%	50.0%	56.7%	53.4%
전체		226	136	300	131	113	192	270	308	87	29	54	67	191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결심하여 행동하는 능력이 약한가에 대한 질문에 53.4%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46.6%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사범대, 생명대, 교육대, 간호대는 결심하여 행동하는 능력이 약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12) 나의 앞날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

표 184 단과대학별 미래에 대한 희망 유무

		대학구분											전체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교육대	수의대	간호대		예술대
유무	아니오	194	118	268	118	104	164	230	266	84	27	50	58	1681
		85.8%	86.8%	89.3%	90.1%	92.0%	85.4%	85.2%	86.4%	96.6%	93.1%	92.6%	86.6%	87.9%
예		32	18	32	13	9	28	40	42	3	2	4	9	232
		14.2%	13.2%	10.7%	9.9%	8.0%	14.6%	14.8%	13.6%	3.4%	6.9%	7.4%	13.4%	12.1%
전체		226	136	300	131	113	192	270	308	87	29	54	67	191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앞날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12.1%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87.9%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인문대, 사회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예술대의 경우 부정적 응답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13) 나는 어떤 일에 온 정신을 집중하기가 어렵다.

표 185 단과대학별 일에 대한 집중력 유무

		대학구분											전체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교육대	수의대	간호대	예술대	
유무	아니오	136 60.2%	95 69.9%	203 67.7%	88 67.2%	81 71.7%	125 65.1%	177 65.6%	193 62.7%	72 82.8%	23 79.3%	40 74.1%	45 67.2%	1278 66.8%
	예	90 39.8%	41 30.1%	97 32.3%	43 32.8%	32 28.3%	67 34.9%	93 34.4%	115 37.3%	15 17.2%	6 20.7%	14 25.9%	22 32.8%	635 33.2%
전체		226 100.0%	136 100.0%	300 100.0%	131 100.0%	113 100.0%	192 100.0%	270 100.0%	308 100.0%	87 100.0%	29 100.0%	54 100.0%	67 100.0%	1913 100.0%

어떤 일에 온 정신을 집중하기 어렵다에 대한 질문에 33.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66.8%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14) 나는 한 가지 일에 정신을 기울이지 못한다.

표 186 단과대학별 일에 대한 몰입 유무

		대학구분											전체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교육대	수의대	간호대	예술대	
유무	아니오	146 64.6%	96 70.6%	214 71.3%	97 74.0%	80 70.8%	122 63.5%	185 68.5%	201 65.3%	72 82.8%	23 79.3%	39 72.2%	46 68.7%	1321 69.1%
	예	80 35.4%	40 29.4%	86 28.7%	34 26.0%	33 29.2%	70 36.5%	85 31.5%	107 34.7%	15 17.2%	6 20.7%	15 27.8%	21 31.3%	592 30.9%
전체		226 100.0%	136 100.0%	300 100.0%	131 100.0%	113 100.0%	192 100.0%	270 100.0%	308 100.0%	87 100.0%	29 100.0%	54 100.0%	67 100.0%	1913 100.0%

한 가지 일에 정신을 기울이지 못한다에 대한 질문에 30.9%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69.1%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인문대, 해양대의 경우 부정적 응답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15) 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자신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

표 187 단과대학별 직업 선택에 대한 결정성 유무

		대학구분											전체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교육대	수의대	간호대		예술대
유무	아니오	23	7	26	11	7	23	22	25	4	0	4	4	156
		10.2%	5.1%	8.7%	8.4%	6.2%	12.0%	8.1%	8.1%	4.6%	.0%	7.4%	6.0%	8.2%
예		203	129	274	120	106	169	248	283	83	29	50	63	1757
		89.8%	94.9%	91.3%	91.6%	93.8%	88.0%	91.9%	91.9%	95.4%	100.0%	92.6%	94.0%	91.8%
전체		226	136	300	131	113	192	270	308	87	29	54	67	191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자신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에 대한 질문에 91.8%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8.2%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해양대의 경우 부정적 응답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16) 나는 내가 갖고 싶은 직업에 대해서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표 188 단과대학별 내가 희망하는 직업에 대한 생각 유무

		대학구분											전체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교육대	수의대	간호대		예술대
유무	아니오	188	105	252	111	94	146	219	236	77	27	49	56	1560
		83.2%	77.2%	84.0%	84.7%	83.2%	76.0%	81.1%	76.6%	88.5%	93.1%	90.7%	83.6%	81.5%
예		38	31	48	20	19	46	51	72	10	2	5	11	353
		16.8%	22.8%	16.0%	15.3%	16.8%	24.0%	18.9%	23.4%	11.5%	6.9%	9.3%	16.4%	18.5%
전체		226	136	300	131	113	192	270	308	87	29	54	67	191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내가 갖고 싶은 직업에 대해서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는에 대한 질문에 18.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81.5%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사회대, 해양대, 공과대의 경우 부정적 응답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17)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할 생각이다.

표 189 단과대학별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얻기 위한 노력 유무

		대학구분											전체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교육대	수의대	간호대		예술대
유무	아니오	16	8	11	10	6	15	16	27	10	0	5	4	128
		7.1%	5.9%	3.7%	7.6%	5.3%	7.8%	5.9%	8.8%	11.5%	.0%	9.3%	6.0%	6.7%
예		210	128	289	121	107	177	254	281	77	29	49	63	1785
		92.9%	94.1%	96.3%	92.4%	94.7%	92.2%	94.1%	91.2%	88.5%	100.0%	90.7%	94.0%	93.3%
전체		226	136	300	131	113	192	270	308	87	29	54	67	191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내가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할 생각이다에 대한 질문에 93.3%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6.7%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교육대의 경우 부정적 응답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18) 나는 내 적성이 어떤 직업에 잘 맞는지 알고 있다.

표 190 단과대학별 나의 적성이 어떤 직업과 맞는지에 대한 인지 유무

		대학구분											전체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교육대	수의대	간호대		예술대
유무	아니오	86	49	137	44	45	78	105	149	19	5	26	15	758
		38.1%	36.0%	45.7%	33.6%	39.8%	40.6%	38.9%	48.4%	21.8%	17.2%	48.1%	22.4%	39.6%
예		140	87	163	87	68	114	165	159	68	24	28	52	1155
		61.9%	64.0%	54.3%	66.4%	60.2%	59.4%	61.1%	51.6%	78.2%	82.8%	51.9%	77.6%	60.4%
전체		226	136	300	131	113	192	270	308	87	29	54	67	191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내 적성이 어떤 직업에 잘 맞는지 알고 있다에 대한 질문에 60.4%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39.6%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약 40%의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이 어떤 직업에 잘 맞는지 모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V. 요약 및 제언

본 조사는 2015년 신입생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 졌다. 전체 신입생 중 80%인 1,986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응답인원은 1,956명 이었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1,913명이 분석대상이 되었다. 설문 응답률은 77%로 신입생의 특성을 설명하는데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본 조사는 ‘개인 및 가정생활 관련’, ‘대학생활 관련’, ‘대학 및 학부(과) 선택 관련’, ‘교수 관련’, ‘가치관 및 사회관 관련’, ‘취업전략본부 관련’, ‘삶의 태도’로 7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분석에는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소속대학별’, ‘성별’, ‘출신고교의 소재지’에 따라 빈도분석,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경우 몇몇 항목에서 낮은 빈도가 나타나고 있으며 중복적 문항들이 나타나고 있어 차후 조사 시에는 그러한 항목에 대한 적절한 수정이 필요하다.

개인 및 가정생활 관련

2015년 신입생들은 90%이상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과대학, 성별, 출신 지역에 따라 크게 차이나 나타나지 않았다. 입학 후 거주 형태에서는 64.1%의 학생들이 본가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외 출신 학생들의 경우에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비율이 73.0%로 나타나 기숙사의 수용 가능인원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가정의 경제수준은 중 이상이 57.3%로 나타났고 아버지는 50% 이상이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어머니는 40% 이상이 대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외 출신 학생들의 어머니가 학력이 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직의 비율이 25.8%로 가장 높았으며 어머니의 직업은 판매 및 서비스업이 26.2%로 가장 높았다. 가정의 분위기는 대체로 화목하다고 나타났으며 도내 출신 학생들보다 도외 출신 학생들이 가정이 좀 더 화목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부모님에 대한 느낌의 경우에는 대체로 편안하다고 응답하였는데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부모님이 더 편안하다고 하였다. 부모님의 관심도에서는 85%의 학생들이 자신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등록금 및 생활비는 86.1%가 부모님이 지원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응답인원의 9.7%가 스스로 등록금 및 생활비를 부담할 것으로 응답하여

이 학생들에 원만한 대학생활을 위하여 대학차원에서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장래희망 직종의 경우 24.1%가 공무원을 희망하고 있으며 특수목적대학(사범대, 교육대, 수의대, 간호대)의 학생들은 해당 분야로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졸업 후에는 44.7%가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며 국가고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비율도 32.7%로 높게 나타났다. 취업과 국가고시를 위한 대학의 지원이 요구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진로를 결정하는데 정보부족이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몰라서 진로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에 입학 한 신입생들부터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진로검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이후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생활 관련

2015년 신입생들은 유망 직업을 얻기 위하여 대학에 진학했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학생들은 유망 직업을 얻기 위함이 가장 높았지만 여학생들은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학에 진학했다는 비율이 가장 높아 남녀 간에 차이가 나타난다.

대학생활 중에는 폭넓은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싶다는 학생의 비율이 3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대의 경우에는 다양한 사회경험을 하고 싶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해외여행 및 외국연수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회가 되면 가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대학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입학 후 학점취득과 진로방향 결정이 걱정된다고 하고 있으며 10%의 학생들은 학비와 생활비 마련이 걱정된다고 하고 있다.

재학 중 아르바이트는 약 75%가 희망하고 있으며 희망 이유는 용돈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응답하였다. 동아리활동은 취미와 관련된 분야로 하고 싶어하며 그 이유는 취미와 여가생활이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진로와 관련하여서 대학생활 중에는 외국어 공부와 전공 공부에 주력하고 싶다는 비율이 50%가량 나타났다.

대학 및 학부(과) 선택 관련

입학 전 본교에 대한 인식은 보통 이상이 90%이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입학 후 현재의 자긍심은 입학 전 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나 본교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입학한 모집단위는 고등학교 3학년에서 입학원서 접수 기간 중에 결정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학과 선택 시에는 합격 가능성을 우선 고려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도내 출신 학생들은 합격 가능성이 가장 높았지만 도외 출신 학생들은 적성에 따른 학과 선택이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응답하였다. 본교의 선택은 가까운 거리가 가장 높은 비율이 나타났고, 본교를 선택할 시에는 학과와 마찬가지로 합격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응답했다. 도외 출신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을 고려하여 원하는 학과를 선택한 반면에 도내 출신 학생들은 합격 가능성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도내 출신 학생들이 학교 및 학과에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교에 대한 정보는 주변 사람으로 대부분 얻고 있었으며 정보 수집에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은 홈페이지라고 응답하였다. 대학생 생활 관련하여 가장 알고 싶은 것은 전공학과의 학문내용과 전망 및 학사관리 부분으로 나타나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대학별 전공소개 및 학사관리 안내 책자 등을 제작하여 배포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교수 관련

교수들에게 기대하는 점은 높은 학점이 2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해박한 지식 전달도 21.5%로 높게 나타났다. 도내 출신 학생들과 남학생들은 높은 학점, 도외 출신 학생들과 여학생들은 해박한 지식 전달을 기대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수들에게는 취업문제와 학습방법·학업문제에 대하여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하였다. 본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책임지도교수제도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면 학생들이 학교 및 학과에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가치관 및 사회관 관련

학생들은 자신의 대인관계는 대체로 원만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인생에서 취미와 여가를 즐기는 생활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를 통해 삶의 가치의 변화를 볼 수 있다. 대학생으로서는 유능한 사회인으로서 기초를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력 및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하였다.

현 사회가 당면한 문제는 실업문제와 부정부패를 높게 인식하고 있어 사회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제주도민이 겪고 있는 문제로는 지역개발문제를

뽑고 있다.

취업전략본부 관련

대학생활의 어려움을 상담할 대상으로 친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생들이 학교적응을 위하여 또래 상담사를 양성하고 활발한 활동을 한다면 학생들이 학교적응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취업전략본부에서의 상담도 66.9%의 학생들이 희망하고 있으며 진로 및 취업, 성격 및 정서문제를 상담 받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학생들은 학습 또는 생활지도 분야로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해외봉사활동의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예술대의 경우에는 전문 기술봉사를 하고 싶다는 학생들이 많았다. 대학 차원에서 학생들이 희망하는 봉사활동을 파악하여 그에 적절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최근 3개월간 외로움·불안을 경험하는 학생은 약 15%, 분노를 경험하는 학생은 약 7%, 우울·무기력을 경험하는 학생은 약 15%, 자살충동을 경험하는 학생은 약 8%로 나타났다. 신입생의 10% 가량이 심리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적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보다 건강하게 대학생활 및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삶의 태도

2015년도 신입생들 중 약 19%는 인생에 대한 목표가 없으며 15%는 하고 싶은 일이 없고 16%는 졸업 후에 하고 싶은 일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15% 이상의 학생들이 인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목표를 가지고 행동할 때 동기가 생기므로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기에 학생들이 목표를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대학차원에서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학생들은 일에 대한 열정과 그 일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수동적인 행동 양식을 보이고 있다. 현 사회가 요구하는 자기주도적 삶을 살아가는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이 그 기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조사를 통하여 2015년도 신입생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알 수 있었다. 매년 실시되는 신입생 실태조사도 대학이 나아가는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이 학생들이 본교의 대학생활을 통하여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은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교에 입학하여 졸업할 때까지의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종단적 연구를 실시하여 본교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통하여 대학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제주대학교 취업전략본부(2013) '2013학년도 신입생 실태 조사'
- 제주대학교 취업전략본부(2012) '2012학년도 신입생 실태 조사'
- 제주대학교 취업전략본부(2011) '2011학년도 신입생 실태 조사'
- 제주대학교 취업전략본부(2010) '2010학년도 신입생 실태 조사'